연구보고서 17-01

대ASEAN FDI 결정요인의 특징과 정책적 시사점

정형곤
방호경
이보람
백종훈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연구보고서
17-01

대ASEAN FDI 결정요인의 특징과 정책적 시사점

정형곤 · 방호경 · 이보람 · 백종훈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연구보고서 17-01

대ASEAN FDI 결정요인의 특징과 정책적 시사점

인 쇄 2017년 6월 27일
발 행 2017년 6월 30일
발행인 현정택
발행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 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전 화 044) 414-1179
팩 스 044) 414-1144
인쇄처 오롬(주) T. 02-2273-7011

정가 7,000원
ISBN 978-89-322-1664-5 94320
978-89-322-1072-8(세트)

서 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경제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아세안을 비롯한 동아시아 경제권은 상대적으로 견고한 경제성장을 보이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동아시아 경제권의 경제협력과 경제자유화 논의는 RCEP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RCEP 협상은 트럼프 행정부 집권 이후 미국이 TPP 탈퇴를 선언하며 그 위상과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는데, 이 RCEP 협상을 주도하는 것이 바로 아세안입니다. 아세안은 우리의 제2 교역상대이기도 하며 아세안 지역에 대한 우리의 투자 역시 매년 증가 추세를 시현하고 있어 한국의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의 경제보복이 이어지면서 국내에서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 무역과 투자의 다변화 방안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아세안과의 경제협력 강화가 그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 본 보고서는 아세안 FDI의 특징과 비즈니스 여건을 소득군별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아세안 FDI 결정요인에 대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여기에 우리 기업의 아세안 진출 결정요인과 아세안 진출을 저해하는 아세안의 FDI 규제요인을 현장감 있게 살펴보기 위해 현지 전문가 인터뷰 등을 활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대아세안 FDI 활성화를 통한 상호 호혜적 경제성장동력 창출 측면에서 우리 기업의 대아세안 진출전략과 한국정부의 대아세안 경제정책에 관련하여 시사점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보고서 작성에는 본원의 동북아경제본부 정형곤 선임연구위원, 방호경 선임연구원, 이보람 전문연구원, 백종훈 연구원이 참여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심의과정에서 전문적이고 건설적인 의견을 주신 산업통상자원부 전윤종 통상정책총괄과장, 산업통상자원부 오재철 기술서기관, 경희대학교 장용준 교수와 본원의 곽성일 연구위원, 최혜린 부연구위원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보고서가 한국과 아세안 간 경제협력 활성화를 통한 양국의 상호 호혜적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정부의 대아세안 통상정책은 물론 우리 기업의 아세안 투자 및 진출전략 수립에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2017년 6월

원장 **현 정 택**

국문요약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의 경기침체 대비 상대적으로 견고한 경제성장을 보인 동아시아 경제권이 각광을 받기 시작하였다. 동아시아 내 경제협력과 경제자유화에 대한 논의는 RCEP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RCEP는 아세안 중심주의(ASEAN Centrality)를 내세우는 아세안이 주도하고 있다. 아세안은 현재 한국의 제2대 해외투자지역이자 교역대상국으로,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이다. 특히 최근 사드 배치 결정과 함께 중국의 노골적인 경제보복이 이어지면서 한국의 무역·투자 다변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아세안 시장에 대한 한국의 관심이 더욱 더 커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 아래 본 연구는 아세안의 소득군별 FDI 특징과 비즈니스 여건을 살펴본 후 그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한·아세안 경제협력을 보다 심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보고서는 총 5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2장에서는 국제경제학계에서 이론적 혹은 실증적으로 논의되어온 FDI 결정요인을 검토하였다. 3장에서는 아세안 FDI 현황과 소득군별로 구분한 아세안 국가들의 FDI 특징, 비즈니스 여건을 살펴보았다. 4장에서는 공분산구조 분석을 이용하여 아세안 FDI 유입 결정요인을 실증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대아세안 FDI 활성화를 통한 상호 호혜적 경제성장동력 창출 측면에서 우리 기업과 한국정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제2장에서는 대표적인 FDI 결정요인의 이론적 틀인 Dunning의 절충이론과 Markusen and Venables(1998)의 지식-자본모형(knowledge - capital model)의 이론적·실증적 함의 및 한계에 대해 살펴봤다. Dunning은

절충이론을 토대로 FDI를 시장추구형, 자원추구형, 효율추구형으로 분류하였고, 지식-자본모형(knowledge-capital model)에서는 FDI의 주요 결정요인을 수평적 혹은 수직적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수평적 FDI는 일반적으로 경제규모와 요소부존도가 유사한 국가간 상대국 시장 확대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FDI 유형으로 Dunning의 시장추구형 FDI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수직적 FDI는 경제 규모와 요소부존도가 상이한 국가간에서 제품 생산에 따른 제반비용을 최소화시켜 본국 또는 제3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FDI 유형으로 Dunning의 자원추구형 FDI와 성격을 같이 한다. 이와 같이 FDI의 결정요인을 이론적으로 규명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있었으나 FDI의 주요 결정요인은 연구자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어 여전히 실증분석을 뒷받침할 수 있는 포괄적인 차원의 이론적 모형은 없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선진국과 후진국 간 FDI 결정요인의 이질성을 규제 등과 같은 제도적 변수를 통해 설명하려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아세안 FDI 유입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아세안을 1인당 GDP 기준에 따라 3개의 국가군으로 구분하여 소득군별 아세안 FDI 유입 특징과 비즈니스 여건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대아세안 FDI는 수직적 FDI 유형이 우세한 것으로 판단되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과 같이 인구와 경제규모가 크고 아세안 상위소득군에 속하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점차적으로 시장추구형 FDI가 수직적 FDI의 특성과 함께 나타나기 시작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단일시장 · 단일생산기지를 이루고자 하는 아세안의 노력과 아세안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아세

안 각국의 비즈니스 여건을 검토한 결과 아세안 10개국 중 FDI가 집중되고 있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의 비즈니스 여건은 여타 국가에 비해 매우 유리한 반면, FDI 비중이 미미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의 여건은 비교적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평가항목 중 계약이행 소요일, 채권회수율, 수출 및 수입에 소요되는 시간 등의 요인과 FDI 간에 높은 상관계수가 나타났다. 특히 아세안 각국의 비즈니스 여건과 FDI 간에는 뚜렷한 양의 선형관계가 나타나 비즈니스 여건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국가에 많은 FDI가 유입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제4장에서는 공분산구조 분석모형을 활용하여 2003~14년 기간 아세안 10개국의 FDI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20개의 제도적 변수 가운데 주성분분석 결과 창업에 필요한 시간, 수출입에 걸리는 시간, 파산 후 채권회수율 등 규제변수로 구성된 제1 매개변수와 계약 이행에 걸리는 시간, 창업 절차, 교역개방도, 수출개방도 등의 규제 및 시장추구형 변수로 구성된 제2 매개변수가 역외국가의 아세안 투자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 두 요인들이 아세안 역내 국가간 FDI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지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한 결과 동 요인들은 유의미하게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역외 국가들에게는 규제뿐만 아니라 시장추구형 요인들이 아세안으로의 투자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아세안 역내국가들간에는 동 요인이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5장에서는 우리 기업의 아세안 진출전략과 우리 정부의 통상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기업의 대아세안 진출전략과 관련해서는 첫째, 일본 사

례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시각에서 아세안 생산네트워크 연계성을 강화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단기적으로는 아세안 국가별 통상정책과 제도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셋째, 현지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아세안 투자리스크 관리를 제안하였다. 한국정부의 대아세안 통상전략과 관련해서는 첫째, 적극적인 RCEP 협상 참여를 통해 역내 가치사슬 구축에 기여할 필요성을 언급하는 동시에 특히 RCEP 협상 쟁점 가운데 원산지 규정 조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둘째, 한·아세안 경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지원강화를 제안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아세안 각국과의 BIT 체결 및 개정을 제안하였다. 셋째, 아세안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한 선택과 집중 전략추진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의 강점이자 역외지역의 아세안 투자 결정요인으로 분석된 계약집행, 채권회수율, 창업 등의 지표와 관련한 대아세안 컨설팅과 대아세안 정부관료 교육지원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아세안 투자 촉진을 위한 우리 기업의 국가별, 산업별 지원시스템 강화를 제안하였다.

차 례

표 차례

그림 차례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성장을 이끌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넓은 의미의 동아시아 지역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를 포함한 16개 국가들을 의미한다. 이 동아시아 지역은 전 세계 인구의 49%가 밀집되어 있고 전 세계 교역의 29%를 차지하며 교역량은 앞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1990년 동아시아 국가들간의 역내 교역은 33%에 불과했으나 최근에는 45%까지 증가하였고, 이 국가들은 우리나라 교역량의 51%를 차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은 우리 기업들과의 생산네트워크가 매우 긴밀히 형성되어 있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매우 큰 지역이다.

세계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협상은 한 · 중 · 일 FTA,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TPP(Trans Pacific Partnership) 등이 동시에 진행 중에 있다. 이 가운데 2012년 11월 협상을 개시한 RCEP는 동아시아 16개 국가들이 모두 참여하는 협정으로서 역내 경제협력, 나아가 경제통합 촉진의 의의가 강한 측면이 있다. RCEP와 함께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의 또 다른 핵심 축에는 태평양 지역 차원의 TPP가 있다. RCEP 참여국 중 호주,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일본이 TPP 협상에 동시에 참여하고 있다. TPP는 2015년 10월에 타결된 바 있으나 2017년 현재 트럼프 행정부 집권 이후 미국이 TPP 탈퇴를 선언하면서, 동아시아 경제협력체로서 RCEP의 전략적 가치와 중요도가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RCEP 협상을 이끌어가는 아세안은 2015년 말 아세안 경제공동체(AEC: ASEAN Economic Community)를 공식 출범시키면서 단일시장, 단일 생산기지를 위한 역내 경제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RCEP 협상 또한 아세안+1 FTA를 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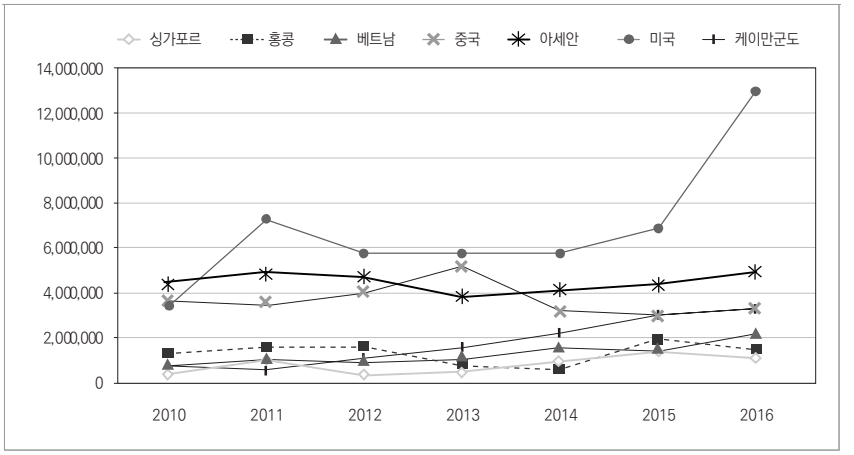
대로 진행되고 있다. 향후 동아시아 경제협력, 경제통합 논의 과정에서도 아세안 중심주의(ASEAN Centrality)를 내세우는 아세안의 역할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세안은 동아시아 경제협력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제 파트너로서도 중요도가 높은 지역이다. 아세안은 중국에 이은 우리나라 제2의 교역대상국이며, 미국에 이은 우리나라 제2의 투자대상국이다. 특히 최근 사드 문제로 중국과의 경제적 마찰이 불거지면서 우리나라 무역투자의 다변화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중국의 대안 생산기지, 대안 시장으로서 아세안과의 경제협력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와 같이 아세안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세안의 투자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진한 상황이다. 우리 정부의 대아세안 통상정책 역시 AEC의 출범 등 아세안이 형성하고 있는 새로운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림 1-1. 한국의 주요 투자대상국 및 투자 현황(투자금액 기준)

(단위: 천만 달러)



주: 주요 투자대상국 선정 기준은 2016년 상위 6개국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http://211.171.208.92/ODISAS.html?type=01(검색일: 2017. 3. 9).

2000년대 아세안의 FDI 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영향을 미친 2008~09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2011년 이후 세계 FDI의 감소 추세 속에서도 아세안으로의 FDI 유입은 증가 추세를 보인 것이 눈에 띈다. 견고한 아세안 FDI 유입 추세는 세계 FDI에서 아세안이 차지하는 비중을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 즉 2004~14년 사이 아세안이 전 세계 FDI 저량(stock 기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에서 6.8%로 증가하였으며, FDI 유량(flow) 기준으로도 2004~06년 평균 5.0%에서 2013~15년 평균 8.6%로 증가하였다.[1] 아세안 각국의 역내 FDI 비중(stock 기준)의 경우 2004~15년 동안 싱가포르가 58%의 높은 비중을 유지한 가운데 인도네시아는 4%에서 13%로 높아졌다.

아세안의 주요 투자국별 FDI 추이를 살펴보면 일본이 2013~15년 평균 아세안 전체 FDI에서 15.4%의 비중을 차지하며 제1의 투자국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싱가포르(11.6%), 미국(9.5%), 네덜란드(6.3%), 중국(5.8%) 순을 기록하였다. 2004~06년 평균과 비교하였을 때 특히 RCEP 참여국인 중국, 한국, 호주, 인도, 싱가포르에서의 FDI 유입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2]

아세안 국가별 FDI 유입 추이를 1인당 GDP 기준으로 아세안 3대 고소득국가군, 3대 중소득국가군, 3대 개도국가군으로 구분하여 5대 주요 투자국을 중심으로 비교해본 결과 고소득국가군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은 미국, EU, 싱가포르, 일본 등 선진국으로부터의 FDI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도국가군인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는 중국, 한국, 태국, 베트남 등 신흥국으로부터의 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소득군별로 아세안 FDI의 특징과 비즈니스 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이 국가들의 FDI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통

1) UNCTAD Stat, http://unctadstat.unctad.org/wds/TableViewer/downloadPrompt.aspx(검색일: 2016. 10. 26).
2) ASEAN Secretariat Stat(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6. 10. 21).

해 최근 한국의 대외경제협력에서 전략적 위상이 강화되고 있는 아세안 지역 진출에 관련하여 한국기업 및 정부 차원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가. 연구 범위

FDI는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특히 국내 재원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의 경우 외국으로부터의 투자 유치는 경제성장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요인이다.[3] 지난 수십 년 동안 FDI는 현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1980년 전 세계 FDI 규모는 540억 달러 규모였으나 2014년에는 1조 2,283억 달러를 달성했고 UNCTAD에 따르면 2015년에는 1조 7,000억 달러 그리고 2016년에는 1조 8,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으로는 2014년 기준 4,143억 8,000만 달러가 유입되어 전 세계 총 FDI 금액인 1조 2,283억 달러의 34%가 유입되고 있으며, 한국도 2002년 이후 2012년까지 동아시아지역으로 약 700억 달러를 투자하였다.[4]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세안 개별국가로의 투자 유형은 두 가지로 분류가 가능한바, 첫째, 선진국의 투자가 우세한 지역과 둘째, 신흥국의 투자가 우세한 지역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두 유형의 특징과 차이점을 살펴본 후 아세안 국가에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의 주요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상기 분석을 통해 신흥국형 투자 유형에 속하는 한국기업의 투자 촉진과 진출 원활화를 위한 통상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

3) Dupasquier and Osakwe(2003), http://citeseerx.ist.psu.edu/viewdoc/download?doi=10.1.1.486.754&rep=rep1&type=pdf(검색일:2016. 10. 26); Anyanwu(2006), http://onlinelibrary.wiley.com/doi/10.1111/j.1467-8268.2006.00132.x/epdf(검색일: 2016. 9. 30).

4) UNCTAD STA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 18).

아세안 FDI 결정요인 분석의 경우 기존 이론적 모형에서 강조하고 있는 투자 유치 결정요인을 모형 내에 고려한 후 이를 도출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 보다 자세히 서술하고 있으나 FDI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기존 연구는 대부분 Dunning(1977, 1979, 1993)의 절충이론과 Markusen and Venables (1998)의 지식-자본모형(knowledge-capital model)에 근거하고 있다. 다만 선진국 및 개도국 해외직접투자의 요인을 포괄적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모형은 여전히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2장에서 검토된 FDI 결정요인에 근거하여 경제적 이질성이 큰 아세안 개별국가의 통계자료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FDI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나. 주요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선행연구와의 중요한 차별성으로는 아세안 개별국가로 유입되는 FDI 추세에 대한 그룹 분류 및 비교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을 지적할 수 있다. 과거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한 FDI 통계가 없어서 계량분석이 매우 드물었으며 그나마도 제한적이어서 아세안 개별국가에 대한 간단한 현황 파악에 머물렀다.

기존 연구와는 차별적으로 본 연구는 첫째, 경제적 이질성이 큰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단순히 국가별 FDI 현황을 파악하는 수준을 넘어 아세안 10개국에 유입되는 FDI를 소득군별 특징과 함께 기존 FDI 이론에 근거하여 유형별로 분류한 후 주요 특징을 분석하였다. 둘째, ASEAN Secretariat 및 UNCTAD 등에서 아세안 국가로의 FDI 유입 관련 통계를 확보하여 기존의 선행연구와 차별화된 계량분석을 수행하였다. 기존 연구 중 아세안을 대상으로 FDI 결정요인을 정치하게 분석한 연구가 여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주요 원인은 실증분석에 필요한 관련 데이터의 부족에 기인한다. 본 연구도 아세안 국

가의 양자간 혹은 산업별 FDI 데이터를 구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였으나 한계에 직면하였다. 다만 이용 가능한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하되 아세안의 FDI 결정요인을 정치하게 분석할 수 있는 차선의 방법론을 택하였다.

다. 연구방법론

본 연구는 기존 FDI 연구에서 주로 사용된 연구방법론의 한계를 보완한 보다 발전된 방법론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학술적인 차별성 및 기여도가 있다. 기존 FDI 결정요인 연구에서는 주로 회귀분석을 이용한다. 충분한 데이터와 변수들에 대한 값이 주어진다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일 수 있다. 그러나 아세안 국가들의 경우 국가별로 제도 및 경제발전 상황의 차이가 심해 분석을 위한 데이터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본 연구진의 경우도 아세안 10개국의 FDI 결정요인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한계를 실감하게 되었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서도 그나마 통계적 분석이 가능한 것은 공분산구조분석을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공분산구조분석(covariance structure analysis)을 이용하여 결정요인들이 FDI에 미치는 영향과 상호관계를 분석하였다.

공분산구조분석을 위해서 우선 각각의 변수와 각 국가별 FDI 유량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상관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변수들만을 가지고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여 잠재변수(latent variable)를 구성한 후, 이 잠재변수들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5] 특히 측정모형을 통해서 잠재변수들로 구성된 이론적 모형을 검증하는 공분산구조방정식 모형은 회귀분석과 달리 복잡한 이론적 모형의 타당도를 논리(logic)가 아니라

5) 요인분석(factor analysis)과 주성분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 관련 자세한 내용은 Jolliffe(2002) 참고. 아울러 Cattell(1978), Lawley and Maxwell(1971), Lewis-Beck(1994) 또는 Rummel(1970)도 요인분석의 활용에 관하여 자세한 내용을 다루고 있음.

실제 데이터를 사용해 통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법론이다.

참고로 공분산분석은 일반선형모형에 기초한 통계적 기술로서 회귀분석과 분산분석 방법이 결합된 방법이다. 보통 공분산분석은 매개변수(latent variable)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가 불가능하거나 구조방정식에서와 같이 실측치를 근거로 해서 이론적 모형을 검증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모델이다. 즉 실제 측정변수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여 인과관계를 분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과관계를 분석할 때는 회귀분석을 가장 많이 사용하나 회귀분석만으로 경제 현상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세안 국가들의 FDI 결정요인에 있어서 그 인과관계를 볼 수 있는 이론적 모형을 설정하고 측정변수를 통해서 각 요인간의 인과관계를 설정한 모형을 검증한다. 다시 말해 공분산분석은 최근 많이 사용하는 구조방정식모형(SEM: structural equation model)으로, 데이터에서 측정된 공분산과 모형의 공분산을 계산하여 비교하는 분석 방법이다. 추정 시 그 차이가 크지 않다는 통계량이 나오면 연구모형이 적합하다고 판단한다. 이 연구모형으로 인과관계를 설명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이 방법론을 이용해서 최근 들어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6]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은 다수의 변수를 압축하여 소수의 주요 요인이 되는 변수를 추출한 후, 해당 요인들을 활용하여 분석 대상을 보다 효과적으로 탐색하는 연구 방법론이다. 주성분분석에서는 변수들의 분산을 최대한 설명하는 성분(주성분, Principal Component)을 통해 FDI 결정요인들을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즉 주성분분석은 분석 대상 변수들간의 분산을 고려하여 주성분을 도출함으로써 복

6) 관련 연구로 Jeong(2014) 등이 있다. Jeong(2014)에서는 주성분분석을 통해 20개의 FDI 결정요인을 검토하고, 이 요인들이 홍콩을 포함한 34개국에서 비즈니스 서비스(Business service) 부문에 FDI를 유치하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Jeong(2014), http://www.tandfonline.com/doi/abs/10.1080/10168737.2014.913651#tabModule(검색일:2016. 10. 26).

잡한 데이터의 차원을 축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FDI 결정요인 분석의 도구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특히 FDI의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에서는 수많은 변수들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탐색적 요인 분석을 통한 잠재변수(lantent variables)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한편 FDI 결정요인인 독립변수들간의 다중공선성(multicorrelity)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성분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여 공분산회귀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제2장

동아시아지역 FDI 결정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1. Dunning의 절충이론
2. 지식-자본모형 (knowledge-capital model)
3. 제도적 요인
4. 아세안 관련 기존 연구
5. 소결

국제경제학계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FDI)가 각국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데 대해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편이다.[7] FDI 관련 기존 연구를 종합하면, FDI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파급경로는 기술확산(technological spillover), 경쟁제고(pro-competitive effect), 무역확대, 현장 노하우의 습득을 통한 인적자본 계발(human capital), FDI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제도 개선 등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FDI의 경제적 파급효과로 인하여 FDI 결정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는 각국의 정부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이론과 국제경제학계에서도 주요 과제로 대두되어왔다.

그동안 MacDougall(1960), Kemp(1964), Kindleberger(1969), Buckley and Casson(1976), Dunning(1977, 1979, 1993), Wilhelms(1998), Markusen and Venables(1998), Helpman, Melitz, and Yeaple(2004), Yeaple(2009) 등이 해외투자 결정요인에 대한 이론적 시사점을 각각 도출한 바 있다. Mac Dougall(1960), Kemp(1964)는 투자대상국의 자본수익률, 노동비용 및 환율 리스크에 주목하는 MacDougall-Kemp 모형을 제시하였다. 즉 투자대상국의 자본수익률이 높거나, 노동비용 및 환율 리스크가 낮은 국가일수록 외국인직접투자가 활발하게 발생한다는 것이다. Buckley and Casson(1976) 등은 내부화 이론(internalization theory)을 통해 FDI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거래비용에 주목하였다. Dunning(1977, 1979, 1993)은 FDI 요인을 목적별로 구분한 절충이론(eclectic theory)에 근거하여 FDI를 시장추구형(market seeking), 자원추구형(resource seeking), 효율추구형(efficiency seeking) 등으로 구분하였다. Markusen and Venables(1998)는 시장추구형 FDI인 수평적 FDI와 생산요소추구형 FDI인 수직적 FDI를 모두 고려하는 지식-자본모형(knowledge-capital model)을 제안하였다. Helpman, Melitz, and Yeaple (2004), Yeaple(2009) 등은 이질적 기업모형에 기반을 두어 생산성이 낮은

7) 일부 연구에서는 FDI가 경제성장에 미친 효과에 대해 부정적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연구는 Mencinger(2003), Ocaya, Ruranga, and Kaberuka(2013) 등이 있다.

기업일수록 내수시장만을 담당하게 되고, 생산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내수 및 수출, 더 나아가 해외투자를 선택하게 됨을 보인 바 있다.

이처럼 FDI의 결정요인을 이론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노력이 다양하게 시도되어왔으나 실증분석을 뒷받침할 수 있는 포괄적인 차원의 이론적 모형은 여전히 없는 실정이다. 그 결과 대다수의 선행연구는 전술한 이론적 모형에 근거하되 다만 연구 목적에 부합되는 다양한 경제적, 정치적 변수 등을 함께 고려한 실증적 접근법을 이용하고 있다. FDI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규명한 기존 연구를 검토하면 대부분의 연구가 Dunning의 절충이론과 Markusen and Venables(1998)의 지식-자본모형(knowledge-capital model)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1. Dunning의 절충이론

Dunning(1977, 1979, 1993)은 내부화 이론(internalization theory)과 무역이론을 결합하여 FDI 요인을 목적별로 구분한 절충이론(eclectic theory)을 제시하였다. 그는 다국적기업이 가지고 있는 소유(ownership), 내부화(internalization), 지역 고유(location-specific) 요인에 주목하고 이들 우위에 근거하여 다국적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요인을 설명하고 있다.

이에 기반을 두어 Dunning은 FDI의 목적에 따라 시장추구형(market seeking), 자원추구형(resource seeking), 효율추구형(efficiency seeking) 등으로 구분하였다.[8] 시장추구형은 다국적 기업이 특정국 또는 그 주변국에 생산품을 공급하기 위한 직접투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 경우 투자대상국 및 주변국의 시장 규모나 성장률이 주요 투자 결정요인이 된다. 자원추구형은 상대

8) 이 외에 전략적 자산추구형 직접투자가 있는데 이는 기업 자산의 추가적인 확보를 통해 여타 기업에 비해 비교우위를 강화하기 위한 투자를 말한다.

적으로 저렴한 특정국의 풍부한 자원을 구입하거나 활용할 목적으로 추진되는 투자를 말한다. 따라서 투자 시 상대국의 부존자원이나 상대적 임금 수준 등이 주요 고려요인이 된다. 효율성 추구형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되는 투자로 이 경우 해외투자는 규모의 경제나 범위의 경제로 경제적 이익이 담보되는 곳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결국 Dunning의 이론에 근거를 둔 선행연구들은 FDI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시장추구형의 경우 상대국의 시장 규모, 경제성장률, 개방도를, 자원추구형에 있어서는 인프라 수준, 요소부존도(인적자본), 비숙련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효율성 추구형의 경우 경제 규모,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영(환율변동성, 인플레이션 등) 등을 제시했다.

우선 시장추구형으로 분류되는 상대국의 시장 규모의 경우 상대국의 GDP 규모 혹은 1인당 소득 수준을 대용변수(proxy variable)로 많이 사용한다. Nicoletti *et al.*(2003), Asiedu(2006), Wadhwa and Reddy(2011)는 상대국의 GDP 변수를 시장 규모로 간주한 후 FDI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이들 변수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장 규모의 대용변수로 1인당 소득 수준을 이용한 Suleiman, Kaliappan, and Ismail(2015)의 실증분석에서도 FDI와 시장 규모는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경제성장률이 FDI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연구자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Iamsiraroj and Doucouliagos(2015)는 메타 회귀분석(meta-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경제성장률과 FDI 간에 강건한(robust)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인 반면, Jensen(2003)과 Buchanan, Le, and Rishi(2012)의 실증분석에서는 경제성장률이 FDI에 음의 영향을 미쳤다.

Asiedu(2002), Moosa and Cardak(2006), Busse and Hefeket(2007), Liargovas and Skandalis(2012)는 GDP 대비 무역 비중을 개방도의 대용변수로 하여 FDI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무역개방도와 FDI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추구형 FDI의 주요 요인으로 거론되는 인프라 변수의 경우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변수가 대용변수로 활용되어왔다. Asiedu(2006), Cleeve(2008), Mohamed and Sidiropoulos(2010), Suleiman, Kaliappan, and Ismail (2015)은인구 천명당 전화회선 수, Wadhwa and Reddy(2011)는 포장도로, 인터넷 사용자 수, Vijayakumar, Sridharan, and Rao(2010)는 1인당 전기소비 지수(indexing for electricity consumption) 등을 각각 사용하여 FDI와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 중에서 Cleeve(2008)와 Mohamed and Sidiropoulos(2010)의 경우 인프라와 FDI 간에 통계적 의미가 없는 것으로 추정된 반면, 여타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9)]

인적자본(human capital)의 경우 중등학교 등록률(secondary school enrollment ratio)을 대용변수로 많이 이용하고 있다. Noorbakhsh, Paloni, and Youssef(1999), Cleeve(2008), Mengistu(2009) 등은 인적자본이 FDI 유입에 양의 파급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비숙련 노동자의 임금 수준은 FDI와의 상관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때 시간당 노동비용 혹은 UNIDO에서 제공하는 임금 데이터를 대용변수로 사용한다. Demirhan and Masca(2008), Bellak, Leibrecht, and Stehrer (2008)는 시간당 노동비용과 FDI 간에 음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주장한 반면, Noorbakhsh, Paloni, and Youssef(1999)는 UNIDO에서 제공하는 임금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임금 수준이 FDI에 양의 영향을 미쳤다고 했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효율성 추구형 FDI의 주요 요인인 규모의 경제와 관련해서는 Charkrabarti (2001), Hara and Razafimahefa(2005), Mengistu(2009) 등이 상대국의 GDP를 대용변수로 활용하여 양 변수간의 관계를 추정한 바 있다. 그들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규모의 경제의 대용변수인 경제 규모는 FDI에 양의 효과를 미

9) Wadhwa and Reddy(2011)가 이용한 인프라 변수 중 포장도로의 경우 통계적 의미를 찾지 못하였다.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시경제 안정화의 경우 기존 연구는 물가 혹은 환율 등을 대용변수로 활용하고 있다. Demirhan and Masca(2008)와 Nicoletti *et al.*(2003)은 각각 FDI 유치국의 물가(CPI 증가율) 및 환율변동성과 FDI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였다. 반면 Hosein and Maryam(2012)와 Mika'ilu and Fu'ad(2013)는 이란과 나이지리아를 대상으로 환율 혹은 물가와 FDI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표 2-1. Dunning의 FDI 목적별 결정요인 변수 및 기존 연구 결과

유형	결정요인	기존 연구	결과
시장 추구형	소득 수준 (1인당 GDP 또는 GDP)	Nicoletti *et al.*(2003), Asiedu(2006), Wadhwa and Reddy(2011) 등	+
	경제성장률	Jensen(2003), Buchanan, Le, and Rishi(2012), Iamsiraroj and Doucouliagos(2015) 등	△(+)
	개방도 (GDP 대비 무역비중)	Asiedu(2002), Moosa and Cardak(2006), Busse and Hefeket(2007), Liargovas and Skandalis(2012	+
자원 추구형	인프라 (포장도로, 인터넷 사용자 수, 전화회선 수 등)	Cleeve(2008), Mohamed and Sidiropoulos(2010), Wadhwa and Reddy(2011), Suleiman *et al.*(2015) 등	△(+)
	요소부존도 (중등학교 등록률)	Noorbakhsh, Paloni, and Youssef(1999), Cleeve(2008), Mengistu(2009)	+
	임금 수준 (노동비용)	Noorbakhsh, Paloni, and Youssef(1999), Demirhan and Masca(2008), Bellak, Leibrecht, and Stehrer(2008)	△(-)
효율성 추구형	규모의 경제 (GDP 규모)	Charkrabarti(2001), Hara and Razafimahefa(2005), Mengistu(2009)	+
	거시경제 안정 (환율, 물가)	Demirhan and Masca(2008), Hosein and Maryam(2012), Mika'ilu and Fu'ad(2013)	△(-)

주: △는 기존 연구에서 상이한 분석 결과가 도출된 것을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2. 지식-자본모형(knowledge-capital model)

Markusen *et al.*(1996)과 Markusen and Venables(1998)에 의해 제시된 지식-자본(knowledge-capital) 모형에서는 h, f 한 쌍의 국가와 X와 Y로 제시된 동질적인 재화(homogeneous goods)들을 가정한다. 또한 노동력을 구분하여 숙련노동자(S, skilled labor)와 비숙련노동자(L, unskilled labor)를 가정하는 한편, 이들 숙련 및 비숙련 노동자는 국가 내 이동은 자유롭지만 국가간 이동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본다. CES 생산함수를 가정한 h국 및 f국의 특정 재화 즉, Y재의 생산함수는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Y_i = (aL_{iy}^{\rho} + (1-a)S_{iy}^{\rho})^{1/\rho} \quad i = h, f \qquad \text{[식 2-1]}$$

위의 식에서 $L_{iy}(S_{iy})$는 i국이 Y재를 생산하기 위해 투입한 비숙련(숙련) 노동을 의미하고, $\rho = \frac{\sigma - 1}{\sigma}$이다.

Markusen *et al.*(1996)과 Markusen and Venables(1998)에 의해 제시된 지식-자본(knowledge-capital) 모형에서는 FDI를 수평적 및 수직적 요인으로 구분한다. 수평적 FDI는 일반적으로 경제 규모와 요소부존도가 유사한 국가간 상대국 시장 확대를 위해 추진되며, 이 경우 다국적 기업은 현지 투자에 따른 무역비용을 회피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수평적 FDI에서는 투자 대상국의 시장 규모와 관세 및 운송비 등과 같은 무역비용이 주요 결정요인이 된다.

반면 수직적 FDI는 경제 규모와 요소부존도가 상이한 국가간에 제품 생산에 따른 제반비용을 최소화시켜 본국 또는 제3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그 결과 수직적 FDI에서는 투자 대상국의 임금 및 기술 수준이 주요 결정요인이 된다. 다만 투자 대상국의 무역비용이 높을 경우 본국 또는 제3국으로 수출하는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상대국의 무역비용도 주요 고려요인이 된다.

이처럼 지식-자본 모형은 투자국과 투자 상대국 간 경제 규모와 요소부존도의 유사성 및 이질성이 주요 변수로 고려되기 때문에 이들 변수를 실증분석 모형에서 모두 고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수평적 FDI일 경우 양국의 경제 규모는 양의 관계를, 시장 규모의 유사성은 음의 관계를 보이고, 수직적 FDI에서는 양국간 요소부존도를 나타내는 변수가 양의 부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무역비용의 경우 수평적 FDI인지 수직적 FDI인지에 따라 각각 양 및 음의 부호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 연구에서는 중력모형에 지식-자본모형에서 도출된 변수를 포함시켜 FDI의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Carr, Markusen and Maskus (2001)는 미국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자본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투자국과 투자대상국 간 시장 규모, 경제 규모의 유사성, 요소부존도의 유사성, 투자비용, 무역비용 등을 주요 설명변수로 포함시켰다. 시장 규모의 경우 양국의 GDP 합계, 경제 규모의 유사성은 양국 경제 규모의 격차를 제곱한 변수, 요소부존도의 유사성은 각국 숙련노동자의 비중간 격차에 제곱하여 측정하였다. 투자비용과 무역비용은 World Economic Forum의 World Competitiveness Report에 있는 투자 장애 요인(perceived impediments to investment) 지수와 보호주의(national protectionism) 지수를 이용하였다. Tanaka(2011)는 미국 및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Carr, Markusen and Maskus(2001)의 추정모형에 근거하여 수평적 및 수직적 FDI 중 어떤 동기가 우세한지를 분석하였다.

한편 강한균(2010)과 김연청, 장용준(2015) 등은 각각 한국 및 중국의 FDI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지식-자본모형에 기반을 둔 Carr, Markusen and Maskus(2001)의 추정모형을 이용하였다. 강한균(2010)의 추정 결과에 따르면, 한국에 유입되는 외국인직접투자는 수평적 직접투자뿐만 아니라 수직적 직접투자의 특성이 함께 있으며, 요소부존도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작아 수평적 직접투자가 우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김연청, 장용준(2015)은 OECD 국가들의 대중국 FDI를 분석한 결과 전체 FDI에서 수평적 FDI의 특성이 강한 것으

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별로 제공되고 있는 FDI 통계가 수직적 혹은 수평적 형태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최근 FDI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연구에서는 외국인 직접투자의 수평적 및 수직적 요인을 추정모형 내에 함께 고려하는 지식-자본 모형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3. 제도적 요인

제도이론(Wilhelms 1998)에서는 정치적 안정성이 FDI 유치에 있어서 핵심요소이며 따라서 네가지 제도(government, markets, education and sociocultural)의 안정성이 FDI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emirhan and Masca(2008)가 World Bank에서 발표하는 국가별 정치 안정성 지수를 이용하여 FDI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상관관계는 음의 부호를 가지나 통계적 의미는 없었다.

한편 최근에는 투자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시장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규제와 FDI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Aizenman and Spiegel(2006), Quere, Coupet, and Mayer(2007), Zhang(2012) 등은 부패, 지식재산권, 비즈니스 규제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규제변수가 FDI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Aizenman and Spiegel (2006)은 지식재산권의 대용변수로 Mauro(1995)의 연구에서 사용된 Business International의 제도적 효율성 지수를 사용하였다. Quere, Coupet, and Mayer(2007)는 프랑스 정부가 52개 국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구축한 Institutional Profiles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각국의 규제 수준을 변수화 하였다. Zhang(2012)은 규제변수로 World Bank의 Doing Business에

서 제공하는 국가별 지수를 이용하였다. 이들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각국의 규제변수는 FDI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Zhang(2012)은 선진국과 후진국의 FDI 결정요인이 상이한 주요 요인을 규제비용에서 찾는다. 그는 FDI에 미치는 규제비용의 효과를 직접적 요인과 간접적 요인으로 구분하면서 특히 조세정책을 통한 간접적 효과에 주목한다. 즉 규제비용 감소는 기업의 진입비용을 감소시켜 FDI 유입을 촉진시키는 한편, 규제비용이 낮을수록 FDI 유치를 목적으로 제정된 조세정책의 유효성이 제고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4. 아세안 관련 기존 연구

기존 연구 중 아세안 FDI의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실정이다.

Ismail(2009)는 1995~2003년을 대상으로 캄보디아를 제외한 아세안 국가의 FDI 결정요인을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Ismail(2009)은 기본 중력변수인 경제 규모 및 거리 이외에도 인플레이션, 환율, 인프라, 정부의 재정건전성, 투명성 등을 주요 설명변수로 포함시켰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아세안의 FDI는 경제 규모에 비례하나 거리에 반비례한다는 중력모형의 기본가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인플레이션율이 낮을수록, 환율이 저평가될수록, 정부의 재정건전성, 투명성 및 인프라 여건이 좋을수록 FDI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Masron and Abdullah(2010)는 1996~2008년 기간 중 아세안 FDI에 각국의 제도적 여건이 미친 효과를 분석한 바 있다. 이들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아세안의 제도적 여건은 FDI 유입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Hoang and Bui(2015)는 Dunning의 모형에 기반을 두고 UNCTAD에서 제공하는 아세안 6개국(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에 유입된 총 FDI 데이터를 이용하여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기간은 1991~2009년이며, 내생성 문제를 완화하고자 전기 시차변수를 설명변수로 선택하였다. 설명변수로는 FDI 유치국의 경제 규모, 무역개방도, 노동비용, 인적자본(human capital), 노동생산성, 정치적 안정성, 인플레이션, 이자율, 금융발전, 환율, 인프라 여건을 포함시켰다. 다만 인적자본, 무역개방도, 생산성, 노동비용 등의 변수간에는 다중공선성이 의심되므로 기본 설명변수(경제 규모, 환율, 이자율 등)에 각각 포함시켜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에 따르면, 인플레이션과 금융발전 변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변수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FDI는 경제 규모, 인프라 여건, 무역개방도, 생산성, 환율 등의 변수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이자율 등의 변수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Sofilda, Amalia, and Hamzah(2015)도 아세안 6개국을 대상으로 FDI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주요 설명변수로는 Dunning 등의 기존 연구를 참고하여 경제 규모, 이자율, 환율, 글로벌 경쟁력지수(GCI), 무역 개방도를 포함시켰다. 이들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FDI는 경제 규모, 글로벌 경쟁력지수 및 무역개방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5. 소결

제2장에서는 FDI 결정요인의 실증분석 시 이론적 근거가 되는 Dunning의 절충이론과 Markusen and Venables(1998)의 지식-자본모형(knowledge-

capital model)의 이론적 · 실증적 함의를 살펴봤다. 이와 함께 최근 관련 연구에서 주목받고 있는 규제 등의 제도적 요인과 아세안을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의 주요 결과를 정리하였다. 정책 공급자의 입장에서 볼 때 FDI의 결정요인은 외국자본을 국내에 유치하는 데 있어 유용한 정책수단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실증적 규명은 중요하다. 그러나 본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FDI 결정요인에 대한 포괄적인 차원의 이론적 모형이 정립되지 않아 연구자에 따라 상이한 분석 결과가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Dunning의 절충이론이 주는 함의는 FDI가 특정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기보다는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 결정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Dunning의 이론에 근거하여 FDI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할 경우 이들 요인을 모두 추정모형 내에 통제하기에는 기술적 한계가 있다. 이는 Dunning의 이론적 모형에서 도출되는 각 요인의 변수들이 실증모형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변수간 상호독립적이어야 하는데 상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10] 한편 Dunning의 FDI 결정요인의 경우 단독 또는 합작에 의한 신규 법인을 설립하는 그린필드(greenfield)형 직접투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결과 M&A 방식에 의한 투자진출, 기술습득 및 지식습득을 위한 개도국 기업의 선진국 대상 투자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지식-자본 모형의 경우 FDI의 주요 결정요인을 수직적 혹은 수평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다. 따라서 이 모형은 선진국 다국적 기업의 투자요인을 파악하는 데는 장점이 있으나 중소기업의 다양한 투자요인을 규명하는 데는 한계도 가지고 있다. 선진국 다국적 기업은 이윤극대화를 위해 요소부존도 격차, 규모의 경제 등을 활용하려고 하는 반면, 중소기업의 투자요인은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효율적 참여 등 이보다 더 다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본 연구와 연계해서 볼 때 아세안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가 국가별 FDI 데이터를 제공하

10) 이는 제4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FDI 결정요인 분석방법론으로 공분산구조분석을 채택한 주요 배경 중의 하나이다.

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식-자본 모형을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지식-자본모형의 경우 투자공여국과 수여국 간 경제적 특성 차이에 근거하여 FDI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따라서 지식-자본 모형에 근거하여 FDI 결정요인을 분석할 경우 양국간 FDI 데이터가 반드시 필요하다.

결국 아세안과 같이 경제적 이질성이 큰 국가의 경우 선진국 및 개도국의 해외직접투자가 함께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특정 이론에 기반을 두어 분석모형을 구축하기보다 다양한 요인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최근 연구는 Zhang(2012)의 연구로 그는 선진국과 후진국 간에 FDI 결정요인이 상이한 주요 요인을 규제비용에서 찾는다. Zhang(2012)의 연구 결과를 고려할 경우 경제적 발전단계가 상이한 아세안의 FDI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데는 규제 등과 같은 제도적 요인을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3장

ASEAN 국가의 FDI 유입 현황 및 비즈니스 여건 분석

1. 아세안 국가의 FDI 현황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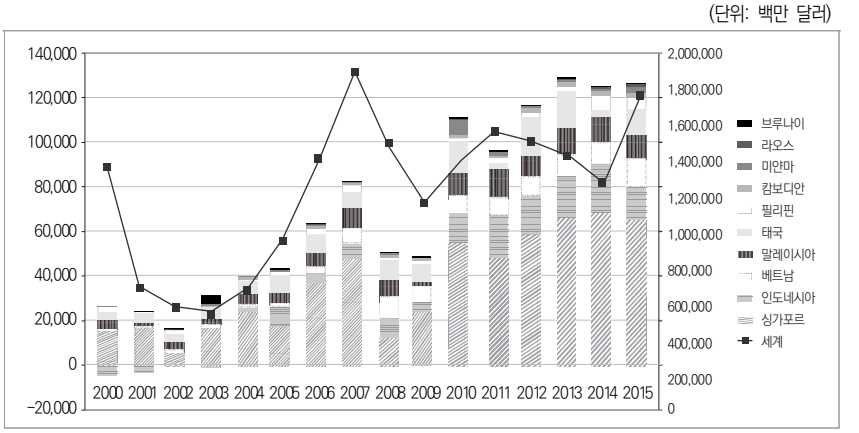
가. 아세안 FDI 유입 현황

2000년대 아세안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실적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자아낸 세계경제 불안정성 증대 등의 요인으로 세계 FDI가 급감한 2008~09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2011년 이후 세계 외국인직접투자는 감소 추세를 보인 반면 아세안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실적은 꾸준한 증가 추세를 시현하였다(그림 3-1 참고).

아세안의 견고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실적은 [표 3-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세계 FDI에서 아세안이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2004년에서 2014년 사이 아세안이 세계 외국인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저량(stock) 기준 3.5%에서 6.8%로 증가하였으며, 유량(flow) 기준으로는 2004~06년 평균 5.0%에서 2013~15년 8.6%로 증가하였다.

그림 3-1. 아세안 외국인투자액 현황(UNCTAD)

(단위: 백만 달러)



자료: UNCTAD STAT(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1. 18).

표 3-1. 아세안 외국인투자액 현황(UNCTAD)

(단위: %)

	유량(Flow) 기준				저량(Stock) 기준	
	GDP 비중		세계 비중		세계 비중	
	2004~06	2013~15	2004~06	2013~15	2004	2014
브루나이	2.8	2.9	0.0	0.0	0.0	0.0
캄보디아	5.1	10.6	0.0	0.1	0.0	0.1
인도네시아	1.6	2.1	0.5	1.3	0.1	0.9
라오스	2.3	6.6	0.0	0.1	0.0	0.0
말레이시아	3.4	3.7	0.5	0.8	0.4	0.5
미얀마	4.4	2.3	0.1	0.1	0.1	0.1
필리핀	1.6	1.7	0.2	0.3	0.1	0.2
싱가포르	20.2	22.3	2.7	4.6	2.0	3.9
태국	3.8	2.5	0.8	0.7	0.5	0.7
베트남	3.4	5.4	0.2	0.7	0.2	0.4
아세안	4.9	5.1	5.0	8.6	3.5	6.8
세계	2.2	2.1	100.0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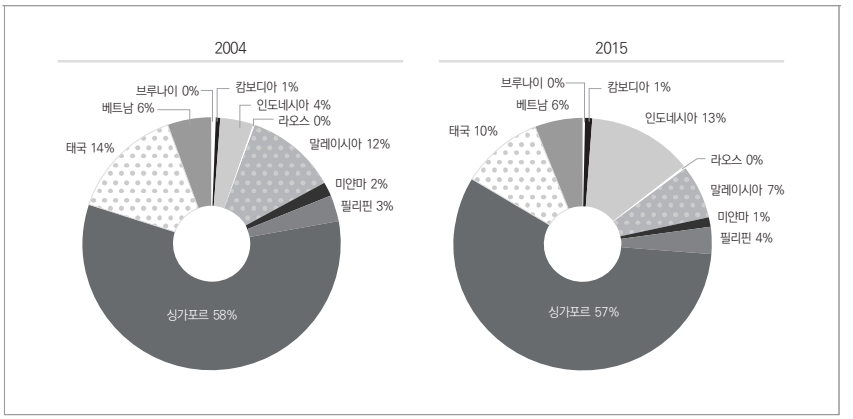
주: 유량 기준의 경우 3년 단순평균으로 계산.
자료: UNCTAD STAT(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1. 18).

아세안의 GDP 대비 외국인직접투자액 비중(유량 기준)은 2013~15년 기준 세계평균 2.1%보다 높은 5.1%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4~06년의 GDP의 4.9% 보다 높아진 비중으로 FDI가 아세안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 것을 의미한다. 아세안 국가별로 살펴보면 캄보디아, 라오스, 싱가포르, 베트남 순으로 2013~15년 GDP에서 FDI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4~06년 평균 대비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3~15년 FDI의 GDP 비중이 아세안 평균인 5.1%보다 큰 아세안 국가에는 싱가포르,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이 있다.

[그림 3-2]는 2004년 및 2015년을 대상으로 아세안 국가가 아세안 외국인투자 유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본 것이다. 이에 따르면, 아세안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의 절반 이상은 싱가포르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말 기준 싱가포르는 아세안 외국인직접투자 중에서 57.4%의 비중을 차지했

그림 3-2. 아세안으로의 FDI 유입 비중 변화(Stock 기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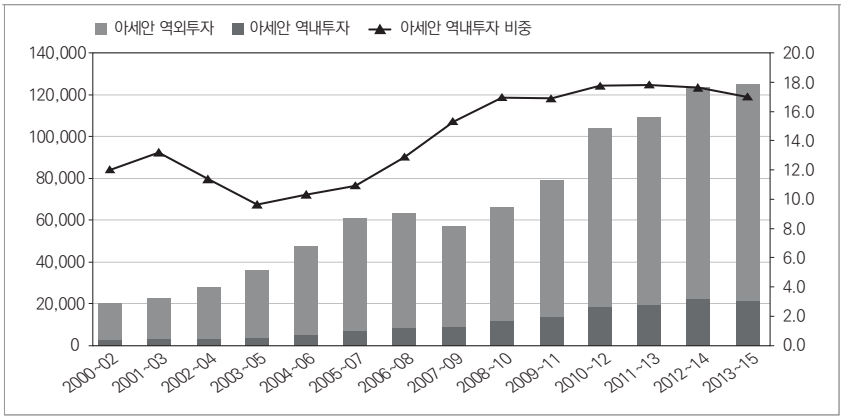
자료: UNCTAD STAT(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1. 18).

다. 2절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질 아세안의 비즈니스 여건 분석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싱가포르는 아세안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비즈니스 환경을 갖춘 국가로 꼽히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에는 세계 다국적 기업의 지역총괄본부(regional head quarters) 설립 및 금융·서비스와 관련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싱가포르 다음으로는 인도네시아(13.2%), 태국(10.3%), 말레이시아(6.9%), 베트남(6.0%) 순으로 세계의 대아세안 투자가 집중되어 있다. 2004년 말 아세안 국가별 FDI 유입 비중과 비교하였을 때 말레이시아와 태국의 비중이 4~5% 줄어든 반면 인도네시아의 아세안 내 투자 유입 비중이 9% 가까이 커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2000년대 아세안 외국인직접투자 추이의 주요 특징 중 하나로 아세안 역내투자의 활성화를 들 수 있다. 2000년대 들어서 아세안 역내투자가 아세안 전체 외국인직접투자에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3 참고). 아세안 역내 FDI가 아세안 전체 FDI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4~06년 평균 10.1%에서 2013~15년 17.0%로 확대되었다.

그림 3-3. 아세안 역내투자 비중 추이(Flow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자료: ASEAN Secretariat Stat(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6. 10.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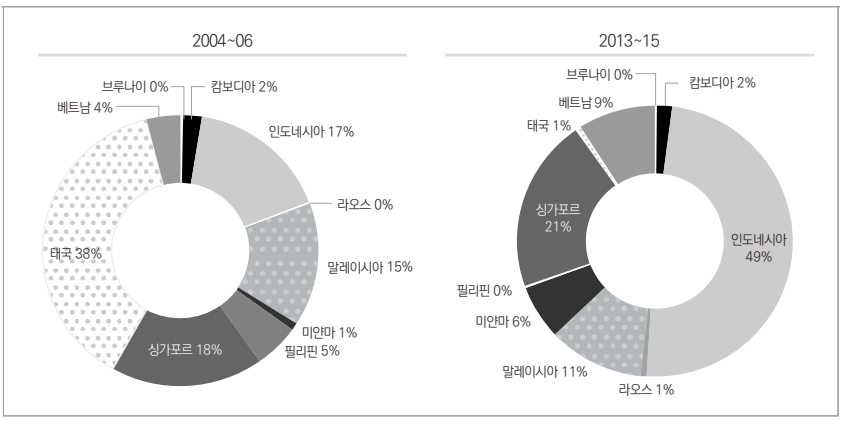
아세안 역내투자 대상으로는 인도네시아가 가장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15년 중 아세안 투자 합계를 기준으로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역내투자에서 36.8%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싱가포르(25.3%), 말레이시아(12.5%), 태국(10.3%)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의 아세안 역내투자 비중은 각각 1.9%, 0.6%, 2.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4]는 2004~06년과 2013~15년 평균 아세안 역내 FDI 중 아세안 국별 비중을 비교한 것이다. 2013~15년 기준 아세안 역내투자 중 49.0%가 인도네시아로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싱가포르(20.6%), 말레이시아(11.2%) 순이었다. 2004~06년 아세안 국가별 역내투자 비중자료와 비교하였을 때 인도네시아의 비중은 16.7%에서 49.0%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인도네시아 전체 FDI 가운데 싱가포르의 비중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15년 평균 53.5%의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3-4 참고). 미얀마와 베트남의 역내 아세안 FDI 투자 비중 또한 2004~06년 평균 0.8%, 3.9%에서 6.4%, 9.0%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

면 아세안 역내 FDI에서 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4~06년 평균 37.9%에서 점차 감소하여 2013~15년 평균 0.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13~15년 아세안 역내 FDI에서 비중이 낮은 국가는 필리핀(0.3%), 브루나이(0.3%), 태국(0.7%), 라오스(0.7%), 캄보디아(1.7%)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4. 아세안 역내투자 중 아세안 국별 비중 변화(Flow 기준)

(단위: %)



자료: ASEAN Secretariat Stat(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6. 10. 21).

나. 주요 국가별 FDI 유형 분석(선진국 FDI/신흥국 FDI)

아세안 사무국에서는 EU와 아세안을 포함한 아세안 12개 주요 투자국의 대아세안 외국인투자(FDI)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11] 2015년 기준 아세안 10대 투자국으로 아세안, 일본, 미국, 중국, 네덜란드, 영국, 한국, 호주, 덴마크, 뉴질랜드가 선정되었으며, 이 10대 투자국들은 아세안 전체 FDI에서 76%의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12]

2013~15년 평균 아세안의 주요 투자국별 FDI 실적을 확인한 결과 일본이

11) 12개 주요 투자국 외에 홍콩, 대만 또한 주요 아세안 투자국으로 나타났다(UNCTAD 2015, p. 4).
12) ASEAN · UNCTAD(2015), p. 3.

15.4%로 아세안 FDI 유입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싱가포르(11.6%), 미국(9.5%), 네덜란드(6.3%), 중국(5.8%) 순이었다(표 3-2 참고). 아세안 역내 투자국으로는 싱가포르(11.6%) 다음으로 말레

표 3-2. 아세안 FDI에서 주요 투자국별 금액 및 비중 변화(Flow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투자금액		전체 비중(아세안 비중)	
	2004~06	2013~15	2004~06	2013~15
아세안 역내국	4,886	21,310	10.4(100.0)	17.0(100.0)
싱가포르	3,285	14,484	7.0(67.2)	11.6(68.0)
말레이시아	878	2,433	1.9(18.0)	1.9(11.4)
인도네시아	296	1,860	0.6(6.1)	1.5(8.7)
태국	204	1,480	0.4(4.2)	1.2(6.9)
필리핀	197	613	0.4(4.0)	0.5(2.9)
베트남	4	382	0.0(0.1)	0.3(1.8)
미얀마	15	82	0.0(0.3)	0.1(0.4)
캄보디아	1	22	0.0(0.0)	0.0(0.1)
라오스	3	2	0.0(0.1)	0.0(0.0)
브루나이	1	-62	0.0(0.0)	-0.1(-0.3)
EU(28)	12,054	23,210	25.6	18.5
네덜란드	4,496	7,864	9.5	6.3
영국	4,408	6,614	9.3	5.3
룩셈부르크	104	3,850	0.2	3.1
프랑스	736	1,563	1.6	1.2
일본	7,745	19,338	16.4	15.4
미국	4,336	11,851	9.2	9.5
중국	1,084	7,224	2.3	5.8
한국	904	5,255	1.9	4.2
호주	501	4,705	1.1	3.8
인도	123	1,430	0.3	1.1
캐나다	327	1,131	0.7	0.9

주: 3년 단순평균 계산. 괄호 안은 아세안 역내 FDI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 음영처리는 World Bank의 1인당 GNI 기준으로 한 고소득국가를 의미. 다만 한국은 아세안 사무국에서 분류한 바와 같이 동아시아 신흥국으로 구분하고자 함.
자료: ASEAN Secretariat Stat(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6. 10. 21).

이시아가 전체 아세안 FDI 유입 중 1.9%(아세안 역내 FDI 중에서는 11.4%)의 비중을 기록하였으며, 인도네시아가 1.5%(아세안 역내 FDI의 8.7%)로 그 뒤를 이었다.

2004~06년과 2013~15년의 3년 평균 FDI 투자실적을 비교하였을 때, EU, 일본의 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반면 아세안 역내투자 및 중국, 한국 등 동아시아 신흥국들과 RCEP 협상에 참여하는 호주로부터의 아세안 투자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3]~[표 3-5]는 아세안 국가들을 1인당 GDP를 기준으로 4개의 국가군으로 구분하고 각 국가들의 2004~06년, 2013~15년, 2000~15년 기간 내 상위 5대 투자국을 살펴본 것이다. 국가군은 고소득 및 중소득 이상의 국가군(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중소득 국가군(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저소득 국가군(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한편 고소득 국가로 분류되는 브루나이는 다른 아세안 국가들과 비교하였을 때 국가규모와 석유산업에 치중한 특수한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별도로 살펴보았다.

중소득 이상 아세안 국가군의 상위 3대 투자국을 살펴보면 일본, EU, 미국, 싱가포르 등 선진국으로부터의 투자가 두드러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저소득 국가군에 속하는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는 중국이 최대투자국으로 부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으로 이루어진 중소득 국가군의 투자국에는 싱가포르, 일본, 미국, EU 등 선진국뿐 아니라 중국, 한국 등 신흥국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싱가포르에는 네덜란드, 영국, 룩셈부르크를 중심으로 한 EU(30.0%)로부터의 투자가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국 기준으로 2013~15년 평균 기준 미국이 14.0%의 비중으로 최대 투자국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네덜란드(10.5%), 영국(7.6%), 중국(6.4%), 호주(6.3%), 일본(6.1%) 순이었다. 아세안 역내투자는 6.7%의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인도네시아(2.6%)와 말레이시아(2.5%) 등 아세안 중견국으로부터의 투자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말레이시아는 분석 기간 모두 일본이 최대 투자국으로 나타났다. 2013~15년 평균 기준 일본(16.9%) 다음으로는 역내투자국인 싱가포르(16.9%)와 선진국인 네덜란드(13.3%)가 그 뒤를 이었다. 일본은 소니(Sony)를 비롯한 미쓰비시, 혼다, 다이하츠(Daihatsu), 닛산, 미쓰이(Mitsui Marubeni), 파나소닉, 도시바 등 주요 일본 전자제조업체들이 말레이시아에 생산공장 투자를 단행하였으며, 그 밖에 할랄식품, 서비스산업, 발전소 건설 등 분야의 투자도 두드러졌다.[13] 말레이시아의 주요 교역파트너 중 하나인 싱가포르 또한 인접한 말레이시아 Iskandar 지역 개발을 중심으로 인프라 투자가 두드러진 것으로 보인다.

표 3-3. 싱가포르 · 말레이시아 · 태국의 5대 투자국별 FDI 유입 비중(Flow 기준)

(단위: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2004~06	2013~15	2000~15	2004~06	2013~15	2000~15	2004~06	2013~15	2000~15
1	영국 (13.6)	미국 (14.0)	미국 (14.2)	일본 (28.1)	일본 (16.9)	일본 (17.6)	일본 (34.4)	일본 (66.6)	일본 (39.7)
2	일본 (10.2)	네덜란드 (10.5)	네덜란드 (11.0)	미국 (23.3)	싱가포르 (16.9)	싱가포르 (16.3)	싱가포르 (20.6)	미국 (8.5)	싱가포르 (12.1)
3	네덜란드 (9.8)	영국 (7.6)	영국 (6.7)	싱가포르 (14.0)	네덜란드 (13.3)	미국 (11.5)	미국 (6.1)	한국 (5.5)	미국 (9.2)
4	미국 (6.1)	중국 (6.4)	중국 (5.2)	영국 (4.8)	미국 (3.3)	네덜란드 (10.3)	영국 (5.0)	중국 (4.2)	캐나다 (4.1)
5	중국 (2.5)	호주 (6.3)	일본 (4.6)	독일 (3.5)	영국 (2.2)	독일 (3.2)	독일 (4.4)	호주 (3.8)	영국 (3.2)
	EU (28.7)	EU (30.0)	EU (27.4)	EU (21.4)	EU (18.9)	EU (22.2)	EU (7.6)	EU (13.3)	EU (10.7)
	아세안 (3.5)	아세안 (6.7)	아세안 (7.8)	아세안 (14.7)	아세안 (20.9)	아세안 (19.9)	아세안 (48.1)	아세안 (4.5)	아세안 (14.4)
-	한국 (0.9)	한국 (1.4)	한국 (0.8)		한국 (-0.8)	한국 (1.4)	한국 (0.7)		한국 (2.1)

주: 3년 단순평균 계산. 괄호 안은 아세안 역내 FDI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 음영처리는 World Bank의 1인당 GNI 기준으로 한 고소득국가를 의미. 다만 한국은 아세안 사무국에서 분류한 바와 같이 동아시아 신흥국으로 구분하고자 함.
자료: ASEAN Secretariat Stat(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6. 10. 21).

13) MIDA 홈페이지, http://www.mida.gov.my/home/2062/news/jactim-more-japanese-companies-investing-in-malaysia-/(검색일: 2016. 12. 3).

태국 또한 일본이 최대투자국으로 나타났다. 태국의 외국인투자 유입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이래로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며, 2013~15년 기간 동안에는 전체 태국 FDI 중에서 66.6%의 비중을 기록하였다. 태국에는 4,500개 이상의 일본기업이 진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4] 일본 다음으로는 선진국인 미국(8.5%)이 제2대 투자국인 것으로 기록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동북아 신흥국인 한국(5.5%)과 중국(4.2%)이 주요 5대 투자국으로 기록되었다. 동북아 신흥국의 투자 비중이 확대되었으나, 2000~15년 FDI 합계 기준으로는 5대 투자국 모두 선진국들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세안 역내 투자 비중은 2004~06년 평균 48.1%에서 2013~15년 4.5%로 크게 줄어들었는데 이는 태국의 주요 투자자인 싱가포르의 투자가 2012~14년의 기간 동안 투자 유출이 유입보다 컸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는 분석 기간 동안 투자 비중이 12.5%에서 53.5%로 확대된 싱가포르가 2013~15년 기준 최대 투자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3~15년 기준 싱가포르 다음으로 선진국인 일본(27.7%)이 인도네시아에서 2대 투자국을 기록하였으며, 3~4대 투자국은 동아시아 신흥국인 한국(3.9%)과 중국(3.5%)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4~06년 평균 FDI 기록과 비교하였을 때 미국으로부터의 투자는 감소한 한편 중국으로부터의 투자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2014년 이후 싱가포르에 이어 제2대 인도네시아 투자국으로 부상하였는데, 특히 인프라 투자의 확대가 눈에 띈다.[15] 일례로 중국은 2015년 최근 중국투자 사상 최대 규모로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와 카리만탄 지역 용광로 및 발전시설 건설투자를 단행한 바 있다.[16] 한편 2004~06년 평균 33.6%의 높은 비중을 차지한 바 있는 EU로부터의 투자는 2008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시

14) "Kishida reaffirms economic focus on Thailand"(2016. 5. 2, 검색일: 2017. 2. 2).
15) "Why Indoensia is Chasing China's Billions"(2016. 10. 31),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6-10-31/china-deepens-economic-ties-with-indonesia-as-investment-doubles(검색일: 2017. 2. 2).
16) 문재용(2016. 1. 25), http://www.raythea.com/newsView.php?cc= 300001&page=0&no=4152 (검색일: 2017. 2. 2).

현하였으며 2012~13년, 2015년에는 독일과 네덜란드로부터 투자 유출이 투자 유입보다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17]

필리핀의 최대 투자국은 2013~15년 기준 2014년 이후 투자금액이 급증한 미국(23.9%)으로 나타났다. 미국 다음으로는 선진국인 일본(8.6%), 네덜란드(8.2%) 및 신흥국인 한국(4.6%), 인도(2.1%)가 5대 투자국 리스트에 포함되었다. 아세안으로부터의 투자는 1.0%에 불과하였는데 이는 아세안 주요 투자국인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로부터의 투자가 이 기간 동안 유입보다 유출이 많은 것에 기인한다. 한편 아세안 상위 12개 투자국[18]들이 필리핀 외국인직접투자

표 3-4. 인도네시아 · 필리핀 · 베트남의 5대 투자국별 FDI 유입 비중(Flow 기준)

(단위: %)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2004~06	2013~15	2000~15	2004~06	2013~15	2000~15	2004~06	2013~15	2000~15
1	네덜란드 (21.5)	싱가포르 (53.5)	싱가포르 (42.9)	싱가포르 (14.6)	미국 (23.9)	미국 (25.8)	일본 (13.2)	한국 (28.4)	한국 (16.8)
2	일본 (17.0)	일본 (27.7)	일본 (26.1)	미국 (10.3)	일본 (8.6)	일본 (11.6)	한국 (12.3)	일본 (14.3)	일본 (14.7)
3	미국 (15.6)	한국 (3.9)	영국 (5.1)	네덜란드 (3.5)	네덜란드 (8.2)	싱가포르 (2.9)	네덜란드 (11.5)	싱가포르 (12.2)	싱가포르 (9.6)
4	싱가포르 (12.5)	중국 (3.5)	한국 (3.6)	덴마크 (2.8)	한국 (4.6)	영국 (2.4)	미국 (10.2)	중국 (5.1)	미국 (7.5)
5	독일 (6.3)	영국 (2.7)	중국 (3.3)	일본 (2.6)	인도 (2.1)	한국 (2.1)	프랑스 (8.2)	말레이 (5.0)	말레이 (4.9)
	EU (33.6)	EU (-2.4)	EU (6.3)	EU (8.7)	EU (7.7)	EU (2.5)	EU (26.1)	EU (6.3)	EU (11.6)
	아세안 (16.1)	아세안 (54.8)	아세안 (45.6)	아세안 (14.3)	아세안 (1.0)	아세안 (3.3)	아세안 (9.7)	아세안 (19.3)	아세안 (16.7)
–	한국 (5.2)			한국 (0.0)					

자료: ASEAN Secretariat Stat(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6. 10. 21).

17) ASEAN Secretariat Stat(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6. 10. 21).

18) 아세안 사무국은 ASEAN, EU, 호주, 캐나다, 중국, 인도, 일본, 뉴질랜드, 파키스탄, 한국, 러시아, 미국 등 12개국에 대한 국가별 FDI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에 차지하는 비중은 2004~06년 36.2%, 2013~15년 49.7%에 그쳐 다른 아세안 국가들의 FDI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에서는 2013~15년 기준 동북아 신흥국인 한국(28.4%)이 최대 투자국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일본(14.3%), 싱가포르(12.2%), 중국(5.1%) 말레이시아(5.0%) 순이었다. 한국은 삼성, LG, 포스코, 금호타이어, 롯데 등 주요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투자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베트남을 글로벌 생산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 아래 지속적인 투자를 단행하고 있으며, 이 같은 꾸준한 투자는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19] 일례로 생산설비 총 투자금액이 약 110달러로 추정되는 삼성은 2017년 1월 베트남 박닌성에 위치한 스마트폰용 OLED 패널 조립 공장 증설에 25억 달러 투자를 발표하였다.[20]

캄보디아의 FDI에서는 중국과 아세안으로부터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50% 이상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아세안 역내 주요 투자국은 2004~06년은 태국(16.5%), 말레이시아(9.9%), 싱가포르(5.0%) 순이었다면 2013~15년에는 베트남(8.6%), 말레이시아(6.5%), 싱가포르(4.2%), 태국(4.0%) 순으로 베트남으로부터의 투자가 눈에 띄게 확대되었다.

라오스의 외국인직접투자에서는 2013~15년 기준 중국이 52.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2004~06년의 4.3%의 비중 대비 중국의 영향력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2014~15년 연속 6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두 번째 투자국인 아세안으로부터의 투자(19.2%)도 2013~15년의 기간 동안 1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였는데, 주변국인 태국(7.1%)과 베트남(4.6%)으로부터의 투자가 대부분이었다. 이어서 일본(3.2%), 한국(2.4%), 네덜란드(2.1%) 순이었다. 라오스에 대한 투자는 인프라 산업 위주로 이루어지

19) 강동철(2017. 1. 11),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1/10/2017011003317.html(검색일: 2017. 3. 11).
20) 위의 기사.

표 3-5. 캄보디아 · 라오스 · 미얀마의 5대 투자국별 FDI 유입 비중(Flow 기준)

(단위: %)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2004~06	2013~15	2000~15	2004~06	2013~15	2000~15	2004~06	2013~15	2000~15
1	중국 (26.7)	중국 (29.3)	중국 (22.3)	프랑스 (68.3)	중국 (52.9)	중국 (28.9)	프랑스 (33.0)	싱가포르 (43.7)	중국 (33.4)
2	태국 (16.5)	베트남 (8.6)	한국 (12.1)	태국 (7.4)	태국 (7.1)	태국 (10.1)	한국 (13.7)	태국 (17.4)	싱가포르 (12.7)
3	한국 (10.6)	한국 (7.6)	베트남 (10.5)	중국 (4.3)	베트남 (4.6)	프랑스 (5.4)	중국 (12.1)	중국 (14.3)	영국 (11.9)
4	말레이 (9.9)	말레이 (6.5)	말레이 (9.6)	호주 (3.3)	일본 (3.2)	베트남 (4.2)	태국 (11.8)	프랑스 (5.0)	프랑스 (6.4)
5	미국 (6.0)	영국 (5.8)	태국 (5.0)	영국 (2.2)	한국 (2.4)	한국 (2.8)	영국 (11.2)	일본 (2.6)	한국 (3.0)
	아세안 (31.8)	아세안 (23.3)	아세안 (28.9)	아세안 (10.8)	아세안 (19.2)	아세안 (21.8)	아세안 (13.0)	아세안 (64.2)	아세안 (22.3)
	EU (3.9)	EU (9.2)	EU (7.1)	EU (72.5)	EU (3.1)	EU (7.7)	EU (43.3)	EU (8.3)	EU (18.5)
-				한국 (1.4)				한국 (0.8)	

자료: ASEAN Secretariat Stat(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6. 10. 21).

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중국의 China International Water and Electric 사, China Machinery Engineering사, 베트남의 Hoang Anh Gai Lai사, 태국의 Banpu사와 Ratchaburi Electricity사가 최근 라오스에 발전소 투자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조업 투자도 7,000만 달러 이하의 실적을 거두고 있는데 라오스에 인접한 태국 공장의 보조 생산시설로 설비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미얀마는 2004~06년과 2013~15년의 기간 동안 주요 투자국에 변화가 보였다. 2000~15년 누적 투자 비중 기준으로 중국이 최대 투자국의 위치를 차지한 가운데, 2013~15년의 투자 현황을 보면 싱가포르로부터의 투자가 43.7%를 기록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태국(17.4%), 중국(14.3%), 프랑스(5.0%), 일본

(2.6%), 영국(2.6%) 순이었다. 싱가포르의 대미얀마 투자는 2013~15년의 기간 동안 급증 추세를 보였으며 2015년에는 15억 6,000만 달러의 최고투자 실적을 기록하였다. 대부분 가스 · 전기분야, 통신과 같은 인프라산업 및 금융분야 투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21] 다른 CLM 국가와 달리 선진국인 싱가포르가 미얀마 최대 투자국으로 기록된 요인으로는 미국경제제재의 여파에 의한 싱가포르 우회투자에 기인한다.[22] 중국은 미얀마 짜욱퓨 가스전과 중국 쿤밍을 잇는 CNPC 파이프라인 건설 프로젝트가 2015년 상반기 거의 완공됨에 따라 대형 투자가 최근 감소한 측면이 있었다. 다만 제조업 중심 투자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3]

표 3-6. 브루나이의 5대 투자국별 FDI 유입 비중(Flow 기준)

(단위: %)

	2004~06	2013~15	2000~15
1	영국 (59.8)	영국 (52.9)	영국 (51.5)
2	프랑스 (9.5)	네덜란드 (13.2)	네덜란드 (25.8)
3	일본 (7.7)	캐나다 (5.9)	일본 (7.7)
4	말레이시아 (3.8)	싱가포르 (5.9)	말레이시아 (2.4)
5	미국 (3.4)	말레이시아 (5.9)	싱가포르 (2.2)
	EU (69.4)	EU (71.8)	EU (79.5)
	아세안 (5.2)	아세안 (11.6)	아세안 (4.8)
	한국 (3.1)	한국 (0.0)	한국 (0.3)

자료: ASEAN Secretariat Stat(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6. 10. 21).

21) Nyein(2016); ASEAN · UNCTAD(2016), p. 40.
22) KOTRA 양곤 무역관(2015), pp. 24~25.
23) 위의 책, p. 25.

브루나이는 인구 40만 명의 소국으로 석유 · 가스 수출 비중이 95%에 달하는 석유 중심 경제국가다. 다른 아세안 국가들과 차별되는 브루나이의 외국인투자는 영국과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한 EU가 7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2012년 이후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한 아세안 투자 비중 또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표 3-6 참고).

다. 산업별 아세안 FDI 현황

아세안의 산업별 외국인직접투자를 2013~15년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서비스업이 전체 아세안 외국인직접투자에서 64.7%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제조업이 22.7%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표 3-7. 산업별 아세안 외국인직접투자(Flow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2004~06	2012	2013	2014	2015	2013~15
농수산업	246 (0.5)	1,747 (1.5)	2,331 (1.9)	4,716 (3.6)	4,971 (4.1)	4,006 (3.2)
광업	1,814 (3.8)	6,462 (5.7)	8,080 (6.5)	7,660 (5.9)	7,789 (6.4)	7,843 (5.5)
제조업	14,737 (31.2)	5,312 (4.5)	38,272 (30.7)	18,012 (13.9)	29,099 (24.1)	28,461 (22.7)
서비스업	27,715* (58.8)	101,821 (87.0)	72,530 (58.1)	95,391 (73.4)	75,033 (62.1)	80,985 (64.7)
금융보험		50,209 (42.9)	28,264 (24.0)	45,624 (35.1)	39,324 (32.5)	37,537 (30.0)
도소매, 오토바이수리		17,208 (14.7)	13,947 (13.5)	20,527 (15.8)	11,157 (9.2)	16,192 (12.9)
기타	736 (1.6)	1,757 (1.5)	3,652 (2.9)	4,215 (3.2)	3,927 (3.3)	3,931 (3.1)
전체	47,172	117,099	124,865	129,995	120,819	125,226

주: 아세안사무국의 산업별 외국인직접투자 집계 방식이 2012년 바뀌어서 금융보험, 도소매업의 구분이 없음. 기타는 unspecified를 의미.
자료: ASEAN Secretariat Stat(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6. 10. 21).

비스업 중에서는 금융보험업의 비중이 30.0%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도소매업(12.9%), 부동산업(7.7%) 순을 기록하였다. 2004~06년의 산업별 아세안 외국인직접투자 비중과 비교하였을 때 제조업 부문 FDI 비중이 31.2%에서 22.7%로 감소한 반면, 농수산업, 광업, 서비스업에 대한 FDI 비중의 증가가 눈에 띈다.

아세안 사무국은 아세안 주요 12개 투자국의 산업별 FDI 통계를 발표하고 있는데 2004~06년 평균과 2013~15년 평균 아세안 주요 투자국의 산업별 투자 비중을 [표 3-8]에 정리하였다.[24] 전반적으로 아세안 주요 투자국의 산업별 투자는 농수산업과 건설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다른 업종 대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국과 EU의 대아세안 제조업 투자 비중은 감소한 반면 한·중·일 3국의 대아세안 제조업 투자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세안 역내투자는 역외투자자 대비 농수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은 편으로 확인되었다.

투자국별로 대아세안 산업별 FDI 투자 비중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싱가포르로 대표되는 아세안의 대아세안 FDI는 다른 국가에 비해 농수산업과 부동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았다. EU의 경우 대부분의 FDI가 서비스업에 집중되었는데 이 중에서도 금융보험업과 도소매업의 비중이 각각 26.1%와 21.2%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업이 차지한 비중도 7.0%로 중국과 함께 높은 투자 비중을 기록한 것이 눈에 띈다. 2004~06년 EU의 산업별 투자 비중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제조업 비중이 줄어들고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일본의 대아세안 투자는 특히 제조업에 집중되었다. 이는 2004~06년 투자 현황과 맥락을 같이 한다. 중국은 전체 아세안 투자의 중 8.8%의 비중이 광업투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 또한 64.2%의 높은 비중을 기록했는데, 대부분이 부동산(25.4%)과 금융보험업(24.9%)에 집중되었다. 2004~06년 중국의 대아세안 투자 현황과 비교하였을 때 제조업에 대한

24) 아세안 사무국의 FDI 산업 구분 방식은 2012년 변경되었다.

투자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대아세안 투자는 서비스업(84.9%)에 집중되었으며, 특히 금융보험업(40.9%)과 도소매업(20.9%)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8. 주요 투자국의 산업별 대아세안 외국인투자 비중 변화(Flow기준)

(단위: %)

	EU		일본		미국		아세안		중국		한국	
	(A)	(B)	(A)	(B)	(A)	(B)	(A)	(B)	(A)	(B)	(A)	(B)
농수산업	0.5	1.4	0.0	0.3	0.2	0.1	0.5	15.3	0.4	0.9	0.6	1.4
광업	4.2	7.0	2.5	2.3	10.0	1.3	0.4	3.9	24.4	8.8	6.8	0.6
제조업	30.5	13.9	47.7	48.6	23.6	7.3	33.7	27.5	4.0	13.9	37.4	50.4
건설업계	0.3	0.9	-0.3	2.1	-1.0	0.2	0.7	1.8	0.6	7.9	1.1	8.9
서비스업계	57.2	75.3	44.1	45.3	56.2	84.9	63.0	44.6	52.6	64.2	47.4	34.2
금융보험	31.6	26.1	15.8	26.3	38.7	40.9	31.6	19.5	27.2	24.9	9.7	8.2
무역 · 요식업	13.9	-	18.9	-	14.8	-	-1.7	-	16.7	-	12.1	-
도소매 등	-	21.2	-	9.6	-	20.9	-	4.8	-	6.4	-	18.6
부동산	4.4	2.0	0.6	1.7	3.8	3.9	12.8	18.6	0.9	25.4	16.4	6.0
기타	4.0	0.4	1.8	0.8	3.7	6.0	-1.9	0.3	0.6	0.0	-1.0	5.5
누락	3.3	1.2	4.2	1.0	7.3	2.1	3.6	6.7	17.5	4.2	7.7	1.0

주: (A) 기간은 2004~06년 평균을 (B) 기간은 2013~15년 평균을 뜻함.
자료: ASEAN Secretariat Stat(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6. 10. 21).

2. 아세안 국가의 비즈니스 여건(Doing Business Index) 분석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아세안으로 유입된 FDI는 대부분 일부 국가, 즉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등에 집중되는 특징을 보였다. 2015년 기준 아세안의 총 FDI에서 이들 3개국의 비중은 무려 82%에 달하였다. 반면 캄보디아(1%), 라오스(1%), 미얀마(1%)로 유입된 FDI는 최근에도 매우 낮은 수준을 기

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세안의 경우 경제발전 수준이 매우 이질적인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고, FDI도 일부 국가에 집중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FDI 요인을 살펴볼 경우 분석 결과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2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연구가 Zhang (2012)이다. 그는 선진국 및 후진국 간 상이한 FDI 결정요인을 제도적 요인에서 찾고 있다.

본 소절에서는 세계은행(World Bank)이 2003년부터 매년 발간하고 있는 'The Ease of Doing Business'(기업환경평가)를 통해 아세안 각국의 비즈니스 여건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가. Doing Business 평가요소 및 산출 방법

본 소절에서는 World Bank의 Doing Business 평가항목을 토대로 아세안 국가들의 비즈니스 여건을 상호 비교하고자 한다. Doing Business 순위는 총 10개의 주요 평가요소에 의해 측정된 평가점수를 토대로 측정되는데, 각 평가요소에 대한 세부사항은 [표 3-9]와 같다.

창업환경 중 창업절차(Starting a Business: Procedures)는 창업 관련 절차체계의 간편성을 평가한 것이다. 창업소요시간(Starting a Business: Time)은 사업을 시작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의미하며, 창업지출비용(Starting a Business: Cost)은 창업에 지출되는 공식 수수료 및 전문 수수료 등을 평가한 결과이다. 창업납입자본(Starting a Business: Paid in Capital)은 창업자가 은행에 입금하거나 등록 전에 공증인 또는 법인 설립 후 3개월까지 입금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건축허가 절차(Construction Permits: Procedures)는 건축허가 관련 각 국가가 보유한 절차체계의 간편성을 나타낸 것이다. 인허가소요시간(Construction Permits: Time)은 각 국가가 건축인

표 3-9. Doing Business 주요 평가요소(World Bank)

부문(총 10개)	평가 내용 및 주요 세부 지표
창업 (Starting a Business)	• 기업이 창업하는 데 공식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절차를 평가 (세부 지표) 창업절차 수, 소요시간, 비용, 최저자본금 규모
건축 관련 인허가 (Dealing with Construction Permits)	• 건축 시 요구되는 절차, 시간, 비용 및 행정시스템 효율성 등 평가 (세부 지표) 창고 건축에 필요한 절차 수, 소요시간, 비용, 건축허가 행정시스템 효율성
전력 수급 (Getting Electricity)	• 전력 수급 효율성 및 안정성을 측정 (세부 지표) 전력 수급에 요구되는 비용, 시간, 절차 및 송전시스템 등 각 25%로 평가
재산권 등록 (Registering Property)	• 토지·건물 소유권 이전 및 등록에 소요되는 절차, 시간, 비용을 평가 (세부 지표) 절차 수, 소요시간, 비용
자금조달 (Getting Credit)	• 채권자의 법적 권리와 신용정보시스템을 평가 (세부 지표) 채권자의 권리 보호 수준, 신용정보 제공 수준 등
투자자 보호 (Protecting Investors)	• 이사진의 부당한 내부거래로부터 주주 보호 정도를 평가 (세부 지표) 거래투명성(공시), 이사진의 책임, 경영진에 대한 주주의 소송편의도
납세 (Paying Taxes)	• 기업의 세금(연금 등 사회보장기여금 포함) 납부로 인한 부담을 평가 (세부 지표) 납부 회수, 소요시간, 실효세율
무역 (Trading Across Borders)	• 수출입 과정에서 요구되는 절차·시간·비용을 평가 (세부 지표) 상품의 수출입 관련 절차, 소요시간, 비용
계약이행 (Enforcing Contracts)	• 각종 계약이행 과정에 대한 시스템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평가 (세부 지표) 계약이행에 소요되는 절차, 소요시간, 비용
도산처리 (Resolving Insolvency)	• 기업의 지급불능상황, 도산 등 대처 효율성 평가 (세부 지표) 채권회수율(50%), Insolvency Framework 평가(50%)

자료: World Bank(2016), Doing Business Methodology, http://www.doingbusiness.org/methodology(검색일: 2016. 9. 13).

허가 발행에 필요한 변호사 또는 공증인 등의 섭외에 소요되는 평균 기간을 나타낸다. 인허가등록비용(Construction Permits: Cost)에서는 건축에 지출되는 공식 수수료 및 전문 수수료 등 소요비용을 평가한다. 전력 수급(Getting Electricity) 평가에서는 전력 수급 효율성 및 안정성, 전력 수급에 요구되는 비용, 시간, 절차 및 송전시스템 등을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음은 재산권 등록으로, 재산권등록절차(Registering Property: Procedures)

는 재산권 등록 시 요구되는 법적 절차이며, 소요시간(Registering Property: Time)은 재산권을 등록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의미한다. 등록비용(Registering Property: Cost)은 재산권 등록에 지출되는 공식 수수료 및 전문 수수료 등의 비용을 평가한다. 자금조달(Getting Credit) 평가에서는 채권자의 권리 보호 수준, 신용정보 제공 수준 등을 지수화하여 각종 거래환경 관련 비즈니스 여건을 평가한다. 투자자 보호(Protecting Investors) 평가항목은 거래투명성(공시), 이사진의 책임, 경영진에 대한 주주의 소송편의도 등을 평가한다.

납세환경 평가에서는 납세대상 서류(Paying Taxes: Payments), 납세 소요일(Registering Property: Time) 및 세율(Paying Taxes: Total tax rate) 등을 평가한다. 무역환경 평가에서는 수출허가서류(Trading Ac. Borders: Documents to export), 수출소요시간(Trading Ac. Borders: Time to export) 및 수출비용(Trading Ac. Borders: Cost to export)을 평가하며, 수입 부분에 대해서도 평가 결과를 제공한다. 계약이행환경 평가에서는 소요시간(Enforcing Contracts: Time), 비용(Enforcing Contracts: Cost) 및 계약이행절차(Enforcing Contracts: Procedures)를 평가한 결과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도산처리 환경에 대한 평가는 기업도산처리비용(Resolving Insolvency: Cost)과 채권회수율(Resolving Insolvency: Recovery rate)을 평가한다.

나. Doing Business 평가요소별 아세안 비즈니스 여건 분석

본 소절에서는 Doing Business 평가요소별로 아세안 국가들의 비즈니스 여건을 비교하고자 한다. 항목별로 구분된 각 평가지표를 중심으로 아세안 국가의 비즈니스 여건을 2004~06년과 2013~15년의 두 조사기간에 걸쳐 검토하였다.

1) 아세안 국가 비즈니스 여건 분석: 창업(Starting a Business) 및 납세(Paying Taxes) 부문

[표 3-10]에 제시된 창업환경에 관련된 비즈니스 여건에서는 아세안 국가 중 FDI가 집중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등의 창업환경이 여타 국가에 비해 매우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FDI 비중이 미미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의 창업환경 여건은 여타 아세안 국가에 비해 매우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창업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비용 등의 일부 요소에서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과 비교할 때 상당히 불리한 여건을 보유하였다.

한편 창업환경 여건과 전 세계에서 아세안으로 유입된 FDI를 대상으로 단순

표 3-10. 아세안 주요국의 창업환경 평가 결과(2013~15년 평균)

국가	창업 절차	소요일	비용	최소 납입자본금
싱가포르	3	2.5	0.6	0
말레이시아	6	8.3	9.7	0
태국	6	28	6.6	0
캄보디아	11.7	101.3	109.4	27.4
라오스	8	87	6	0
미얀마	14	76	145.8	6,884

자료: World Bank(2013~15), *Doing Busines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6. 9. 13).

표 3-11. 아세안 주요국의 납세환경 평가 결과(2013~15년 평균)

국가	납세대상 서류(연간)	소요일	세율
싱가포르	6	83.5	18.5
말레이시아	13	133	37.7
태국	21	264	35.1
캄보디아	40	173	21.5
라오스	34.3	362	27.8
미얀마	31	240.5	35.3

자료: World Bank(2013~15), *Doing Busines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6. 9. 13).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창업절차 및 소요일과 FDI 간에는 모두 강한 부의 상관관계(-0.5이하)가 나타났으며, 과거 2004~06년 기간의 평균치를 활용한 결과에서도 강한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 3-11]에서 나타난 납세 평가지표에 관련된 비즈니스 여건에서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의 유리한 납세 환경에 비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의 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국 중 태국은 소요일 및 세율에서 비교적 불리한 환경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환경 중 납세대상 서류와 전 세계에서 아세안으로 유입된 FDI의 상관계수를 구해보면, 이들 두 변수간에 강한 부의 상관관계(-0.5이하)가 있는 것으로 나타냈으며, 2004~06년 기간의 평균치를 활용한 결과에서도 동일한 상관계수를 얻었다.

2) 아세안 국가 비즈니스 여건 분석: 전력 수급(Getting Electricity) 및 건축 관련 인허가(Construction Permits) 부문

전력 수급과 관련된 평가에서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이 여타 아세안 국가에 비해 비즈니스 여건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의 비즈니스 여건은 상대적으로 불리한데, 특히 전력수급을 위해 필요한 소요기간과 비용 측면에서 큰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2. 아세안 주요국의 전력 수급 평가 결과(2013~15년 평균)

국가	전력 수급 절차	소요일	비용
싱가포르	4	31	27.8
말레이시아	4	35.7	30.4
인도네시아	5.6	85.7	377.3
캄보디아	4	184	2,645
라오스	6	134	1,917
미얀마	6	98	2,920

자료: World Bank(2013~15), *Doing Busines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6. 9. 13).

표 3-13. 아세안 주요국의 건축 관련 인허가 평가 결과(2013~15년 평균)

국가	건축허가 절차	소요일	비용
싱가포르	13	35	6.2
말레이시아	22.7	105.7	1
인도네시아	17	197	5.6
캄보디아	20	652	7
라오스	11	83	0.7
미얀마	14	95	6.3

자료: World Bank(2013~15), *Doing Busines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6. 9. 13).

건축 관련 인허가 분야는 [표 3-13]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싱가포르가 건축허가 절차, 소요일 및 비용 등 모든 분야에서 비즈니스 친화적인 환경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말레이시아는 건축허가 절차가 인도네시아는 물론 캄보디아, 라오스 및 미얀마보다도 많은 특징을 보여 소요일이 105.7일로 조사되었다. 또한 소요일 측면에서도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가 라오스와 미얀마에 비해 뒤처지는 결과를 보였다. 주목되는 특징은 건축 관련 인허가 분야의 경우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의 비즈니스 여건이 말레이시아 및 인도네시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캄보디아는 건축 관련 인허가의 소요일이 652일로 나타나 여타 아세안 국가에 비해 훨씬 많은 기간이 소요되었다.

3) 아세안 국가 비즈니스 여건 분석: 계약이행(Enforcing Contracts) 및 재산권 등록(Registering Property) 부문

계약이행 평가지표는 소요일과 비용으로 구분되는데 소요일의 경우 싱가포르가 타 국가 대비 매우 짧은 소요일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캄보디아, 라오스 등과 유사한 여건을 가진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3-14 참고). 아세안 국가 중에서도 미얀마의 계약이행 관련 소요일이 무

표 3-14. 아세안 주요국의 계약이행 환경 평가 결과(2013~15년 평균)

국가	소요일	비용
싱가포르	164	25.8
말레이시아	425	34
인도네시아	480	123.6
캄보디아	483	103.4
라오스	443	31.6
미얀마	1,160	51.5

자료: World Bank(2013~15), *Doing Busines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6. 9. 13).

표 3-15. 아세안 주요국의 재산권 등록 환경 평가 결과(2013~15년 평균)

국가	재산권 등록절차	소요일	비용
싱가포르	6	9.3	2.8
말레이시아	8	14	3.3
인도네시아	5	26.6	10.8
캄보디아	7	56	4.4
라오스	4	53	1.1
미얀마	6	85	6.5

자료: World Bank(2013~15), *Doing Busines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6. 9. 13).

려 1,160일로 나타났으나, 비용 측면에서는 483일을 보인 캄보디아보다 저렴한 특징을 보였다.

한편 계약이행 소요일과 전 세계에서 아세안으로 유입되는 FDI를 대상으로 단순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계약이행 소요일과 FDI 유입액은 강한 부의 상관관계(-0.5이하)를 나타냈으며, 과거 2004~06년 기간의 평균치를 활용한 결과에서도 강한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재산권 등록 지표 [표 3-15]에서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의 여건이 다른 아세안 국가에 비해 매우 유리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싱가포르는 재산권 등록절차, 소요일, 비용 모든 측면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비즈니스 여건을 갖춘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아세안 국가 비즈니스 여건 분석: 도산처리(Resolving Insolvency) 및 무역환경(Trading Across Borders) 부문

[표 3-16]의 도산처리 평가지표를 보면 싱가포르는 채권회수율이 89.4%에 달해 여타 국가에 비해 좋은 여건을 갖춘 반면 인도네시아는 도산처리 소요비용이 매우 높은 특징을 보였다. 한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 하위국의 경우 채권회수율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산처리 평가요인 중 채권회수율과 전 세계에서 아세안으로 유입된 FDI를 대상으로 단순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채권회수율과 FDI 유입액은 강한 정의 상관관계(0.5이상)를 나타냈으며, 과거 2004~06년 기간의 평균치를 활용한

표 3-16. 아세안 주요국의 도산처리 환경 평가 결과(2013~15년 평균)

국가	소요비용	채권회수율
싱가포르	3.3	89.4
말레이시아	10	59.7
인도네시아	21.7	31.1
캄보디아	18	12.5
라오스	-	0
미얀마	18	14

자료: World Bank(2013~15), *Doing Busines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6. 9. 13).

표 3-17. 아세안 주요국의 무역환경 평가 결과(2013~15년 평균)

국가	수출			수입		
수출 서류	소요일	비용	수출 서류	소요일	비용	
싱가포르	3	6	459	3	4	439.7
말레이시아	4	11	470	4	8	488
인도네시아	4	17	603.7	8	24	651.2
캄보디아	8	22	781.7	9	24.7	920
라오스	10	23.7	2,013	10	26	1,981
미얀마	8.7	23.3	653.3	8.7	25.3	643.3

자료: World Bank(2013~15), *Doing Busines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6. 9. 13).

결과에서도 강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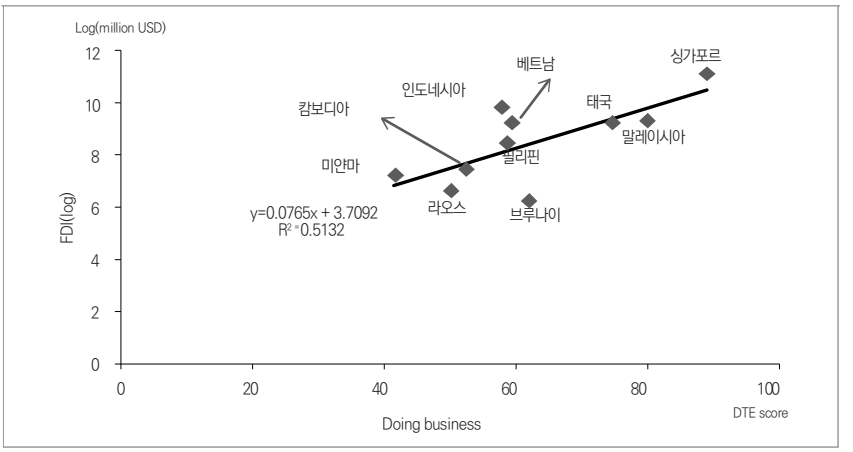
무역환경 관련 비즈니스 여건에서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가 수출 및 수입 시 필요한 서류와 소요일 등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비즈니스 여건을 갖추고 있었다.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 CLM국의 무역환경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특징을 보였다. 특히 라오스의 수출 및 수입 비용은 다른 아세안 국가와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무역환경 중 수출 및 수입에 소요되는 시간과 전 세계에서 아세안으로 유입된 FDI를 대상으로 단순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수출 및 수입에 소요되는 시간과 FDI 유입액은 모두 강한 부의 상관관계(-0.5이하)를 나타냈으며, 과거 2004~06년 기간의 평균치를 활용한 결과에서도 강한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상기 분석된 평가지표에 포함되지 않은 투자자 보호(Protecting Investors) 및 자금조달(Getting Credit) 부문은 해당 평가항목이 비교적 최근(2014년)

그림 3-5. 아세안 FDI 유입과 Doing Business 평가 결과의 비교(2013~15년 평균)



자료: World Bank, Doing Business(검색일: 2016. 9. 13) 및 ASEAN Secretariat Stat(검색일: 2016. 9. 13)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신설된 관계로 분석을 위한 충분한 데이터가 갖추어지지 않아 비교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소절에서는 최근 수년간의 Doing Business 평가결과를 토대로 아세안 각국의 비즈니스 여건을 비교 분석하였다. 세부항목별로 일부 차이는 있으나 아세안에서 높은 FDI 비중을 시현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들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의 CLM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뛰어난 비즈니스 여건을 갖추고 있었다. 이는 [그림 3-5]를 통해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데, 아세안 각국 FDI와 Doing Business 평가결과(distance to frontier)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다. 아세안 투자규제수준(FDI Restrictiveness Index for ASEAN) 분석[25)]

본 소절에서는 Thangavelu(2015) 등의 선행연구에서 활용된 아세안 투자규제수준(FDI Restrictiveness Index for ASEAN)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아세안 투자규제수준은 Thangavelu가 Golub(2003), OECD(2010), Urata and Sasuya(2007)가 제시한 방법론을 바탕으로 만든 지표이다. OECD에서도 매년 국가별 FDI 규제 수준에 관한 지표를 발표하는데, 아세안 국가 중에서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4개국에 대해서만 정보가 제시되고 있어서 그 외 아세안 국가에 대한 규제 수준 평가가 어렵다.

한편 Thangavelu의 경우 Urata and Sasuya(2007)가 규정한 분류를 바탕으로 제조업과 서비스 섹터를 세분화하여 그에 대한 FDI 규제 수준을 발표하였다. 따라서 특히 FDI에서 비중이 높고 증가 추세에 있는 서비스 부문의 하위분야별 FDI 규제 수준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각 국가별로 어느 서비스 부문에서

25) 본 소절은 Thangavelu(2015)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규제 완화가 필요한지 파악할 수 있다.

본 소절에서 소개할 지표는 OECD에서 발표하는 FDI Restrictive Index가 아닌, Thangavelu가 OECD를 비롯한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론을 바탕으로 만든 지표임을 밝혀둔다. Thangavelu의 아세안 투자규제수준 지표에서는 다음 여섯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FDI 규제 수준을 지표화했다. 괄호 안의 숫자는 이 지표 계산에서 둔 비중의 정도를 의미하며, 결과값은 0에서 1까지 존재한다.

〈아세안 투자규제수준 지표의 요소별 비중〉[26]

- 외국인투자자 소유권 인정 및 시장 접근성(0.4)
- 내국민대우(0.2)
- 심사 및 승인 절차(0.1)
- 이사회 및 경영진 구성(0.1)
- 투자자 이동(출입국 포함) 용이성(0.1)
- 기술력 및 전문성 조건(0.1)

Thangavelu는 비중이 가장 높은 '외국인투자자 소유권 인정 및 시장 접근성'의 경우, 다국적 기업이 해외 활동을 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가장 큰 비중을 두었다. 다음으로 비중이 큰 '내국민대우'의 경우, 각 국가들이 외국 기업에 비해 자국 기업을 얼마나 보호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비중을 두 번째로 높게 설정하였다. 나머지 요소들의 경우 동일하게 0.1의 비중을 갖고 있다. Thangavelu의 아세안 투자규제수준 지표는 OECD의 규제 수준 지표와 달리 값이 작을수록 규제 수준이 높고(자유화 정도가 적고), 값이 클수록 규제 수준이 낮음(자유화 정도가 큼)을 의미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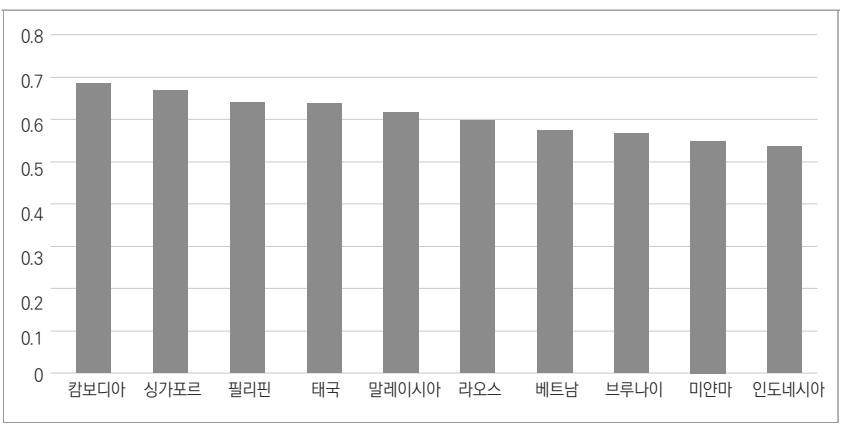
26) 〈Assessment of FDI Restrictions〉
- Foreign ownership or market access(0.4)
- national treatment(0.2)
- screening and approval procedure(0.1)
- board of directors and management composition(0.1)
- movement of investors(0.1)
- performance requirements(0.1)

Thangavelu는 2011년에 발표한 지표를 발전 및 확대시켜 AFAS 8(ASEAN Framework Agreement on Services Eighth Package)와 ACIA(ASEAN Comprehensive Investment Agreement)에서 아세안 국가들이 합의한 규제 수준을 바탕으로 지표를 제시한다.

[그림 3-6]은 제조업 부문의 아세안 국가별 FDI 규제 자유화 수준이 높은 순서를 나타내고 있다. 캄보디아와 싱가포르는 제조 부문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우수한 외국인투자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베트남, 브루나이, 미얀마, 인도네시아는 규제가 강한 4개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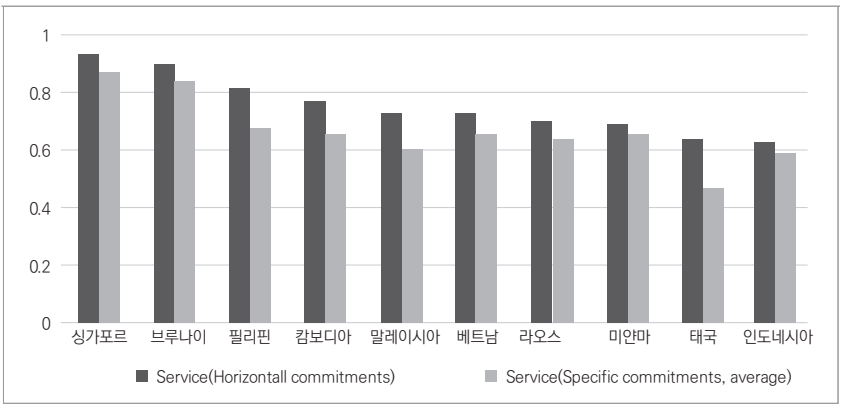
[그림 3-7]은 서비스 부문의 투자 규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왼쪽 막대는 각 국가의 Horizontal commitments 수준을 보여주며, 오른쪽 막대는 각 서비스 부문의 하위 분야별 Specific commitments의 평균값을 보여준다. Horizontal commitments를 기준으로 보면 싱가포르가 가장 FDI 규제 자유화 수준이 높고, 그 다음은 브루나이이다. 한편 인도네시아, 태국, 미얀마는 FDI 규제가 가장 강한 3개 국가에 속한다.

그림 3-6. 제조업 부문의 아세안 국가별 FDI 규제 수준(AFTA+Government Sit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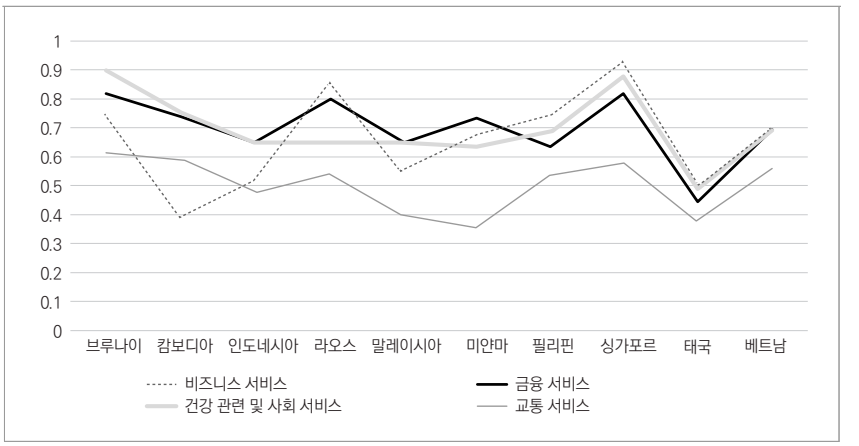
자료: Thangavelu(2015), p. 14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3-7. 서비스 부문의 아세안 국가별 FDI 규제 수준



자료: Thangavelu(2015), p. 16.

그림 3-8. FDI 비중이 높은 서비스 4개 분야의 규제 수준



자료: Thangavelu(2015), p. 14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3-8]은 서비스 부문에서 외국인직접투자 비율이 높은 금융보험업과 도소매업의 FDI 규제 수준을 아세안 국가별로 정리한 그래프이다. 4개 분야 중 금융 서비스(Finance Services)와 건강 관련 및 사회 서비스(Health related and Social Services)의 FDI 규제 자유화 수준이 다른 2개 산업에 비해 높은

편이고, 교통 서비스 분야(Transport Services)의 FDI 규제가 다른 영역에 비해 강한 것으로 나타난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싱가포르, 브루나이, 라오스의 FDI 규제 자유화 수준이 높은 반면, 미얀마, 태국, 베트남의 규제 수준은 강한 편이다.

3. 소결

제3장에서는 아세안 FDI 결정요인을 분석하기에 앞서 아세안을 1인당 GDP를 기준으로 3개의 국가군으로 구분하여 아세안 소득군별 FDI 유입 특징과 비즈니스 여건을 살펴보았다.[27] 이에 따르면 2000년대 아세안의 FDI는 세계 FDI 추세보다 견고한 증가세를 기록하였으며 일본이 아세안 최대 투자국의 위치를 유지한 가운데 아세안 역내투자, 중국, 한국, 호주, 인도 등 RCEP 참여국들의 FDI 비중이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04년과 2015년 아세안으로의 FDI 유입(stock 기준) 비중을 비교하였을 때 싱가포르로의 FDI 집중 현상이 계속된 가운데 말레이시아, 태국의 FDI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진 한편 인도네시아의 FDI 유입 비중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세안 소득군별 FDI 추이를 살펴본 결과 중소득 이상의 국가군은 선진국으로부터의 FDI 유입 비중이 큰 반면 CLMV 국가들(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은 중국과 아세안 등 후발주자들로부터의 FDI 유입 비중이 크다는 특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말레이시아, 태국과 같은 중소득 이상의 국가군은 이미 일본 등 선진국의 경제점유율이 커 후발주자의 입장에서는 베트남과 같은 신흥 아세안국의 투자 유인 요소가 더 컸을 것으로 보인다. 아세안의 주요 투자국별, 산업별 FDI 유입 비중을 살펴본 결과 미국과 EU의 FDI는 서비스업계에

27) 브루나이의 경우 경제구조가 다른 아세안 국가들과 상이하므로 소결에서는 제외하고자 한다.

60% 이상 집중된 한편 한국과 일본으로부터의 FDI는 제조업계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국의 대아세안 FDI는 금융보험 및 부동산업과 같은 서비스업계가 높은 비중을 차지한 한편 제조업의 투자 비중이 2004~06년 평균 4%에서 2013~15년 13.9%로 급증한 특징을 보였다.

한편 Doing Business의 평가요소에 따라 아세안 국가들의 비즈니스 여건을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창업(Starting a Business), 계약이행(Enforcing Contracts), 재산권 등록(Registering Property) 및 무역환경(Trading Across Borders) 등 대부분의 평가지표에서 아세안 각국의 비즈니스 여건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아세안 10개국 중 FDI가 집중되고 있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의 비즈니스 여건은 여타 국가에 비해 매우 유리한 반면, FDI 비중이 미미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의 여건은 비교적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부 평가항목 중 계약이행 소요일, 채권회수율 및 수출 및 수입에 소요되는 시간 등의 요인과 FDI 사이에는 강한 상관관계(양 또는 음의 상관관계로, 평가요인의 성격에 따라 결정)가 보였다. 또한 [그림 3-5]에서도 아세안 각국의 FDI 규모는 Doing Business 평가 결과와 뚜렷한 양의 선형관계를 보였다.

본 장에서 살펴본 아세안의 주요 투자국별, 산업별 FDI와 아세안 국가간 임금 격차 및 비즈니스 여건을 제2장에서 검토한 FDI의 투자요인과 연계해서 살펴보면, 임금 수준이 한국과 유사하고 세계적인 수준의 개방적인 비즈니스 여건을 갖춘 싱가포르는 효율성 추구형 혹은 수평적 FDI 성격이 우세한 것으로 판단된다. 싱가포르를 제외한 국가들은 [그림 3-9]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중국 대비 저렴한 노동력을 기반으로 한 수직적 혹은 자원추구형 FDI의 특징이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말레이시아, 태국의 경우 일본 제조기업, 베트남은 한국 제조기업의 생산기지 이전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CLM 국가들 또한 노동집약적 제조업 혹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태국과 인건비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의 기존 생산기지를 보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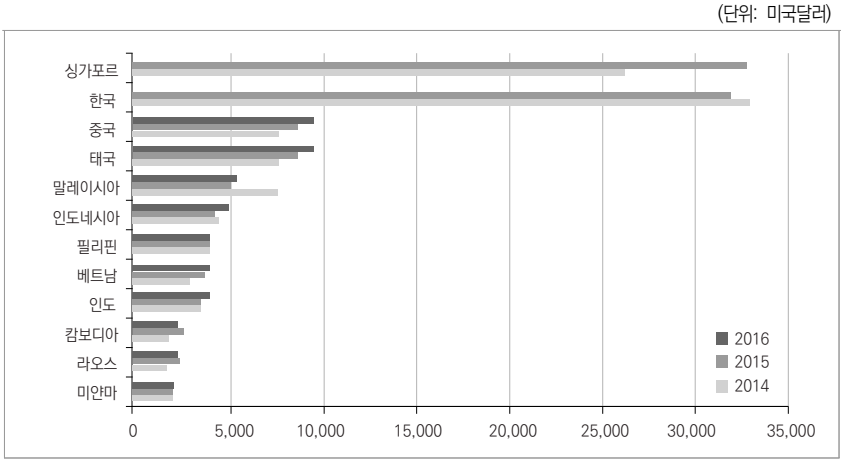
하기 위한 생산시설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0년대 아세안의 견고한 경제성장은 중산층 확대 추세로 이어져 아세안은 다국적기업의 생산기지로서만이 아니라 현지시장 진출지로도 각광받기 시작하였다. 아세안 국가 중 인구 규모가 큰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의 국가를 중심으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2015년 말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출범과 'AEC 비전 2025'에 따른 역내통합으로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곽성일 외(2015)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직 AEC 형성이 아세안 각국 GDP와 수출입 구조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와 함께 곽성일 외(2015)는 아세안 시장을 통합적 시각에서 볼 필요성이 있는 한편 국가별 상이한 산업정책과 제도적 변화에 유념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실제로 아세안 국가 중 미국, 일본, EU 등의 선진국이 선호하는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과 한국, 중국 등 개도국이 선호하는 베트남,

그림 3-9. 일본 제조업의 국가별 연간 총 노동비용(2014~16년)

(단위: 미국달러)



주: 총 비용은 기본급, 상여급, 보험 등을 모두 포함한 비용을 지칭.
자료: JETRO(2014~16), Survey Report on Business Operations of Japanese Companies in Asia and Oceania를 참고하여 저자 정리.

미얀마, 캄보디아 등에 대한 직접투자의 유형과 차이점을 비교해 보면 비즈니스 여건 등의 요인이 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미국 등 선진국의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등 아세안 국가에 대한 투자는 제조업 중에서도 컴퓨터·전자 및 화학 산업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28] 한국 등 개도국의 캄보디아, 미얀마 등의 아세안 투자는 봉제산업에 많이 진출해 있는 실정이다.[29] 봉제와 같은 단순 노동력만을 요구하는 국가에 대한 투자는 규제 요인보다 임금 등의 요인이 주요하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이나, 단순 기술 수준을 넘어 부가가치 기여가 높은 산업의 경우 비즈니스 여건 등과 같은 요인이 투자 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제3장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개도국이 선호하는 국가의 비즈니스 여건이 선진국이 선호하는 아세안 국가보다 훨씬 불리한 특징을 보였다.

이제 제4장에서는 경제적 이질성이 큰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FDI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동시에 아세안 역외국가에서 들어오는 FDI와 역내 아세안 국가들간 FDI 결정요인에 대해 분석하고 이들 두 그룹간의 차이에 대해서 실증분석을 하고자 한다.

28) 미국은 BEA(Bureau of Economic Analysis) Stat. 참고; Thangavelu(2015);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1. 11).

29) 한국의 베트남 투자는 삼성 및 LG와 이 기업들의 협력사 동반 진출에 따라 전자산업과 봉제산업이 주요 투자 대상 업종으로 나타난다.

제4장

ASEAN FDI 결정요인 분석

1. 모델 설계
2. 모델 결과
3. 아세안 FDI 유입 결정요인 분석 결과에 따른 국가별 비교

1. 모델 설계

앞 장에서는 아세안 역내외 지역으로부터 아세안 국가로 유입된 FDI의 특징과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Doing Business Index를 중심으로 아세안 지역의 비즈니스 여건을 살펴보았다. 이제 제4장에서는 아세안 역외 지역에서 아세안으로 들어오는 FDI 결정요인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 국가는 아세안 10개국이다. 아세안의 외국인투자 유치와 관련된 데이터는 세계은행에서 발행하는 Ease of Doing Business Index 2016년도 변수들을 활용하였고 그밖에 Dunning의 절충이론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장추구형, 자원추구형, 효율성 추구형 변수들을 취합하였다. 또한 지식-자본모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요소들까지 취합하여 가급적 선행연구에서 활용하는 대부분의 변수들을 분석에서 다루고자 하였다. 이렇게 선행연구에서 다룬 대부분의 변수들을 사용한 이유는 아세안 10개국의 FDI 관련 변수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급적 많은 변수를 선택하고 이 중에서 아세안 10개국에 대한 통계자료가 확보 가능한 변수들을 사용하기 위함이었다. 아세안 회원국의 경우, 싱가포르와 같이 경제 및 제도적으로 잘 발달된 국가의 경우 상

표 4-1. FDI 결정요인 변수(Ease of Doing Business Index)

변수명	변수 설명	평균	표준편차
Starting a Business: Procedures	창업 절차	10.85	4.26
Starting a Business: Time	창업 소요시간	60	41.88
Paying Taxes: Payments	세금 납부 횟수(연간)	31.56	15.22
Trading Ac. Borders: Time to export	국제교역 수출소요시간	20.23	10
Trading Ac. Borders: Time to import	국제교역 수입소요시간	20.66	12.42
Enforcing Contracts: Time	계약이행 소요시간(일)	495.01	204
Enforcing Contracts: Cost	계약이행 비용	48.21	40.39
Resolving Insolvency: Recovery rate	도산처리 채권회수율	32.90	27.06

자료: World Bank, *Doing Busines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6. 9. 13).

기 데이터들을 확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으나 저소득 국가들의 경우에는 모든 데이터들을 확보하기가 여전히 어려웠다. [표 4-1]은 상기 언급한 변수들 중에서 아세안 국가들을 대상으로 확보가 가능한 변수들만을 정리한 것이다.

표 4-2. FDI 결정요인 변수(기타 요인)

변수명	변수 설명	범주	평균	표준편차
GDP Growth	GDP 성장률	경제 규모	5.62	3.26
GDP per capita	1인당 GDP	시장 규모	9,794	15,418
Fixed telephone subscriptions	100명당 전화회선수 (인구 100명당)	인프라	11.79	11.37
Internet users	인터넷 사용자수 (인구 100명당)	인프라	25.20	24.19
Consumer price index	물가 (CPI 증가율. 2010년 = 100)	거시경제	5.51	6.19
Official exchange rate	환율(LCU per US$)	거시경제	4,094	5,946
Exports of goods and services	재화 및 서비스 수출 (% of GDP)	무역	73.80	52.62
Trade	무역개방도(% of GDP)	무역	140.08	96.76
Enrollment Rate In Secondary School	중등학교 진학률(%)	요소부존도	0.64	0.17
Human Development Index	인간개발지수	요소부존도	0.66	0.13
Labor force	노동력	요소부존도	29,357,220	33,046,512

자료: World Bank; IMD World Competitiveness; ADB(검색일: 2016. 9. 13)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2. 모델 결과

이 연구에서는 우선 앞서 취합한 모든 변수들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3]은 설명된 총분산을 나타낸다. 추출된 5개의 고유치(eigenvalue)는 각각 51.461, 15.698, 11.916, 7.501, 5.912로서 이

표 4-3. 설명된 총분산

성분	초기고유값			추출제곱합적재값			회전제곱합적재값		
	합계	%분산	%누적	합계	%분산	%누적	합계	%분산	%누적
1	9.263	51.461	51.461	9.263	51.461	51.461	5.083	28.239	28.239
2	2.826	15.698	67.159	2.826	15.698	67.159	4.685	26.028	54.266
3	2.145	11.916	79.075	2.145	11.916	79.075	2.875	15.971	70.237
4	1.35	7.501	86.576	1.35	7.501	86.576	2.789	15.495	85.732
5	1.064	5.912	92.487	1.064	5.912	92.487	1.216	6.755	92.487
6	0.766	4.255	96.743						
7	0.346	1.923	98.665						
8	0.143	0.792	99.457						
9	0.098	0.543	100						
10	4.40E-16	2.44E-15	100						
11	2.70E-16	1.50E-15	100						
12	1.72E-16	9.56E-16	100						
13	1.10E-16	6.12E-16	100						
14	1.06E-16	5.88E-16	100						
15	-2.54E-18	-1.41E-17	100						
16	-1.07E-16	-5.95E-16	100						
17	-1.38E-16	-7.64E-16	100						
18	-3.12E-16	-1.73E-15	100						

주: 요인 추출 방법: 주성분분석.

것은 요인 추출 기준으로 지정한 고유치 1이상인 요인만 추출된 것을 의미한다. 고유치는 그 요인이 설명하는 분산의 양을 나타내므로 이 값이 큰 요인이 중요한 요인이 된다.

5개의 요인 중에서 아세안 국가로의 외국인투자 유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1은 51.461%, 요인2는 15.698%, 요인3은 11.916%, 요인4는 7.501% 그리고 요인5는 5.912를 설명하고 있다. [표 4-4]는 요인 분석을 통해서 얻은 성분행렬이다.

앞서 실행한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 추출된 5개의 요인을 새로운 독립변수로 해서 아세안으로의 FDI 유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중회귀분석을

표 4-4. 회전된 성분행렬*

변수	성분				
	1	2	3	4	5
GDP성장률	**-0.945**	0.036	-0.06	0.028	-0.217
인간개발지수	**0.833**	0.504	-0.073	-0.164	0.045
물가	**-0.813**	-0.129	0.195	0.267	-0.057
중등학교 진학률	**0.797**	0.412	0.061	0.204	0.038
1인당 GDP	**0.72**	0.332	-0.368	-0.176	-0.108
인터넷 사용자수	**0.629**	0.607	-0.331	-0.236	-0.078
창업 소요시간	0.064	**-0.892**	0.106	0.224	-0.062
수출소요시간	-0.332	**-0.888**	-0.199	0.123	-0.011
수입소요시간	-0.485	**-0.86**	0.044	0.014	-0.1
채권회수율	0.511	**0.628**	-0.199	-0.41	0.208
노동력	-0.109	0.005	**0.976**	0.007	0.081
환율변동성	0.027	0.042	**0.883**	0.153	0.051
세금 납부 횟수	-0.314	-0.475	**0.71**	0.232	-0.21
계약이행 소요시간	-3.94E-01	-6.00E-03	0.083	**0.895**	0.093
창업 절차	3.44E-01	-3.72E-01	0.093	**0.84**	-0.085
무역개방도	3.11E-01	5.81E-01	-0.332	**-0.635**	-0.197
재화 및 서비스 수출	4.08E-01	5.79E-01	-0.349	**-0.58**	-0.167
100명당 전화회선수	1.53E-01	8.20E-02	0.057	0.07	**0.976**

주: 1) 요인추출방법: 주성분분석.
2) 회전 방법: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멕스.
3) * 7반복계산에서 요인회전이 수렴.

실시하였다. 많은 변수들을 5개의 요인으로 묶어서 중회귀분석을 실시하면 보다 차원 높고 의미 있는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다.[30] 본 연구에서는 각 요인들을 도출하기 위해서 각 요인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변수들이 서로 독립적이라는 다소 강한 가정을 하고 있다. [표 4-6]은 5개의 요인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표에서 보는 것처럼 요인2과 요인4의 회귀계수는 유의하나 요인1, 요인3, 요인5의 회귀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따라서 요인2와 요인4만을 가

30) 변수들이 상호 독립적이라는 가정하에 모델의 회전 방법은 베리멕스 회전법을 사용함.

표 4-5. 모형 요약

모형	R	R제곱	수정된R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1	.898	.806	.751	5892.27741

주: 예측값: (상수), REGR factor score 4 for analysis 1, REGR factor score 2 for analysis 1.

표 4-6. 계수 1

모형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오류	베타		
(상수)	7806.398	2022.406		3.86	0.018
REGR factor score 1 for analysis 1	2314.57	2131.803	0.196	1.086	0.339
REGR factor score 2 for analysis 1	8091.364	2131.803	0.686	3.796	0.019
REGR factor score 3 for analysis 1	19.435	2131.803	0.002	0.009	0.993
REGR factor score 4 for analysis 1	-6837.08	2131.803	-0.579	-3.207	0.033
REGR factor score 5 for analysis 1	-1862.17	2131.803	-0.158	-0.874	0.432

주: 종속변수: World -> ASEAN FDI(million US$).

표 4-7. 분산분석과 계수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회귀모형	1.010E9	2	5.050E8	14.545	.003[a]
잔차	2.430E8	7	3.472E7		
합계	1.253E9	9			

주: 1) 예측값: (상수), REGR factor score 4 for analysis 1, REGR factor score 2 for analysis 1.
2) 종속변수: World FDI(million US$).

지고 아세안으로의 외국인투자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대해서 회귀분석을 하였다.

[표 4-7]은 요인2와 요인4가 아세안 국가들의 외국인투자 유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표 4-8]에서 보듯이 요인2의 회귀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유의확률 = 0.004 < 0.05)하며, 요인4의 회귀계수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유

표 4-8. 계수 2

모형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오류	베타		
(상수)	7806.398	1863.302		4.19	0.004
REGR factor score 2 for analysis 1	8091.364	1964.092	0.686	4.12	0.004
REGR factor score 4 for analysis 1	-6837.08	1964.092	-0.579	-3.481	0.01

주: 종속변수: World FDI(million US$).

의확률 = 0.01 〈0.05)함을 알 수 있다. [표 4-5]에서 보듯이 이 회귀식의 결정계수 R^2값은 0.806으로서 두 개의 요인이 총변동의 80.6%를 설명하고 있다.

요인2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은 창업소요시간(Starting a Business: Time), 수출소요시간(Trading Ac. Borders: Time to export), 수입소요시간(Trading Ac. Borders: Time to import), 채권회수율(Resolving Insolvency: Recovery rate)이며, 요인 4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은 계약이행소요시간(Enforcing Contracts: Time), 창업절차(Starting a Business: Procedures), 무역개방도(Trade), 재화 및 서비스 수출(Exports of goods and services)이다.

요인2를 구성하고 있는 변수들의 성격을 보면 세계은행의 규제 관련 doing business index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 요인4를 구성하고 있는 변수들은 세계은행의 규제 관련 doing business index와 기존 연구의 시장추구형 FDI 요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분석 결과의 회귀식은 다음과 같이 표기할 수 있다.

$$Y = 7{,}806 + 8{,}091F_1 - 6{,}837F_2$$

여기서 Y=아세안으로의 FDI

F_1=요인2(Doing Business Index)

F_2=요인4(DBI-market seeking)

결론적으로 아세안 국가들의 FDI 유입에 있어서 요인2인 Doing Business Index 요인과 요인4인 DBI-시장추구형 요소가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아세안 역외국가에서 아세안 10개 국가로 유입되는 외국인투자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은 starting a business: time(창업을 하는 데 걸리는 시간), time to export and import(수출입에 소요되는 시간) Resolving Insolvency: Recovery rate(도산기업의 채권회수율)인 것이 확인되었다. 특히 본 연구의 결과는 아세안 역외에서 아세안 국가들로의 외자유입은 세계은행에서 발표하고 있는 이 지표들, 즉 시장 진입 관련 규제가 적고 시장접근성이 용이해야 함을 확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두 번째 요인으로 분류되었던 Doing Business-market seeking형 변수군은 Enforcing contract: time(계약이행에 소요되는 시간), Starting a business: procedures(창업에 소요되는 절차), trade: % of GDP(개방도), Exports of Goods and Services(수출 진흥정책) 등으로 규제요인과 시장지향적 요인이 함께 중요한 외자 유치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도출해낸 요인2와 요인4가 아세안 역외지역에서 아세안 국가로 들어오는 FDI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이었다. 그러나 앞서 언급된 같은 요인들이 아세안 역내국가간 투자액에도 같은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아세안 역내국가간 FDI 금액을 종속변수로 해서 다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식은 분산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유의확률=0.139 〉 0.05). 뿐만 아니라 DBI-resource seeking의 회귀계수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며(유의확률 = 0.221 〉 0.05), DBI-market seeking의 회귀계수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유의확률 0.104 〉 0.05).

이러한 상이한 분석 결과가 도출된 원인의 하나로 아세안 역내국간 투자는 역외국이 경험하는 것보다 규제적 요인의 영향을 덜 받았을 가능성을 꼽을 수 있다.[31] 아세안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 출범에 따라 역

31) AEC 청사진 2007은 단일시장 및 단일생산기반 구축, 경쟁력을 보유한 경제지역, 균형경제발전, 세계

내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관세를 비롯한 규제를 철폐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곽성일, 김제국(2016)은 AEC 출범 이후에도 제도 개선을 통한 경제통합 노력의 지속은 향후 역내 판매 및 투자 증가, 노동력 증가 등 기초 경제여건을 개선시킬 것임을 전망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AEC 청사진에 따라 아세안은 2015년 아세안-6의 경우 99.2%, CLMV(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는 90.8%의 수입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를 단행하였다.[32] 또한 아세안(5)는 2010년, 필리핀은 2012년, 후발 아세안국은 2015~18년까지 모든 비관세장벽을 제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33]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도출해낸 Doing Business Index 요인과 DBI-

표 4-9. 분산분석과 계수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1	회귀모형	8619313.021	2	4309657	2.648	.139[a]
	잔차	1.14E+07	7	1627460		
	합계	2.00E+07	9			

주: 1) 예측값: (상수), REGR factor score 4 for analysis 1, REGR factor score 2 for analysis 1.
2) 종속변수: Intra-ASEAN FDI(million US$).

〈계수[a]〉

모형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오류	베타		
1	(상수)	1174.498	403.418		2.911	0.023
	REGR factor score 2 for analysis 1	571.834	425.24	0.383	1.345	0.221
	REGR factor score 4 for analysis 1	-794.171	425.24	-0.533	-1.868	0.104

주: 1) 종속변수: Intra-ASEAN FDI(million US$).

경제로의 통합이라는 4대 추진축에 기반한 것이다. AEC 청사진 2007 주요 행동조치에는 역내 관세 철폐, 역내 비관세장벽 철폐, 역내 인프라 연계성 확대, 역내 무역 원활화, 역내 서비스무역 자유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곽성일, 김제국(2016), pp. 5~6.

32) 곽성일, 김제국(2016), p. 6.

33) 위와 동일.

market seeking 요인은 아세안 역외국가에서 아세안 국가들로 들어오는 FDI에만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앞의 탐색적 요인 분석에서 요인2는 세계은행이 발표하고 있는 규제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요인4 역시 세계은행이 발표하고 있는 규제요인과 함께 시장추구형 요인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았다. 여기에서 각 요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변수들은 서로 관련이 없다고 가정하였다. 그러나 요인2과 4의 경우 서로 관련이 있다는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실제 두 개의 요인들이 서로 배타적인 관계가 있는 개념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림 4-1]과 같은 검증적 요인 분석을 위한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 화살표 위

표 4-10. 인과계수(Regression Weights)

			Estimate	S.E.	C.R.	P
채권회수율	〈---	Doing Business	1			
수입소요시간	〈---	Doing Business	-0.497	0.13	-3.836	***
수출소요시간	〈---	Doing Business	-0.383	0.105	-3.645	***
창업 소요시간	〈---	Doing Business	-1.379	0.503	-2.744	0.006
재화 및 서비스 수출	〈---	DB-market	1			
무역개방도	〈---	DB-market	47.899	16.31	2.937	0.003
창업 절차	〈---	DB-market	-1.605	0.768	-2.091	0.037
계약이행 소요시간	〈---	DB-market	-161.432	38.871	-4.153	***

자료: 저자 작성.

표 4-11. 표준화된 인과계수(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s)

			Estimate
채권회수율	〈---	Doing Business	0.804
수입소요시간	〈---	Doing Business	-0.987
수출소요시간	〈---	Doing Business	-0.947
창업 소요시간	〈---	Doing Business	-0.785
재화 및 서비스 수출	〈---	DB-market	0.867
무역개방도	〈---	DB-market	0.772
창업 절차	〈---	DB-market	-0.613
계약이행 소요시간	〈---	DB-market	-0.9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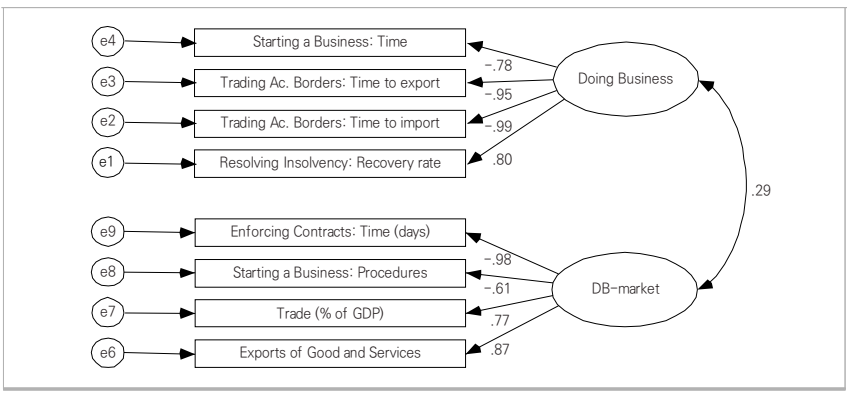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의 값들은 검증적 요인 분석의 결과이며 이 수치들은 표준화된 인과계수들이다. 모델의 인과계수(Estimate), 표준오차(S.E), 검정통계량(C.R) 등을 검토한 결과 인과계수들 모두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우리는 [그림 4-1]에서 표준화된 인과계수(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s)의 절대값의 대소나 부호를 보면서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세계은행의 경영환경에 대한 규제요인으로 구성된 Doing Business 요인들 중에서는 수입에 걸리는 시간(time to import) 요인이 -0.99로 외자 유치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며, 그 다음으로 수출에 걸리는 시간이 -0.95로 두 번째로 영향력 있는 변수로 판명되었다. 이 두 변수들은 수출이나 수입에 걸리는 시간이 짧을수록 세계은행 Doing Business상의 규제가 낮은 것으로 해석되며, 이는 다시 외국인투자에 보다 더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울러 창업에 걸리는 시간요인이 -0.78로 이 역시 시간이 덜 걸릴수록 투자를 위한 규제가 낮은 것으로 해석되며, 이 역시 '-' 관계에 있으므로 이 값이 낮을수록 아세안 국가로의 외국인투자 유치가 더 유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파산 후 채권회수율이 0.80으로 이 역시 Doing Bisiness Index 매개변수와 양의 상관관계에 있으므로 회수율이 높을수록 외국인투자 여건은 유리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4-1. 검증적 요인 분석 결과



자료: 저자 작성.

세계은행의 경영환경에 대한 규제요인인 DBI와 시장추구형 요인으로 구성된 DBI-market seeking 요인들 중에서는 계약이행에 걸리는 기간(enforcing contract time: days)요인이 -0.98로 Doing Business-Market 매개변수 중에서는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며, 이 변수 역시 '-'값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기간이 짧을수록 Doing Bisiness-Market 매개변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Exports of Goods and Services 변수(0.87)는 수출 지향적 정책으로 해석될 수 있는 변수로 아세안 국가들 중에서 수출을 위한 기반산업과 서비스 공급이 원활한 국가들의 경우 외국인투자 유치에 긍정적으로 작용함을 의미한다. 그밖에 trade 변수(0.77)는 개방도를 나타내는 변수로 개방도가 높을수록 Doing Business-Market 매개변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외국인투자 유치에도 유리하게 작용한다. 마지막으로 창업 관련 절차 역시 적을수록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규제가 낮게 작용하고 이 역시 외국인투자 유치에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그림 4-1]에서 Doing Business 매개 변수와 Doing Business-Market 매개변수 간의 양방향 화살표에 있는 수치 0.29는 두 매개변수의 상관계수이다. 즉, 두 변수간에는 낮은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3. 아세안 FDI 유입 결정요인 분석 결과에 따른 국가별 비교

다음에서는 앞서 분석한 아세안 국가들로의 FDI 유입 결정요인 분석을 토대로 아세안 10개 국가들의 FDI 유치를 위한 환경을 비교하고자 한다. 우선 앞서 분석된 요인2와 요인4의 그룹에 속하는 요인들만을 뽑아서 [표 4-12]를 작성하였다.

표 4-12. 비즈니스서비스 산업의 FDI 결정요인과 국가별 지표

국가	인터넷사용자수	수입소요시간	채권회수율	창업소요시간	수출소요시간
브루나이	47.52	17.63	46.73	113	23.75
라오스	5.62	40.33	0	99.91	37.89
말레이시아	54.06	9.56	41.48	23.64	12.56
캄보디아	2.75	33.78	11.09	96.36	27.67
미얀마	1.41	27	13.7	76	25
필리핀	17.45	15.78	5.87	42.45	15.89
싱가포르	68.14	4	89.7	4.45	6
태국	20.57	15.11	49.62	32.41	16.56
인도네시아	8.65	26.11	23.13	99.14	18.44
베트남	25.84	21.89	17.75	40.36	22.67

국가	계약이행시간	무역개방도	재화 및 서비스 수출	창업절차
브루나이	540	105.07	74.04	19.5
라오스	454.64	79.64	35.12	9.27
말레이시아	549.55	173.71	95.45	8.82
캄보디아	428.27	126.74	60.24	10.82
미얀마	1160	0.33	0.18	14
필리핀	856.55	79.26	37.93	16.82
싱가포르	138.91	388.96	207.88	4.55
태국	471.91	131.12	67.65	8.09
인도네시아	495.55	53.03	27.83	11.84
베트남	411.09	146.5	70.34	9.73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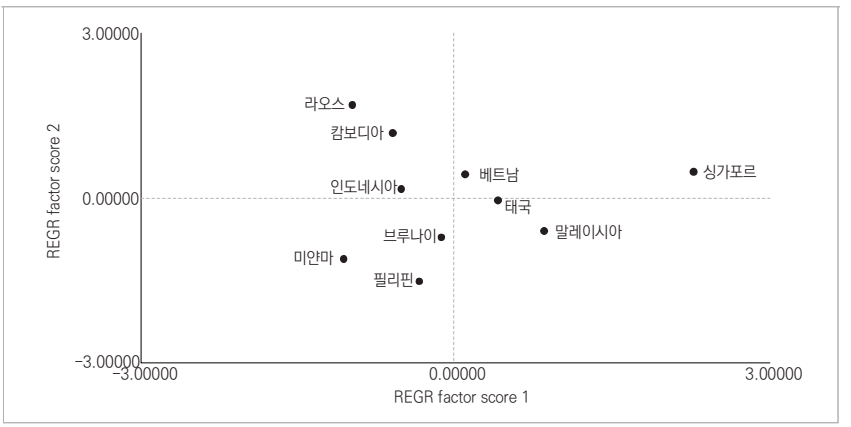
아세안으로의 FDI 유입 결정요인들 중에서 아세안 10개 국가들이 각각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다음 그림의 제2주성분 계수는 앞서 분석했던 바와 같이 Doing Business Index로 구성된 규제 관련 요소를 담고 있고, 제4주성분 역시 규제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나 동시에 market seeking 요소의 성질을 포함하고 있다. 각각의 주성분의 값은 고유벡터가 아니라 인자부하량(factor

loading) 값이다. 다음 [그림 4-2]는 아세안 10개국의 FDI 유입 요인들 값을 (x, y)의 좌표로 간주하여 2차원 평면상에 나타낸 것이다. 이 그림으로부터 관측변량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볼 수 있다.

[그림 4-2]에서 Y축은 DBI-market seeking을 나타내는 제2주성분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X축은 DBI-Index만을 나타내는 제1주성분 값이다. Y값이 클수록 resource seeking형 제도적 선진화가 이루어진 나라이며, X축의 값이 클수록 규제가 없고 FDI 투자 환경이 더 발달된 나라이다. [그림 4-2]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규제 관련 요인을 나타내는 제1주성분을 보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이 여타 아세안 국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주성분분석을 통해 추정된 각각의 요인과 아세안 FDI 간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들 요인과 FDI 간 상관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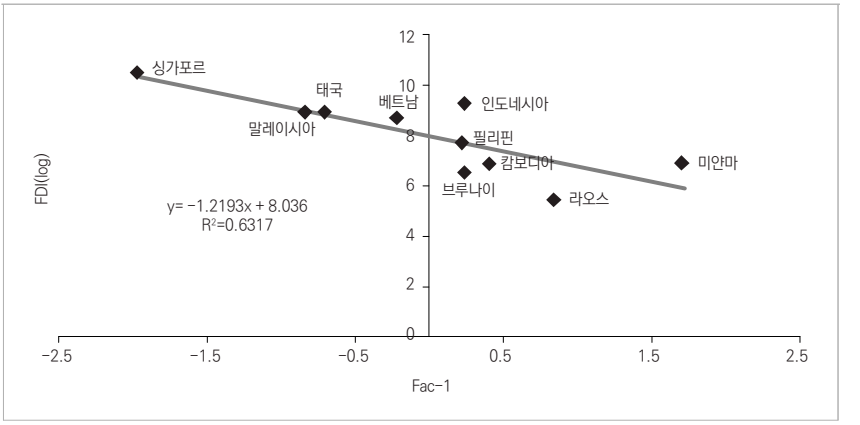
[그림 4-3]과 [그림 4-4]는 제1주성분값(DBI-Index 요인)과 제2주성분값(DBI-market seeking 요인)이 아세안 국가들의 FDI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나타내는 그림이다. 먼저 [그림 4-3]은 아세안 국가별 유입 FDI 금액과 Doing Business Index로 구성된 규제 관련 요인(제1주성분값) 간의 관계를

그림 4-2. 아세안 국가들의 FDI 유입 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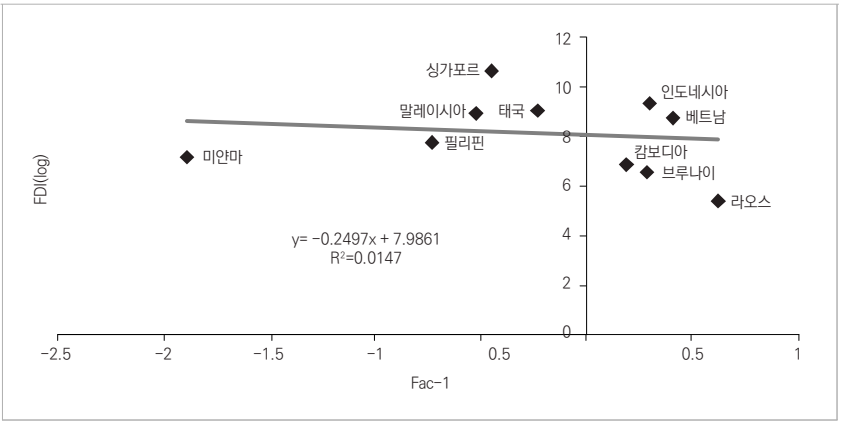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그림 4-3. FDI(log)와 DBI-Index요인(제1주성분) 간 상관관계(2003~14년)



자료: 저자 작성.

그림 4-4. FDI(log)와 DBI-market seeking요인(제2주성분) 간 상관관계(2003~14년)



자료: 저자 작성.

나타내고, [그림 4-4]는 아세안 국가별 FDI 유입 금액과 market seeking 요소의 관계(제2주성분값) 간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아세안 국가는 비즈니스 여건이 우월한 국가에 FDI가 많이 유치되는 강한 음의 상관관계[34]를 보여 아세안 FDI에 있어 비즈니스 여건이 주

요 요인으로 도출된 반면, market seeking의 경우 비즈니스 여건을 나타내는 규제 관련 요인에 비해 뚜렷한 관계를 보이지는 않았다. 실제 아세안 국가의 경우 창업, 수출 및 수입 시간, 도산율 등의 평가지표에서 국가간 비즈니스 여건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창업 소요일(2013~15년 평균)의 경우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2.5일 및 8.3일에 불과한 반면, 미얀마와 캄보디아는 각각 76일 및 101.3일이나 소요되었다. 수출 및 수입에 소요되는 시간에서도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평균적으로 각각 6일 및 11일을 보였으나 캄보디아와 미얀마는 각각 22일 및 23.3일로 나타났다. 이를 아세안 국가에 유입된 FDI와 연계해서 살펴보면, 각국의 비즈니스 여건을 반영하듯 FDI도 대부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에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FDI가 유입되는 특징을 보였다.

34) 제1주성분값이 음의 값을 보일수록 비즈니스 여건이 우월한 것을 나타냄.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상대적으로 견고한 경제성장을 유지한 동아시아는 세계경제의 성장을 이끄는 주요 경제권으로 각광을 받았다. 동아시아 경제권의 역내 경제협력, 경제자유화 논의는 RCEP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아세안은 2015년 말 아세안경제공동체를 출범시키는 등 내부적 단일시장, 단일생산기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동시에 아세안 중심주의(ASEAN Centrality)를 내세우며 RCEP 협상을 주도하고 있다. 또한 아세안의 경제성장 전망에 대한 기대감과 AEC를 통한 역내 및 역외 간 교역 · 투자 증진을 바탕으로 교역과 FDI 모두 견고한 증가 추세를 시현하였다. 아세안 FDI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stock 기준)은 2004년 3.5%에서 2014년 6.8%로 증가하였다. 특히 아세안의 2000년대 주요 투자국별 FDI 현황을 살펴보면 일본이 단일국 기준으로 아세안 최대 투자국의 위상을 유지하는 가운데 아세안 역내국, 중국, 한국, 호주, 인도 등 RCEP 참여국의 비중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세안은 동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도 큰 한국의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이다. 아세안은 한국의 제2대 해외투자 지역이자 중국에 이은 한국의 제2대 교역 대상지역이며 제1대 해외 방문지이다. 특히 최근 사드 배치로 인해 한국의 대중국 통상 및 현지 진출 기업의 애로사항이 증대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높은 중국경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 무역 및 투자의 다변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아세안은 중국보다 인건비 등이 저렴하고, 베트남 등 경제자유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어 중국의 대안 투자 및 시장 후보지로서 각광받고 있는 지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세안 FDI의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하

고 있는 아세안의 FDI 유형 및 특징을 살펴본 후 그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한 · 아세안 경제협력을 보다 심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우선 국제경제학계에서 이론적 혹은 실증적으로 논의되어온 FDI 결정요인을 검토한 후 아세안 FDI 현황과 아세안 소득군별 FDI의 특징 및 비즈니스 여건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공분산구조분석을 이용하여 아세안 FDI 유입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FDI 결정요인의 대표적 이론적 틀인 Dunning의 절충이론과 Markusen and Venables(1998)의 지식-자본모형(knowledge-capital model)의 이론적 · 실증적 함의 및 한계에 대해 살펴봤다. Dunning은 절충이론을 토대로 FDI를 시장추구형, 자원추구형, 효율추구형으로 분류하였고, 지식-자본모형(knowledge-capital model)에서는 FDI의 주요 결정요인을 수평적 혹은 수직적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수평적 FDI는 일반적으로 경제 규모와 요소부존도가 유사한 국가간 상대국 시장 확대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FDI 유형으로 Dunning의 시장추구형 FDI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수직적 FDI는 경제 규모와 요소부존도가 상이한 국가간 제품 생산에 따른 제반비용을 최소화시켜 본국 또는 제3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FDI 유형으로 Dunning의 자원추구형 FDI와 성격을 같이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FDI의 결정요인을 이론적으로 규명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있었으나, FDI의 주요 결정요인에 관해서는 연구자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어 여전히 실증분석을 뒷받침할 수 있는 포괄적인 차원의 이론적 모형은 없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선진국과 후진국 간 FDI 결정요인의 이질성을 규제 등과 같은 제도적 변수를 통해 설명하려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아세안 FDI 유입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아세안을 1인당 GDP 기준으로 3개의 국가군으로 구분하여 소득군별 아세안 FDI 유입 특징과 비즈니스 여건을 살펴보았다. 보다 객관적인 분석을 위해 제2장에서 검토한 Dunning의 절충이론을 토대로 한 시장추구형, 자원추구형, 효율추구형 구분과

Markusen and Venables(1998)의 지식-자본 모형에 입각한 수평적, 수직적 FDI 구분 기준을 차용하였다. 분석 결과 아세안에서 상위소득군에 속하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가운데서도 싱가포르만이 수평적 FDI의 특징을 보였으며, 말레이시아와 태국은 자국의 경제 규모와 요소부존도가 상이한 일본, 싱가포르, 미국, EU 등 선진국으로부터의 FDI가 많은 수직적 FDI 유형이 우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일례로 말레이시아와 태국에는 일본 제조기업, 베트남에는 한국 제조기업의 생산기지 이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캄보디아, 라오스 및 미얀마 국가들 또한 섬유산업과 같은 노동집약적 제조업과 함께 지리적으로 가까운 태국과 인건비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인도네시아, 베트남의 기존 생산기지를 보완하기 위한 생산시설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이 수직적 FDI 유형이 우세한 것으로 판단되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과 같이 인구와 경제 규모가 크면서 아세안 상위소득군에 속하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점차 시장추구형 FDI가 확대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세안 전체 FDI 산업별 유입 비중의 2004~06년 평균과 2013~15년 평균을 비교한 결과에서도 시장추구형 FDI 특성이 강한 서비스업의 비중이 58.8%에서 64.7%로 확대되었다.

한편 아세안 각국의 비즈니스 여건을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창업, 계약이행, 재산권 등록 및 무역환경 등 대부분의 평가지표에서 국가간 비즈니스 여건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즉 아세안 10개국 중 FDI가 집중되고 있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의 비즈니스 여건은 여타 국가에 비해 매우 유리한 반면, FDI 비중이 미미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의 여건은 비교적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평가항목 중 계약이행 소요일, 채권회수율 및 수출 및 수입에 소요되는 시간 등의 요인과 FDI는 서로 높은 상관계수를 보였다. 특히 아세안 각국의 비즈니스 여건과 FDI 간에는 뚜렷한 양의 선형관계가 나타나 비즈니스 여건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국가에 많은 FDI가 유입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제4장에서는 공분산구조분석 모형을 활용하여 2003~14년 기간 아세안 10개국의 FDI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성분분석 결과 창업에 필요한 시간, 수출입에 걸리는 시간, 도산율 등 4개 변수로 이루어진 제1요인과 계약, 창업절차, 교역개방도, 수출개방도 등 4개 변수로 구성된 제2요인이 대아세안 투자에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1주성분 가운데서는 수입과 수출에 걸리는 시간요인이 각각 -0.99와 -0.95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2요인 가운데서는 계약이행에 걸리는 기간요인이 -0.98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수출진흥정책(Exports of Goods and Services) 변수와 개방도(Openness) 순으로 각각 0.87과 0.77의 양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 두 요인들과 아세안 역내 FDI 간 회귀분석 결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로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규제 등 무역자유화와 관련한 요인들은 역외국가의 대아세안 FDI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다음 절에서는 한국의 대아세안 FDI 활성화를 통한 상호 호혜적 경제성장동력 창출의 측면에서 우리 기업의 아세안 진출과 우리 정부의 통상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2. 정책적 시사점

한국 제2대 투자국인 아세안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성공적인 아세안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아세안 FDI의 특성과 비즈니스 여건, 아세안 FDI 유입의 결정요인에 대한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싱가포르를 제외한 대부분의 아세안 국가에서는 수직적 · 자원추

구형 FDI 유형의 특성이 지배적인 한편 시장추구형 FDI가 아세안 중소득국가를 중심으로 수직적 FDI의 특성과 함께 나타나기 시작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단일시장 · 단일생산기지를 이루고자 하는 아세안의 노력과 아세안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제4장의 실증분석에서는 20개의 제도적 변수 가운데 수출입에 걸리는 시간, 창업에 필요한 시간, 파산 후 채권회수율로 이루어진 제1주성분과 계약이행에 걸리는 시간, 수출지향적 정책, 개방도, 창업절차로 이루어진 제2주성분이 아세안 역외지역으로부터의 FDI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아세안 진출 전략과 우리 정부의 통상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가. 기업 진출에 대한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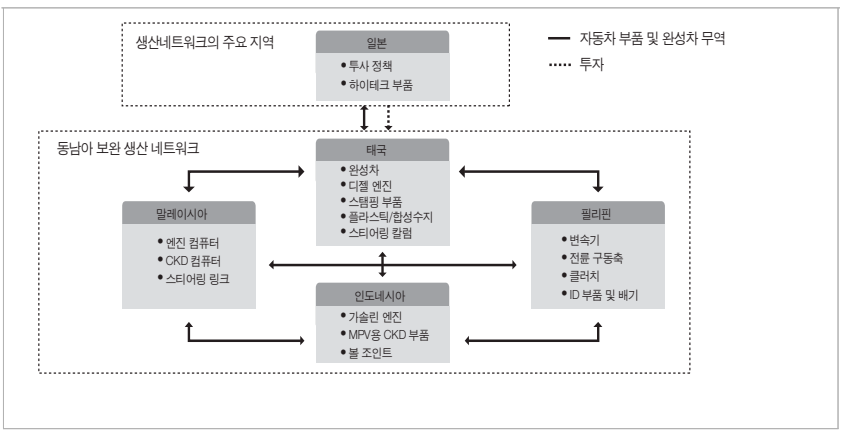
1) 아세안 생산네트워크의 연계성 강화 및 전략적 활용

제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세안은 중국 대비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역외국으로부터의 FDI를 통해 글로벌 생산기지로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아울러 아세안은 아세안경제공동체의 형성과 RCEP 협상을 계기로 GVC 참여 기회를 더욱 확대하고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Maguire(2015, p. 5)는 향후 10~15년 내 아세안경제공동체가 세 그룹의 소지역 경제권을 형성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첫째는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로 구성된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다른 두 그룹을 뒷받침하는 노동집약적 생산기지인 메콩 선도국가(The Mekong Frontier)군, 둘째는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으로 구성된 비용 대비 고효율의 강점을 가진 중간제조업 경쟁국가군, 셋째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로 구성된 아세안 고부가가치 산업과 금융 · 기술허브인 고소득 경제국가군이다. 아세안 경제공동체가 심화됨에 따라 세 그룹의 소지역 경제권은 상호보완적으로 기능할 것으로 전망된

다. 제3장에서 확인했듯이 아세안은 이미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한 메콩선도국가군이 중간제조업 국가군의 역내 FDI를 통해 생산기지를 구축하여 역내 부품을 공급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아세안 국가들은 역내 제도적 협력과 역외국으로부터의 FDI 등을 통한 경영여건, 산업경쟁력 및 수출입 구조의 변화 등에 직면해 있다. 이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RCEP와 AEC 등 아세안을 둘러싼 새로운 통상환경 아래 아세안 진출 전략을 재모색할 필요가 있다. 먼저 대아세안 투자 진출을 결정할 때 아세안 각국의 역내 비교우위를 고려하여 생산, 유통, 조달, A/S, R&D 등 생산 프로세스를 전략적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다(KOTRA 2015, p. 43). 한국의 대아세안 FDI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이미 한국기업은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 아세안 각국에 진출해 있다. 한국의 아세안 투자진출 기업간 유기적인 분업과 협력은 상호 시너지효과를 줄 것으로 보인다.[35] 이와 관련하여 아

그림 5-1. 일본 자동차 산업의 아세안 생산네트워크 구조



자료: ASEAN · UNCTAD(2014), p. 96.

35) 실제 베트남 하노이 진출 한국기업의 면담에서 대부분의 기업이 아세안 진출 한국기업간 유기적 분업과 협력,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베트남 하노이 진출 한국기업 관계자 면담(2017. 2. 27~28).

세안 주요 투자국 가운데 우리나라와 같이 대아세안 제조업 투자 비중이 높은 일본의 사례는 우리 기업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일본은 AEC 출범을 고려하여 [그림 5-1]과 같이 아세안에 대한 장기적 전략 아래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중심으로 자동차, 전기·전자산업에서 아세안 역내 제조업 생산기지를 확보한 바 있다. 또한 한국의 대아세안 FDI에서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업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서비스산업의 전략적인 진출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아세안 국가별 통상정책 및 제도적 변화에 효율적 대응

새로운 통상환경 속에서 아세안의 글로벌 생산기지 변화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함께 아세안의 국가별 통상정책, 산업정책 및 제도적 변화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아세안은 소득과 기술 수준의 격차가 큰 국가들로 구성된 경

표 5-1. 아세안 중소득 이상 국가군의 수요 전망

	인니	태국	말레이	싱가포르	베트남
인프라	아시아횡단철도(TAR), 아세안 고속도로(AH) 아세안 물류, 교통망 연결 전력 등 인프라 사업				
	해상물류망 철강	재생에너지	싱가포르-KL 연결 고속철사업		철강
제조업	자동차, 전자 - 말레이: 자동차(Proton, Perodua), 가전 - 인니/태국: 글로벌 조립 자동차, 항공기부품 - 태국: 역내 자동차 부품, IT			친환경 의료기기	전기전자 오토바이
농업, 식품 바이오	팜오일, 커피, 쌀, 고무, 설탕, 코코아 등		팜오일, 고무	미래농업, 바이오	쌀
금융 유통 서비스	소비유통	아세안 물류허브 글로벌제조생산기지	Air Asia 항공운송	글로벌 금융허브	글로벌 수출가공 거점
기타	석유화학	의료관광	제약	아세안 경제통합 리더역할	섬유 (임가공)

자료: 박준홍(2015), pp. 8~9.

제공동체이다. 또한 제3장에서 확인하였듯이 아세안 FDI는 소득군별로 선진국형 FDI와 후발주자형 FDI로 구분이 가능하며, 비즈니스 환경도 소득군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제4장의 분석 결과 비즈니스 여건은 아세안 FDI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아세안 국가들은 각국의 FDI 유형, 기술 · 자원 · 인적 여건, 지리적 위치 등을 고려하여 차별적인 산업 유치정책, 통상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례로 아세안 10개국은 RCEP 협상에는 모두 참여하는 반면 TPP에는 아세안 국가들 가운데 6개국만이 참여하였다. 말레이시아와 태국은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정책을 통해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고자 하고 있으며, 베트남은 부품소재산업 육성정책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꾀하고 있다.

결국 한국기업들은 급변하는 아세안 국가들의 분업체계와 산업 구조조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효율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3) 현지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진출 모색

제3장 및 제4장에서 도출된 바와 같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일부 아세안 고소득국가군을 제외한 여타 아세안 국가의 비즈니스 여건은 아직 크게 미흡한 수준을 보였고, 이는 아세안 FDI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을 제외한 여타 아세안 국가의 경우 투자 불확실성이 크고, 관련 정책 및 제도적 투명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현지 상관행과 문화의 차이로 인하여 현지 시장 진출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아세안 현지 진출 시 외국기업이 직면할 수밖에 없는 불리한 여건을 최소화하는 방편 중 하나로 현지 여건 및 관련 업계 특성에 정통한 현지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들 수 있다. 이 방법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경우 현지 진출에 따른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줄여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KOTRA는 전략적 제휴를 통해 성공적으로 아세안에 진출한 일본기업의 사례를 예로 들면서 투자 파트너를 선정할 때 회사 규모나 브랜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작지만 해

당 분야에서 영향력이 있는 기업을 선택해 신뢰관계를 구축하기를 제안한 바 있다.[36]

일례로 한국 중소 바이오전문기업인 ㈜성운파마코피아가 2015년 인도네시아 국영제약사인 키미아 파마(Kimia Farma)와 합작투자법인을 설립해 투자승인 과정이 복잡한 인도네시아 의약품 생산시장에 국내기업으로서는 처음 진출한 사례가 있다.[37] 신설된 합작투자법인(성운파마코피아 지분 25%)은 인도네시아 자카랑 공업단지에 약 4만 평 규모의 부지에 1차로 인도네시아 내에서 소요되는 원료의약품, 화장품 및 건식 소재 등을 생산하는 공장을 건립하고 2차로 대규모 발효생산공장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의약품 시장은 동남아 최대 시장으로 특히 현지 정부가 2019년까지 전 국민 건강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있어 시장 성장(2015년 현재 6조 7,000억 원 규모) 잠재력이 큰 산업이다. 이와 더불어 인도네시아는 경제성장과 국민소득 증가로 인한 자국 내 의약품 수요를 충족시키고 90%에 달하는 높은 수입원료 의존도를 개선하고자하는 목적으로 외국인투자로 국내 의약품원료 제조설비를 확대하기 위해 2014년 의약부문 외국인투자를 85%까지 개방하고 2016년에는 지분제한을 철폐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물론 합작투자가 반드시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베트남에 진출한 A기업의 경우 베트남 현지 기업과의 합작투자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38] 이러한 인식은 합작투자 이후 의사결정과정에서 현지 기업의 월권 행사와 기술 이전 후 자체 회사 설립 등의 배경에서 기인하였다. 따라서 현지 기업과의 합작투자는 반드시 유리한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므로 투자 대상 산업의 성격, 현지 산업 여건, 합작투자에 따른 부정적 요소 등을 충분히 고려한 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36) KOTRA(2007). p. 2

37) 성운파마코리아는 키미아파마와 2015년 8월 합작회사 설립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다. 자카르타 출장(2017. 2. 25).

38) 베트남 하노이 진출 한국기업 관계자 면담(2017. 2. 28).

나. 한국정부 통상정책에 대한 시사점

1) RCEP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역내 가치사슬 구축에 기여: 원산지 규정 표준화

RCEP는 아세안 10개국과 한 · 중 · 일 · 호주 · 뉴질랜드 · 인도 등 16개국이 참여하여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논의하는 자유무역협정이다. RCEP가 체결될 경우 세계 인구의 약 48%, GDP의 약 31%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이 형성된다. RCEP 협상에는 특히 글로벌 생산거점인 중국, 아세안, 인도가 참여하고 있어, 이들 국가에 대한 시장접근성 향상, 투자환경 개선 등의 긍정적 요인은 한국의 생산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RCEP 협상의 주요 쟁점 가운데 원산지 규정 조화는 아세안 FDI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 일본, 인도, 한국, 호주, 뉴질랜드 6개 국가는 이미 아세안과 FTA를 체결한 바 있다. 이러한 아세안+1 FTA뿐 아니라 한 · 베트남 FTA, 일 · CEPA, 인도 · 말레이시아 CECA, 중 · 태국 FTA 등 다층적으로 FTA가 체결되어 있다. 이 FTA에서 제시하고 있는 원산지 규정 적용 기준이 [표 5-2]와 같이 상이한 측면이 있어 동아시아 생산네트워크 효율성 측면에서 FTA 특혜 활용에 장애요인으로 지적되어왔다. 일례로 아세안 · 호주 · 뉴질랜드 FTA, 한 · 아세안 FTA, 중 · 아세안 FTA는 아세안 FTA와 유사하게 역내가치포함비율(RVC: Regional Value Content)이 FOB 가격의 40% 이상이거나 HS 4단위 세 번 변경이 있어야 하는 상품의 일반기준을 적용하며,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을 부속서에서 규정한다.[39] 단 아세안 · 호주 · 뉴질랜드 FTA에서는 12개 협상참여국 내 누적을 허용하고 있다.[40] 일 · 아세안 FTA 또한 RVC 기준 40% 이상인 상품 기준과 품목별 면제 기준(product-specific

39) 외교부, http://www.ftahub.go.kr/webmodule/_PSD_FTA/us/data/1/2_chapter_6.pdf(검색일: 2017. 2. 3).

40) 한 · 아세안 FTA는 원산지를 획득한 재료만 누적이 인정된다. 한 · 싱가포르 FTA는 원산지 재료+공정 누적까지 인정한다.

표 5-2. 아세안+1 FTA 원산지 규정

협정문	원산지 판정 기준	일반 기준
ATIGA	WO, RVC, CTC, PSR	RVC(40) or CTH
AANZFTA	WO, RVC, CTC, PSR	RVC(40) or CTH
ACFTA	WO, RVC, SPR	RVC(40)
AIFTA	WO, 35% RVC+CTSH	35% RVC + CTSH
AJFTA	WO, RVC, CTC, PSR	RVC(40) or CTH
AKFTA	WO, RVC, CTC, PSR	RVC(40) or CTH

자료: Medalla(2011), p. 6.

exemptions)을 적용한다. 아세안 · 인도 FTA는 RVC 기준 35%이상이고 HS 6단위의 변경이 이루어지는 세번 변경 기준(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criterion)을 적용한다. RCEP 참여국간 기체결 FTA 내 원산지 규정 적용 절차에 복잡한 측면이 있는 가운데 RCEP는 동아시아 내 원산지 규정 표준화를 통해 원산지 규정 준수에 소요되는 기업의 비용 절감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원산지 규정 표준화뿐 아니라 전자발급 원산지증명서 인정, 무역원활화 규정 도입 등과 관련된 규정은 4장 공분산성구조분석 결과 수출입에 걸리는 시간이 아세안 FTA 주요 결정요인 변수로 나타난 바와 같이 국가간 수출입 시간 및 비용을 절감시켜 한 · 아세안 FDI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한 · 아세안 경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 FTA 및 BIT

투자협정문 체결은 해당 국가의 대외신뢰도를 제고하고 협상 단계에서 각국 법제도의 미비성, 투자 관련 제도적 투명성을 재검토하는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지며, 양국간 투자제도 차이 등과 같은 현지진출에 따른 기업의 불확실성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된다.[41] 제4장의 분석에서 도출된 바와 같이 아세안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실제 제도적 투명성이 높은 국가에 상대적으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의 대아세안 투자 등 경제협력을 보다 심화시키기 위해서는 아세안 각국의 제도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제3장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아세안의 제조업, 서비스업 투자 규제 수준은 싱가포르와 같이 개방도가 높은 국가가 있는 한편 그 외 아세안 국가들은 싱가포르와 큰 격차를 보여 향후 개선될 여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정부는 1989년 말레이시아를 시작으로 우리 기업 투자 보호를 증진시키기 위해 싱가포르, 미얀마를 제외한 모든 아세안 국가들과 양자투자협정을 체결하였다. 2000년대 이후 한 · 아세안 FTA, 싱가포르, 베트남 FTA를 체결함으로써 투자자유화 및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상호 경제협력제도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한 · 아세안 상품무역협정은 2010년 태국을 마지막으로 11개국 모두 발효된 상태다. 서비스무역협정은 2009년 5월 한국,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싱가포르, 필리핀, 미얀마, 베트남 등 7개국이 우선 발효하고 인도네시아, 라오스, 캄보디아는 아직 발효되기 전이다. 투자협정은 2009년 9월 한국,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4개국만이 발효한 상태이다.

한 · 아세안 FTA는 아세안 개별국과 FTA를 체결하는 일본과 중국보다 아세안 시장 접근에 대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5, p. 3). 한 · 아세안 FTA의 해외직접투자 효과 분석 결과 한 · 아세안 FTA에 따른 한국의 대아세안 FDI는 FTA 발효 이후 한국의 대아세안 연평균 투자증가액인 39억 3,300만 달러의 17.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가별로는 금액 기준 대필리핀, 대말레이시아, 대베트남, 대캄보디아 투자가 한 · 아세안 FTA 전체 투자효과 중 33.3%, 30.5%, 22.7%, 7.8% 순의 비중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투자효과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나타났으며,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에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41) 정형곤 외(2010), p. 167.

표 5-3. 아세안+1 FTA 투자 자유화 관련 규정

구분	AANZFTA	ACFTA	AIFTA	AKFTA
내국민대우	설립 전·후 단계에 모두 적용	설립 후 단계에만 적용	설립 전·후 단계에 모두 적용	설립 전·후 단계에 모두 적용
최혜국대우	규정 없음 (추후 논의)	설립 전·후 단계에 모두 적용(ISDS에 대해서 예외)	규정 없음	설립 전·후 단계에 모두 적용
비합치조치의 현상동결 의무	현재유보에 적용	규정 없음	현재유보에 적용	현재유보에 적용
투자자·국가 분쟁해결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이행요건 금지	TRIMs 수준	규정 없음	규정 없음	TRIMs 수준
국적요건 부여 금지	규정 없음	규정 없음	규정 없음	적용

자료: 라미령, 김제국(2017), p. 11.

한·아세안 투자협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아세안 FTA 투자협정문은 한국의 기체결 FTA 대비 낮은 수준인 한편 아세안의 기체결 FTA과 비교하여서는 높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된다(표 5-3 참고).

한·아세안 투자협정문에는 설립 이전 단계에서의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 보장, 투자의 일반적 대우 보장,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ISDS) 절차,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에 대한 국적 제한 및 거주요건 부과 제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자동적 최혜국대우 부여, 이행요건 부과 금지 의무, ISDS 절차 개선 등은 협상문 발효 이후 5년 이내에 재협상을 완료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과 아세안 각국간 양자투자협정은 1980년대 말레이시아, 1990년대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과 체결한 바 있으며 2000년대에 브루나이, 베트남(재체결)과 체결한 바 있다.

종합해보면 한·아세안 투자협정문은 아세안 국가들의 기체결 FTA와 비교하였을 때 높은 수준에서 체결되었으나 투자협정문을 발효한 국가는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한국 이상 4개국이다. 양자투자협정문도 브루나이와 BIT를 2004

표 5-4. 한 · 아세안 회원국별 협정별 발효연도

국가	상품 무역협정	서비스 무역협정	투자협정	BIT	양자 FTA
한국	2007. 06. 01	2009. 05. 01	2009. 09. 01		
말레이시아			-	1989. 03. 31	-
싱가포르			2009. 09. 01	-	2006. 3. 2.
인도네시아		-	-	1994. 03. 10.	중단
미얀마		2009. 05. 01	-	(2014. 06. 05.)	-
베트남			2009. 09. 01	2004. 06. 05	2015. 12. 20.
필리핀	2008. 01. 01		-	1996. 09. 25	-
브루나이	2008. 07. 01		-	2003. 10. 30	-
라오스	2008. 10. 01	-	-	1996. 06. 14	-
캄보디아	2008. 11. 01	-	-	1997. 03. 12	-
태국	2010. 01. 01	2010. 01. 01	2009. 09. 01	1989. 09. 30	-

자료: UNCTAD 홈페이지, http://investmentpolicyhub.unctad.org/IIA/CountryBits/111(검색일: 2017. 2. 1).

년에 재체결한 베트남을 제외하면 모두 투자자 보호조항이 강조되던 1990년대에 체결되었던 건이다. 투자협정이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예측가능성, 제도적 투명성 등을 통해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 결과[42]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한 · 아세안 투자협정을 발효하지 않은 국가들에 대한 발효를 권유하는 한편 FDI 규제 수준이 미흡한 인도네시아, 미얀마, 라오스, 말레이시아 등을 중심으로 BIT 체결을 검토하여 투자자유화를 추구하는 등 우리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 마련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기체결된 FTA는 우리 기업의 활용률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한 · 아세안 FTA 이행위원회 논의를 통해 우리 기업에게 필요한 추가 자유화 논의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

3) 아세안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한 선택과 집중 전략 추진

제3장 아세안 각국 비즈니스 여건 분석에 따르면 아세안 10개국은 싱가포르

42) UNCTAD(2004); 정형곤 외(2010).

와 말레이시아를 제외하면 경영환경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이어 제4장에서 아세안 역외 지역에서 아세안으로 들어오는 FDI 결정요인 분석 결과 창업 소요시간, 수출입 소요시간, 도산기업 채권회수율로 이루어진 제1주성분과 계약집행 소요시간, 창업절차, 교역개방도, 수출개방도로 이루어진 제2주성분이 아세안의 FDI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1주성분과 제2주성분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의 성격을 보면 관련 정부관계자들의 재량권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간 협정문 체결을 통해 한 · 아세안 간 경제협력 촉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 개선조치가 진행되는 것과 동시에 근본적으로 아세안의 경영환경을 개선하려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의 중요성이 큰 아세안에 대해 한 · 아세안 협력기금(연간 700만 달러), 아세안통합이니셔티브 사업(연간 1,000만 달러), 한 · 메콩 협력사업(연간 100만 달러) 등 연간 약 4억 달러 상당의 대아세안 원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원조 규모는 산업적 경합관계에 있는 중국과 일본에 비해 다소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43] 이에 우리나라는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에 집중하는 아세안 지원 특화 전략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2017 Doing Business 지표에서 전력 수급(getting electricity), 계약이행(enforcing contracts) 부문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아세안 FDI 주요 결정요인인 것으로 나타난 채권회수율과 창업(starting a business) 관련 지표에 있어서 각각 세계 4위, 11위의 높은 순위를 기록하였다.[44] 따라서 제4장에서 도출된 아세안 FDI 결정요인에 근거할 경우 아세안

43) 중국은 1,000억 달러 규모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을 주도함으로 아세안 인프라 구축 지원에 집중하고 있으며, 동시에 아세안 각국에 대한 별도의 원조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이를 견제하는 차원에서 2016~20년까지 아시아 인프라 건설에 1,100억 달러를 투입하고, 2016년부터 3년간 메콩유역 개발에 7,500억 엔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전석운(2015. 5. 23); 에너지경제연구원(2015. 7. 10), p. 31.

44) World Bank, Ease of Doing Business in Korea, Rep., http://www.doingbusiness.org/

정부관료 교육지원 강화 등을 통해 아세안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에 집중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제3장에서 도출된 바와 같이 아세안-6국가들과 CLM 국가들 간 상이한 비즈니스 여건에 따라 개선 우선순위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흥국으로부터의 투자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를 대상으로 비즈니스 여건 등과 관련된 제도적 지원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를 대상으로 비교우위를 보유한 전자통관시스템 등과 관련된 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4) 아세안 투자 촉진을 위한 아세안 통합, 국가별, 산업별 지원시스템 강화

제4장 아세안 FDI 결정요인 분석 결과 특히 창업시간, 수출입 시간, 도산기업 채권회수율 요인으로 이루어진 제1주성분이 아세안 FDI와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도출된 바 있다. 이는 아세안 각국의 통상정책과 산업발전정책에 관련된 제도적 요인들이다. 앞서 기업전략 부분에서도 아세안 회원국의 급변하는 분업체계와 이를 뒷받침하는 각국 산업정책, 통상정책 및 관련 제도의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45] 다만 중소기업이 중심이 되는 투자상황상 실질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기에는 이 역량이 제한적일 것이다. 한국정부는 대한상공회의소를 사무국으로 하는 다자간 민간경제협력체인 '한·아세안 Business Council'을 구축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2016년 식품, 화장품 등 주요 업종별 분과위원회를 설립하여 국가별 상이한 시장 정보, 검사/통관/검역 정보의 공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 지원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아세안에 진출한 기업의 주요 업종, 수요 분석을 통해 업종별 분과위원회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 KOTRA, 상공회의소 등 해

data/exploreeconomies/korea(검색일: 2017. 3. 10).

45) 싱가포르 관련 연구자 면담 결과 싱가포르와 다른 아세안 국가들의 투자 유치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은 정부관료들의 경제자유화, 외국인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부흥에 대한 이해도 차이에 의한 관련 지원 정책, 서비스 부재에 있다고 답변을 한 바 있다. 싱가포르 연구기관 인터뷰(2017. 3. 2).

외진출지에 있는 해외진출 지원기관간 협업 증진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일본 사례를 예로 들면 장관 주재 해외진출 지원기관 회의를 주관하여 해외진출 지원 시스템의 일원화를 꾀한 바 있다.

국가 차원에서 대아세안 중장기 진출전략, 한 · 아세안 경제협력 로드맵을 작성할 필요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은 일 · 아세안 포럼을 통해 일 · 아세안 전략적 경제협력 로드맵(2012-2022)을 작성하여 2022년까지 양자간 투자, 교역을 두 배 증가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참고문헌

[국문자료]

강한균. 2010.「지식-자본모델을 이용한 한국의 외국인FDI의 투자 결정요인과 유치 촉진 방안」.『대한경영학회지』, 제23권 제6호, pp. 3015~3029.

곽성일, 김제국. 2016.「아세안 경제공동체(AEC)의 미래와 우리의 대응」. 오늘의 세계경제, Vol. 16, No. 6. (2월 3일)

곽성일, 이창수, 정재완, 이재호, 김제국. 2015.『아세안 경제통합과 역내 무역투자 구조의 변화 분석 및 시사점』. 연구보고서 15-1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연청, 장용준. 2015.「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FDI 결정요인 변화 분석: 지식-자본 모형을 통한 접근」.『국제통상연구』, 제20권 제2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5.『한 · 아세안 FTA 이행상황 평가 최종보고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8월)

라미령, 김제국. 2017.「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추진 현황과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Vol. 17, No. 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준홍. 2015.『떠오르는 아세안을 주목하라』. POSRI 보고서.

에너지경제연구원. 2015.「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호-26호, p. 31. (7월 10일)

전석운. 2015.「"AIIB 힘 빼라…" 아베 1100억 달러 배팅」.『국민일보』. (5월 23일)

정형곤, 이홍식, 방호경, 나승권. 2010.『한중일 역내 직접투자 동향과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 10-1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TRA 양곤 무역관. 2015.「2016 미얀마 진출전략」. (11월)

KOTRA. 2007.「투자진출 기업의 현지화 전략: 성공 노하우」. Global Business Report, 07-04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영문자료]

Aizenman, J. and M. M. Spiegel. 2006. "Institutional Efficiency, Monitoring Costs, and the Investment Share of FDI." *Review of International*

Economics, 14(4), pp. 683-697.

ASEAN · UNCTAD. 2014. "ASEAN Investment Report 2013-2014: FDI Development and Regional Value Chains." The ASEAN Secretariat,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_____. 2015. "ASEAN Investment Report 2015: Infrastructure Investment Connectivity."

_____. 2016. "ASEAN Investment Report 2016: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MSME Linkages."

Asiedu, E. 2002. "On the Determinant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to Developing Countries: Is Africa Different?" *World Development,* 30(1), pp. 107-119.

_____. 2006.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Africa: The Role of Natural Resources, Market Size, Government Policy, Institutions and Political Instability." *Journal of the World Economy,* 29(1), pp. 63-77.

Bellak, C., M. Leibrecht, and R. Stehrer. 2008. "Policies to Attract Foreign Direct Investment: An Industry-level Analysis." Global Forum on International Investment. OECD.

Buchanan, B. G., G. V. Le, and M. Rishi. 2012.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Institutional Quality: Some Empirical Evidence." *International Review of Financial Analysis*, 21, pp 81-89.

Buckley, P. J. and M. Casson. 1976. *The Future of the Multinational Enterprises*. Macmillan.

Busse, M. and C. Hefeker. 2007. "Political Risk, Institutions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23(2), pp. 397-415.

Carr, L., R. Markusen, and E. Maskus. 2001. "Estimating the Knowledge -Capital Model of the Multinational Enterprise." *American Economic Review,* 91(3), pp. 693-708.

Cattell, R. B. 1978. *The Scientific Use of Factor Analysis in Behavioral and Life Science*. New York: Plenum Press.

Charkrabarti, A. 2001. "The Determinant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Sensitivity Analyses of Cross-country Regressions." *Kyklos,* 54(1), pp. 89-114.

Cleeve, E. 2008. "How Effective are fiscal Incentives to Attract FDI to

Sub-Saharan Africa?" *The Journal of Developing Areas,* 42(1), pp. 135-153.

Demirhan, E. and M. Masca. 2008. "Determinant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Flows to Developing Countries: A Cross-Sectional Analysis." *Prague Economic Papers,* 4, pp. 356-369.

Dunning, J. H. 1979. "Explaining Changing Pattern of International Production: In Defence of Eclectic Theory." *Oxford Bulletin of Economics and Statistics*, 41, pp 269-296.

_____. 1993. *Multinational Enterprise and the Global Economy*. Wokingham, UK, and Reading, MA: Addison-Wesley.

_____. 1977. "Trade, Location of Economic Activity and the MNE: A Search for an Eclectic Approach." In B. Ohlin, P. O. Hesselborn, and P.M. Wijkman eds. *The International Allocation of Economic Activity,* pp. 395-418. London.

Golub, Stephen S. 2003. "Measures of Restrictions on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for OECD Countries." *OECD Economic Studies*, No. 36.

Hara, M. and I. F. Razafimahefa. 2005. "The Determinant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s into Japan." *Kobe University Economic Review*, 51, pp. 21-34.

Helpman, E., M. Melitz, and S, Yeaple. 2004. "Export versus FDI with Heterogeneous Firms." *American Economic Review,* 94(1), pp. 300-316.

Hoang, H. H. and D. H. Bui. 2015. "Determinant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ASEAN: A Panel Approach." *Management Science Letters,* 5, pp. 213-222.

Hosein, S. R. and M. Maryam. 2012. "The Impact of Exchange Rage Volatility in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Ira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pplied Economics.

Iamsiraroj, S. and H. Doucouliagos. 2015. "Does Growth Attract FDI?" Economics Discussion Papers 2015-18. Kiel Institute for the World Economy.

Ismail, N. W. 2009. "The Determinant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ASEAN: A Semi-Gravity Approach." *Transition Studies Review,*

16(3), pp 710-722.

Jensen, N. M. 2003. "Democratic Governance and Multinational Corporations: Political Regimes and Inflow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ternational Organization,* 57(3), pp. 587-616.

JETRO. 2014. *Survey Report on Business Operations of Japanese Companies in Asia and Oceania*.

_____. *2015. Survey Report on Business Operations of Japanese Companies in Asia and Oceania*.

_____. *2016. Survey Report on Business Operations of Japanese Companies in Asia and Oceania*.

Jolliffe, I. T. 2002.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2nd edn. New York: Springer.

Kemp, M. C. 1964. *The Pure Theory of International Trade*. Englewood Cliffs.

Kindleberger, C. P. 1969. *American Business Abroad*. Yale University Press, New Haven, United States.

Lawley, D. N. and A. E. Maxwell. 1971. *Factor Analysis as a Statistical Method*, 2nd end. London: Butterworth.

Lewis-Beck, M. S. 1994. *Factor Analysis and Related Techniques*. London: Sage.

Liargovas, P. G. and K. S. Skandalis. 2012.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Trade Openness: The Case of Developing Economies." *Social Indicators Research,* 106(2), pp. 352-331.

MacDougall, G. D. A. 1960. "The Benefits and Costs of Private Investment from Abroad: A Theoretical Approach." *Economic Record,* 36, pp. 13-35.

Maguire, Glenn. 2015. "Directorship: 15: ASEAN: The next horizon." *Company Director*, Vol. 31, Issue 5. (June)

Markusen, J. and K. Maskus. 2001. "General-Equilibrium Approaches to the Multinational Firm: A Review of Theory and Evidence." NBER Working Paper No. 8334.

Markusen, J. R and A. J. Venables. 1998. "Multinational Firms and the New Trade Theory."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46(2), pp. 183-203.

Markusen, J. R. A. J. Venables, D. E. Konan, and K. H. Zhang. 1996. "A Unified Treatment of Horizontal Direct Investment, Vertical Direct Investment, and the Pattern of Trade in Goods and Services." NBER Working Paper No. 5696.

Masron, A. and H. Abdullah. 2010. "Institutional Quality as a Determinant for FDI Inflows: Evidence from ASEAN." *World Journal of Management,* 2(3), pp. 115-128.

Mauro, P. 1995. "Corruption and Growth."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0(3), pp. 681-712.

Medalla, Erlinda M. 2011. "Taking Stock of the ROOs in the ASEAN+1 FTAs: Toward Deepening East Asian Integration." PIDS Discussion Paper Series, No. 2011-36.

Medalla, Erlinda M. and Maureen Ane D. Rosellon. 2011. "ROOs in ASEAN+1 FTAs and the Value Chain in East Asia." ERIA Report.

Mencinger, Joze. 2003. "Does Foreign Direct Investment Always Enhance Economic Growth?" *Kyklos,* 56, pp. 491-508.

Mika'ilu, A. and A. H. A. Fu'ad. 2013. "An Inquiry into the Determinant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Nigeria." *European Scientific Journal Edition,* 9(25), pp. 293-308.

Mohamed, S. E. and M. G. Sidiropoulos. 2010. "Another Look at the Determinant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MENA Countries: An Empirical Investigation." *Journal of Economic Development,* 35(2), pp. 75-95.

Moosa, I. A. and B. A. Cardak. 2006. "The Determinant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An Extreme Bounds Analysis." *Journal of Multinational Financial Management*, pp. 199-211.

Nicoletti, G., S. S. Golub, D. Hajkova, D. Mirza, and K. Y. Yoo. 2003. "The Influence of Policies on Trade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OECD Economic Studies, 36*. pp. 7-83.

Ocaya, Ruranga and Kaberuka. 2013.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Economic Growth in Rwanda: A Time Series Analysis." *Journal of Business Management and Corporate Affairs 2.*

OECD. 2010. "OECD's Restrictiveness Index: 2010 Update." OECD Working Papers on International Investment, No. 2010/3. OECD.

Quere, A. B., M. Coupet, and T. Mayer. 2007. "Institutional Determinant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World Economy,* 30(5), pp. 764-782.

Rummel, R. J. 1970. *Applied Factor Analysis*. Evanston: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Sofilda, E., R. Amalia, and M. Z. Hamzah. 2015. "Determinant Factor Analysi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ASEAN-6 Countries Period 2004-2012." *OIDA International Journal of Sustainable Development,* 08:05.

Suleiman N. N., S. R. Kaliappan, and N.W. Ismail. 2015. "Determinant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Empirical Evidence from Southern Africa Customs Union (SACU) Countries." *International Journal of Economics and Management,* 9(1), pp. 1-24.

Tanaka, K. 2011. "Vertical Foreign Direct Investment: Evidence from Japanese and U.S. Multinational Enterprises." *Japan and the World Economy,* 23(2), pp. 97-111.

Thangavelu, Shandre Mugan. 2015. "FDI Restrictiveness Index for ASEAN: Implementation of AEC Blueprint Measures." ERIA Discussion Paper Series.

UNCTAD. 2004. *World Investment Report 2004*.

Urata, Shujiro and John Sasuya. 2007. "An Analysis of the Restrictions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Free Trade Agreements." RIETI Discussion Paper Series 07-E-018.

Vijayakumar, N., P. Sridharan, and K. C. S. Rao. 2010. "Determinants of FDI in BRICS Countries: A Panel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Business Science and Applied Management,* 5(3), pp. 1-13.

Wadhwa, K. and S. S. Reddy. 2011. "Foreign Direct Investment into Developing Asian Countries: The Role of Market Seeking, Resource Seeking and Efficiency Seeking Factors." *International Journal of Business and Management,* 6(11).

Wilhelms, S. K. S. 1998.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its Determinants in Emerging Economies." African Economic Policy Paper No. 9.

Yeaple, S. R. 2009. "Firm Heterogeneity and the Structure of U.S. Multinational Activity."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78. pp. 206-215.

Zhang, Haozhen. 2012. "How Do Business Regulations Affect Foreign Direct Investment?" *Transnational Corporations Review,* 4(2), pp. 97-119.

[온라인자료]

강동철. 2017.「삼성디스플레이, 베트남에 25억달러 투자」.『ChosunBiz』. (1월 11일)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1/10/2017011003317.html(검색일: 2017. 3. 11).

문재용. 2016.「인니 FDI 2.6% 증가…싱가포르·말련·일본 순 투자 많아」. 레이더A 뉴스. (1월 25일) http://www.raythea.com/newsView.php? cc=300001&page=0&no=4152(검색일: 2017. 2. 2).

외교부. http://www.ftahub.go.kr/webmodule/_PSD_FTA/us/data/1/2_chapter_6.pdf(검색일: 2017. 2. 3).

한국수출입은행. http://211.171.208.92/ODISAS.html?type=01(검색일: 2017. 3. 9).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https://stats.koreaexim.go.kr/odisas.html(검색일: 2017. 1. 11).

Anyanwu, John C. 2006. "Promoting of Investment in Africa." *African Development* Review. http://onlinelibrary.wiley.com/doi/10.1111/j.1467-8268.2006.00132.x/epdf(검색일: 2016. 9. 30).

Asian Development Bank. 2016. ADB Statistics and Databases. https://www.adb.org/data/statistics(검색일: 2016. 9. 13).

ASEAN Secretariat FDI Statistics. http://asean.org/resource/statistics/(검색일: 2016. 9. 13, 2016. 10. 21).

BEA Stat. https://www.bea.gov/iTable/iTable.cfm?ReqID=2&step=1#reqid=2&step=10&isuri=1&202=1&203=30&204=1&205=1&200=1&201=1&207=52,49,48&208=1&209=87,50,52,53,88(검색일: 2017. 1. 11).

Dupasquier, C. and Osakwe. 2003. "Performance, Promotion and Prospects for Foreign Investment in Africa: National, Regional, and International Responsibilities." http://citeseerx.ist.psu.edu/viewdoc /download?doi=10.1.1.486.754&rep=rep1&type=pdf(검색일:2016. 10. 26).

IMD. 2016. *IMD World Competitiveness.* https://worldcompetitiveness.imd.org/(검색일: 2016. 10. 20).

Jeong, Hyung-gon. 2014. "The Determinant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Business Services Industry." *International Economic Journal.* http://www.tandfonline.com/doi/abs/10.1080/10168737.2014.913651#tabModule(검색일:2016. 10. 26)

"Kishida reaffirms economic focus on Thailand." 2016. *Japan Times.* (May 2) http://www.japantimes.co.jp/news/2016/05/02/business/kishida-reaffirms-economic-focus-thailand/#.WVRf9JLyiUk(검색일: 2017. 2. 2).

Mengistu, A. A. 2009. "The Roles of Human Capital and Physical Infrastructure on FDI Inflow: Empirical Evidence from East Asia and Sub Saharan Africa." Paper Prepared for CSAE Conference. http://citeseerx.ist.psu.edu/viewdoc/download?doi=10.1.1.410.4447&rep=rep1&type=pdf(검색일: 2016. 10. 19).

MIDA 홈페이지. http://www.mida.gov.my/home/2062/news/jactim-more-japanese-companies-investing-in-malaysia-/(검색일: 2016. 12. 3).

Noorbakhsh, F., A. Paloni, and A. Youssef. 1999. "Low Wages or Skilled Labour? Prospects for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Developing Countries." Mimeo. http://www.gla.ac.uk/media/media_219080_en.pdf(검색일: 2016. 10. 19).

Nyein, Zayar. 2016. "Singapore Emerges As New Major Investor in Myanmar." (February 20) Myanmar Business Today. https://www.mmbiztoday.com/articles/singapore-emerges-new-major-investor-myanmar(검색일: 2017. 2. 2).

UNCTAD STAT. http://unctadstat.unctad.org/wds/TableViewer/downloadPrompt.aspx(검색일: 2016. 10. 26, 2017. 1. 18).

UNCTAD. 2017.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Navigator.* http://investmentpolicyhub.unctad.org/IIA/CountryBits/111(검색일: 2017. 2. 1).

"Why Indonesia is Chasing China's Billions." 2016 Bloomberg News. (October 31)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6-10-31/china-deepens-economic-ties-with-indonesia-as-investment-doubles(검색일: 2017. 2. 2).

World Bank. 2013-15. *Doing Business.* http://www.doingbusiness. org/(검색일: 2016. 9. 13).

World Bank. 2016. Doing Business Methodology. http://www.doingbusiness.org/methodology(검색일: 2016. 9. 13).
_____. 2017. *Ease of Doing Business in Korea, Rep.* http://www.doingbusiness.org/data/exploreeconomies/korea(검색일: 2017. 3. 10).

[인터뷰 자료]

베트남 하노이 진출 한국기업 관계자 인터뷰(2017. 2. 27~28)
싱가포르 연구기관 인터뷰(2017. 3. 2,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기업 인터뷰(2017. 2. 25~26,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브카시)

Executive Summary

Factors Influencing ASEAN FDI and the Policy Implications

JEONG Hyung-Gon, BANG Ho Kyung,
LEE Boram, and PEK Jong-Hun

Since the global economic crisis triggered in the United States in 2008, the East Asian economic region has received particular attention as it achieved relatively solid economic growth compared to developed countries, which struggled with recession. The discussion on economic cooperation and economic liberalization within East Asia has mainly focused on the RCEP, with this discussion being led by ASEAN as it calls for ASEAN centrality. ASEAN is currently the second-largest overseas investment destination and second-largest trading partner for South Korea, making it an important partner in economic cooperation for South Korea. Particularly, as China is openly implementing economic retaliatory measures against South Korea for the deployment of THAAD missiles in the nation, South Korea has become more interested in the ASEAN market as it strives to diversify its trade and investment portfolio. Under this background, this research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ASEAN FDI by income level and doing business conditions, then conducts an empirical

analysis of determination factors to draw policy implications for stronger economic cooperation with ASEAN.

This report consists of five chapters in total. In Chapter 2 we examine FDI determination factors which have been discussed from a theoretical and empirical viewpoint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economics. In Chapter 3 we look into the current situation of ASEAN FDI and the characteristics of ASEAN FDI by income level, along with conditions for doing business in the region. In Chapter 4, we conduct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determination factors for ASEAN FDI inflow, utilizing a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Lastly, in Chapter 5, we suggest implications for the Korean government and enterprises to generate mutually beneficial economic growth momentum by promoting Korea's FDI to ASEAN.

More specifically, in Chapter 2 this paper examines the theoretical and empirical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Dunning's eclectic model, which is a representative theoretical frame for FDI determination factors, along with the knowledge-capital model proposed by Markusen and Venables. Based on the eclectic model, Dunning categorizes FDI into market-seeking, resource-seeking and efficiency-seeking types, while the knowledge-capital model classifies major FDI determination factors into horizontal and vertical factors. Horizontal FDI refers to the type of FDI involved when pursuing market expansion between countries which are similar in terms of economic scale and factor retention level, which can be understood in line with Dunning's resource-seeking type of FDI. As mentioned above, there have been various attempts to clarify FDI determination factors from a theoretical standpoint, but with the results of such

research differing by researcher, there is still no comprehensive theoretical model to support empirical analysis. Recently, various efforts have been made to explain the difference in FDI determination factors between developed countries and developing countries through institutional variables such as regulation.

In Chapter 3, the characteristics of ASEAN FDI inflow and doing business conditions are examined based on a classification of ASEAN countries into three country groups according to GDP per capita, with the aim of understanding the characteristics of ASEAN FDI inflow.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show that vertical FDI is predominant in FDI into ASEAN, with the characteristics of vertical FDI slowly becoming visible together with market-seeking FDI in high-income ASEAN countries such as Indonesia, Malaysia, and Thailand, which have a relatively large population and economic scale. These changes are expected to continue for the time being as ASEAN tries to unify the markets and production sites within the region and is expected to achieve economic growth. Meanwhile, in terms of the conditions of doing business in each ASEAN country, ASEAN countries where FDI was concentrated, such as Singapore, Malaysia, Indonesia, and Thailand, showed highly advantageous conditions compared to other countries, whereas countries with low FDI inflow such as Cambodia, Lao PDR, and Myanmar were found to lag behind the others. Among specific evaluation items, contract implement period, bond recovery rate and trade period showed a high correlation coefficient with FDI. Particularly, the business conditions of each ASEAN country showed a distinct positive linear relationship with FDI, indicating that better business conditions lead

to a higher amount of FDI inflow.

Accordingly, in Chapter 4,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determination factors of 10 ASEAN countries' FDI inflow was performed for the years of 2003 to 2014, utilizing a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The results of a primary component analysis show that, among 20 institutional variables, primary variables such as the time required to open a business, time required for import and export procedures, bond recovery rate after insolvency, and secondary variables such as the time required for contract implementation, start-up procedures, trade openness and export openness, were the determination factors for extra-regional investment into ASEAN. On the other hand, the results of a regression analysis to see whether these two factors affect the determination of ASEAN intra-regional FDI indicate that the above factors are not significant. In other words, while market-seeking factors and regulations are determinant factors for extra-regional countries when deciding on investment in ASEAN, these factors are not significant for countries within the ASEAN region.

Chapter 5 suggests strategies for Korean enterprises to enter the ASEAN market and trade policy implications for the Korean government. Regarding entry strategies for the ASEAN market, first it will be necessary to enhance production networks with ASEAN and utilize these networks strategically, as seen by the example of Japan; second, our report emphasizes the need to efficiently respond to the trade policies and institutional changes of each ASEAN country; and third, investment risk should be managed by establishing strategic partnerships with local enterprises. Regarding the Korean government's trade policy toward ASEAN, first it will be

necessary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RCEP negotiations, contributing to the formation of intra-regional value chains. Among the issues being negotiated, the harmonized rules of origin stand out as a particularly important issue. Second, our report proposes stronger institutional support for Korea-ASEAN economic cooperation and towards this, the conclusion and revision of BITs with ASEAN members. Third, our report recommends a strategy of selection and concentration when it comes to improving the business environment in ASEAN. More specifically, we propose for the government to provide consulting in ASEAN about the factors identified as Korea's strengths and determinant factors for extra-regional investment into ASEAN, such as contract implementation, bond recovery rate and business start-ups, as well as expanding educational support for ASEAN government officials regarding these matters. Lastly, we suggest reinforcing the national and industrial support systems for Korean enterprises to promote investment in ASEAN.

KIEP 연구보고서 발간자료 목록

■ 2017년

17-01 대ASEAN FDI 결정요인의 특징과 정책적 시사점 /
정형곤 · 방호경 · 이보람 · 백종훈

■ 2016년

16-01 뉴노멀 시대 중소기업의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연구: 한국과 대만을 중심으로 /
이승신 · 이현태 · 나수엽 · 조고운 · 오윤미 · 이준구

16-02 수출기업의 금융구조와 수출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
김경훈 · 최혜린 · 강은정

16-03 고령화시대 주요국 금융시장 구조변화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
윤덕룡 · 이동은

16-04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와 포스트 나이로비 다자통상정책 방향 /
서진교 · 이효영 · 박지현 · 이준원 · 김도희

16-05 서비스분야 규제완화가 외국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STRI를 중심으로 / 김종덕 · 조문희 · 엄준현 · 정민철

16-06 한국의 수입구조 결정요인과 기업분포에 미치는 영향 /
김영귀 · 박혜리 · 금혜윤 · 이승래

16-07 남북한 CEPA 체결의 중장기 효과 분석 및 추진 방안 연구 /
임수호 · 최장호 · 이효영 · 최유정 · 최지영

16-08 북한 주변국의 대북제재와 무역대체 효과 /
최장호 · 임수호 · 이정균 · 임소정

16-09 중국 주도의 신금융질서 태동과 한국의 대응방향 /
임호열 · 이현태 · 김홍원 · 김준영 · 오윤미 · 최필수

16-10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의 이행 성과와 과제 /
김규판 · 이형근 · 김승현 · 이정은

16-11 한 · 아세안 기업간 지역생산 네트워크 구축전략 /
곽성일 · 정재완 · 김제국 · 신민이 · 라미령

16-12 인도의 산업정책과 기업특성 분석: 기업 규모, 이윤, 비용, 생산성을 중심으로 / 이 웅 · 배찬권 · 이정미 · 신세린 · 김신주

KIEP 설립 이후 현재까지의 모든 발간자료 원문은 홈페이지(http://www.kiep.go.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16-13 SDGs 도입 이후 개도국 협력전략과 대응과제: 무역과 기후변화의 정책 일관성을 중심으로 / 권 율 · 정지원 · 허윤선 · 정지선 · 이주영

16-14 신기후체제하에서의 국제 탄소시장 활용방안 / 문진영 · 정지원 · 송지혜 · 이성희

16-15 디지털경제의 진전과 산업혁신정책의 과제: 주요국 사례를 중심으로 / 김정곤 · 나승권 · 장종문 · 이성희 · 노수연

16-16 미국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성장 지속가능성 점검 및 시사점 / 김원기 · 윤여준 · 천소라 · 김종혁 · 권혁주

16-17 브렉시트의 경제적 영향 분석과 한국의 대응전략 / 김흥종 외

16-18 신통상정책에 나타난 EU의 FTA 추진전략과 시사점 / 김흥종 · 이철원 · 이현진 · 양효은 · 강유덕

16-19 중앙아 주요국의 경제발전 전략과 경협 확대방안 / 박정호 · 강부균 · 민지영 · 윤지현 · 권가원 · 예브게니 홍

16-20 민관협력사업(PPP)을 활용한 중남미 인프라 · 플랜트시장 진출 확대방안 / 권기수 · 김진오 · 박미숙 · 이시은

16-21 국제유가 하락과 한 · 중동 협력방안: GCC 산유국을 중심으로 / 이권형 · 손성현 · 장윤희 · 유광호

16-22 아프리카 도시화 특성 분석과 인프라 협력방안 / 박영호 · 방호경 · 정재완 · 김예진 · 이보얀

■ 2015년

15-01 북한무역의 변동요인과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 임호열 · 최장호 · 방호경 · 임소정 · 김준영 · 주셴핑 · 진화림 · 정은이

15-02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증대에 대응한 거시건전성정책 연구 / 강태수 · 임태훈 · 서현덕 · 강은정

15-03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내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 최혜린 · 한민수 · 황운중 · 김수빈

15-04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 한민수 · 서봉규 · 임태훈 · 강은정 · 김영선

15-05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수출부가가치의 결정요인 분석과 정책 시사점 / 최낙균 · 박순찬

15-06 주요국의 서비스 개방수준 차이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 김종덕 · 성한경

15-07 국내 제조업 생산성의 결정요인과 수출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 / 배찬권 · 김영귀 · 금혜윤

15-08 외국인직접투자의 유형별 결정요인 분석 /
이승래 · 강준구 · 김혁황 · 박지현 · 이준원 · 이주미

15-09 중국 서비스시장 개방전략의 변화와 시사점: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의 사례를 중심으로 / 노수연 · 오종혁 · 박진희 · 이한나

15-10 중국의 소비 주도형 성장전략 평가 /
이장규 · 김부용 · 최필수 · 나수엽 · 김영선 · 조고운 · 이효진

15-11 중국 환경시장의 분야별 특징 및 지역별 협력방안 /
정지현 · 김홍원 · 이승은 · 최지원

15-12 한· 중 · 일의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3국 협력방안: 규제적 조치를 중심으로 / 최보영 · 방호경 · 이보람 · 유새별

15-13 북 · 중 분업체계 분석과 대북 경제협력에 대한 시사점 /
최장호 · 김준영 · 임소정 · 최유정

15-14 저성장시대 일본 정부의 규제개혁에 관한 연구 /
김규판 · 이형근 · 이신애

15-15 인도 모디(Modi) 정부의 경제개발정책과 한 · 인도 협력방안 /
조충제 · 송영철 · 이정미

15-16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체제 비교 연구 /
정지원 · 문진영 · 권 율 · 이주영 · 송지혜

15-17 아세안 경제통합과 역내 무역투자 구조의 변화 분석 및 시사점 /
곽성일 · 이창수 · 정재완 · 이재호 · 김제국

15-18 국제 디지털 상거래의 주요 쟁점과 한국의 대응방안 /
김정곤 · 나승권 · 장종문 · 이성희 · 이민영

15-19 동남아 도시화에 따른 한 · 동남아 경제협력 전망 /
오윤아 · 나희량 · 이재호 · 신민금 · 신민이

15-20 아프리카 민간부문개발(PSD) 현황 및 한국의 지원방안 /
박영호 · 정지선 · 박현주 · 김예진

15-21 저성장시대의 고용확대 정책: 유럽 주요국의 사례 및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 강유덕 · 이철원 · 오태현 · 이현진 · 김준엽

15-22 남미 주요국의 신산업정책과 한국의 산업협력 확대방안 /
권기수 · 김진오 · 박미숙 · 이시은

15-23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출구전략 효과 및 시사점 /
윤여준 · 이 웅 · 문성만 · 권혁주

15-24 GCC 국가들의 물류허브 구축전략과 한국의 협력방안: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중심으로 / 이권형 · 손성현 · 박재은 · 장윤희

15-25 러시아의 '경제현대화' 정책과 한 · 러 협력방안 / 제성훈 · 강부균 · 민지영

전략지역심층연구 15-01

15-26 아세안 금융시장의 변화와 국내 금융회사의 아세안 진출전략 / 서은숙 · 빈기범

전략지역심층연구 15-02

15-27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에 대한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 동향과 효과 분석 / 김한성 · 이홍식 · 강문성 · 송백훈

전략지역심층연구 15-03

15-28 인도의 산업구조와 내수시장의 경쟁구도 변화 / 이순철 · 김완중

전략지역심층연구 15-04

15-29 중남미지역 공공조달시장 진출전략 연구: 칠레와 페루를 중심으로 / 이미정 · 조희문 · 권정인 · 김혜민

전략지역심층연구 15-05

15-30 한 · 유라시아 주요국 산업협력을 위한 전략적 제휴방안 연구 / 한홍열 · 윤성욱 · 변현섭 · 박지원

전략지역심층연구 15-06

15-31 21세기 한 · 쿠바 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정책방안 모색: 정치, 경제, 문화 부문을 중심으로 / 정경원 · 조구호 · 신정환 · 김원호 · 문남권 · 정기웅 · 하상섭

전략지역심층연구 15-07

15-32 국제운송회랑의 새로운 지정학: 유라시아 실크로드 구축을 위한 협력방안 연구/ 원동욱 · 성원용 · 김재관 · 백준기

전략지역심층연구 15-08

15-33 이집트 산업정책 및 산업구조 분석과 한 · 이집트 산업협력 전략/ 박복영 · 김용복 · 박철형 · Shaimaa Hussien

전략지역심층연구 15-09

15-34 브라질의 對아프리카(포어권 국가) 진출전략과 시사점/ 윤택동 · 이성준 · 이재훈

전략지역심층연구 15-10

15-35 아프리카 모바일금융시장 현황과 한국의 협력방안: 가나와 우간다를 중심으로/ 황규득 · 장용규 · 서상현 · 허서희 · 육숙희 · 최두영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5-01

15-36 중국 · 베트남 금융개혁이 북한에 주는 함의 / 임호열 · 김영찬 · 방호경 · 김준영 · 최필수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5-02

15-37 북한의 경제 특구 · 개발구 지원방안 / 양문수 · 이석기 · 김석진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5-03

15-38 남북통일과정에서의 해외재원 조달: 주요 이슈와 정책방안 / 장형수 · 박해식 · 박춘원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5-04

15-39 중국과 베트남의 금융개혁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Financial Reform in China and Vietnam: Potential Lessons for DPRK) / David Dollar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5-05

15-40 중 · 북 경제협력과 북한의 경제발전 전망(中朝经济与合作朝鲜变革发展展望) / 찐저 · 쉬원지 · 위즈쌴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5-06

15-41 통일 한국에서의 인프라 정비와 일본의 역할(統一韓国におけるインフラ整備と日本の役割) / 이누이 토모히코 · 권혁욱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5-07

15-42 러시아 경제체제 전환 과정의 주요 특징과 문제점: 북한에 대한 정치적 시사점과 교훈(Основные черты и проблемы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переходного процесса в России: политические выводы и уроки для Северной Кореи) / Vasily Mikheev and Vitaly Shvydko

정형곤(鄭衡坤)

독일 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독일 쾰른대학교 경제학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경제본부장
(現, E-mail: hgjeong@kiep.go.kr)

저서 및 논문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 요인 분석: 북한 경제개혁에 대한 함의』(공저, 2014)
Promoting Dynamic & Innovative Growth in Asia: The Cases of Special Economic Zones and Business Hubs(공편저, 2016) 외

방호경(方浩慶)

중앙대학교 경제학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경제본부 협력정책팀 선임연구원
(現, E-mail: bassgu@kiep.go.kr)

저서 및 논문

『북한무역의 변동요인과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공저, 2015)
『아프리카 도시화 특성분석과 인프라 협력방안』(공저, 2016) 외

이보람(李보람)

이화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동아시아연계학과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통상학 석사 졸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경제본부 협력정책팀 전문연구원
(現, E-mail: brlee@kiep.go.kr)

저서 및 논문

『한 · 중 · 일의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3국 협력방안: 규제적 조치를 중심으로』(공저, 2015)
『동북아 초국경 인프라 개발과 재원조달: 중국 동북지역을 중심으로』(공저, 2016) 외

백종훈(白種勳)

성균관대학교 통계학 학사
성균관대학교 경제학부 보험계리학 석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경제본부 협력정책팀 연구원
(現, E-mail: jhpek@kiep.go.kr)

저서 및 논문

Promoting Dynamic & Innovative Growth in Asia: The Cases of Special Economic Zones and Business Hubs(공저, 2016) 외

KIEP 발간자료회원제 안내

■ 본 연구원에서는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있는 전문가, 기업 및 일반에 보다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발간자료회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발간자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보고서를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신속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회원 종류 및 연회비

회원종류	배포자료	연회비		
S	외부배포 발간물 일체	기관회원	개인회원	연구자회원*
		30만원	20만원	10만원
A	East Asian Economic Review	8만원		4만원

* 연구자 회원: 교수, 연구원, 학생, 전문가풀 회원

■ 가입방법

우편 또는 FAX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송부 (수시접수)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식정보실 학술출판팀
연회비 납부 문의전화: 044) 414-1179 FAX: 044) 414-1144
E-mail: sklee@kiep.go.kr

■ 회원특전 및 유효기간

- S기관회원의 특전: 본 연구원 해외사무소(美 KEI) 발간자료 등 제공
- 자료가 출판되는 즉시 우편으로 회원에게 제공됩니다.
- 모든 회원은 가입기간 동안 가격인상에 관계없이 신청하신 종류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연회원 기간은 加入月로부터 다음해 加入月까지입니다.

KIEP 발간자료회원제 가입신청서

기관명 (성명)	(한글)	(한문)
	(영문: 약호 포함)	
대표자		
발간물 수령주소	우편번호	
담당자 연락처	전화 FAX	E-mail :
회원소개 (간략히)		
사업자 등록번호	종목	

회원분류 (해당난에 ✓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S 발간물일체	A 계간지
기 관 회 원 ☐ 개 인 회 원 ☐ 연 구 자 회 원 ☐		

* 회원번호 * 갱신통보사항

(* 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특기사항

Policy Analysis 17-01

Factors Influencing ASEAN FDI and the Policy Implications

JEONG Hyung-Gon, BANG Ho Kyung,
LEE Boram, and PEK Jong-Hun

본 연구는 아세안 FDI 특징과 비즈니스 여건을 살펴본 후 그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한 · 아세안 경제협력을 보다 심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증분석을 통해 아세안 FDI 유입 결정요인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한국의 대아세안 FDI 활성화를 통한 상호 호혜적 경제성장동력 창출의 측면에서 우리 기업과 한국정부에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보고서는 향후 우리 정부의 통상정책과 아세안 지역의 경제협력 정책수립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우리 기업의 투자 및 진출전략 수립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T.044-414-1114 F.044-414-1001 · www.kiep.go.kr

ISBN 978-89-322-1664-5
978-89-322-1072-8(세트)

정가 7,000원